

동성고 사상 처음 단체우승
상무 일반부 4연속 우승

제22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6.13~16, 부산구덕체육관



개회식에서의
대표선서전경.

2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되어 태권도 보급확대와 지역간 태권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온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대회가 올해로 제 22회째를 맞이하면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59개팀, 대학부 15개팀, 일반부 21개팀 등 총 95개팀에서 6백 7명이 출전해 지난해에 총 61개팀에서 4백 14명이 출전한 것에 비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회가 지난 해 제주도에서 개최한 이래 부산에서 개최됨으로서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태권도 지방보급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대항전을 통해 각급 학교의 태권도팀 육성은 물론 일반, 실업팀의 출전기회를 확대하여 이의 육성을 도모했다. 특히 실업팀을 비롯한 일반팀 21개팀에서 총 122명이 출전해 지난해에 비해 16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는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태권도 기술발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졸출신 국가대표선수들을 실업팀 신설과 함께 각 시도협회에서 흡수함으로써, 일반부의 경기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선수들의 조기은퇴경향을 감소함은 물론 일반도장의 대거 참가로 일반부 선수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첫날 경기가 펼쳐진 13일 12시에 거행된 개회식에서 개최자인 부산직할시협회의 권오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태권도인 모두의 최대, 최상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출전 선수 및 임원들을 환영했고 부산직할시의 강태홍 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개회식 전날에 부산직할시협회는 대회에 출전한 임원 및 선수환영리셉션을 부산호텔에서 열고 더 높은 발전과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는 모범대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태권도인의 화합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마련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성(성동고)선수가 각각 최승민(동명공고)선수와 유준열(풍성고)선수를 판정으로 이기는 가운데 4일만에 걸친 승패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핀급의 강호 권태성(성동고)선수는 2차 예선전에서 국가대표인 권태호(동성고)선수를 맞아 막상막하의 경기 끝에 3회전 중반에 원발뒤후리기로 권태호선수의 안면을 공격했으나 차고 넘어지는 바람에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석패하였다. 이 경기는 두 선수 다 결승전에서 만나야 할 우수한 선수들로서 뛰어난 기량과 경기운영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 접전을 펼친 경기였다.

한편 성의원(오현고)선수는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공격해 들어오는 조현식(전남체고)선수를 오른 발을 빼면서 뒤후리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2회 1분 20초만에 K.O 승을 거두었다.

밴텀급 예선전에서도 남경우(배영고)선수는 김현석(오성고)선수를 맞아 1회 43초만에 오른발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 승을 거두었다.

대회 첫날 경기는 대진번호 159번 플라이급 예선전 이기표(송곡고)선수와 이희선(광영고)선수의 대전으로 경기를 마쳤는데 체체실격 2명, 불참자 36명이 나와 본 대회가 단체대항전으로 각부참가팀별 5체급 이상 참가해야하는 대회요강 때문에 팀만 구성한 뒤 실제 경기에는 불참하는 팀구성만을 위한 숫자 채우기의 작전이 노출 되기도했다.

● 6월 14일

이틀째 경기는 첫날 경기에 이어 고등부 대진번호 160번부터 272번까지, 대학부와 일반부의 1차 예선전이 펼쳐졌는데 특히 고등부 경기에서 85년도에 이어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서울체고와 국가대표선수 3명을 보유하고 있는 동성고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순조롭게 예선 1, 2차전을 마치고 3차전에 올랐다.

고등부 핀급 경기에서는 국가대표 권태호(동성고)선수와 윤희준(신탄진고)선수가 각각 장주명(함도실고)선수와 권기만(광성고)선수를 눌렀고 하대경(서울체고)선수도 신의천(오현고)선수를 누르고 각각 8강에 진출해 입상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예상케 했다.

플라이급 경기에서 조영남(동성고)선수는 장태형

● 6월 13일

대회 첫날 경기는 고등부 핀급 예선전부터 시작되어 A 코트에 대진번호 1번에 출전한 장주명(함도실고)선수와 B 코트에 대진번호 2번으로 출전한 권태



개회식에서
특별 대정국민학교
어린이들이 태권도
시범을 펼쳐보이고
있다.

(성일상고)선수를 3회 1분 11초만에 뒤돌려차기로 R.S.C 승을 거두었고 진 식(경상공고)선수는 권오철(청주기계공고)선수에게 2회 1분 14초만에 공격하는 밀어차기로 역습, 상대선수가 넘어져 부상으로 경기불능판정이 내려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경기에서는 신탄진고등학교의 복병으로 등장한 오희근 선수가 점프딛차기, 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8강에 진출했고 라이트급 경기에서 국가대표 윤정욱(동성고)선수와 강호 장혁(서울체고)선수 등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3차전에 올랐다.

대학부 핀급 1차에선전에서는 김영주(동아대)선수가 동성고 후배이며 국가대표 출신인 김철호(한국체대)선수를 맞아 1회전에 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고 2,3회에 다소 밀리는 듯 했으나 실점을 주지 않아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 올랐다.

한편 일반부 핀급 경기에 출전한 조재권(국민대)선수는 현역 방위병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실격처리되기도 했다.

● 6월 15일

대회 사흘째 경기는 상위 입상권에 들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 끝에 고등부에서 대통령기 3연패를 노리는 서울체고가 핀급에 하태경, 밴텀급에 양정석, 라이트급에 장혁 선수등이 4강전에 올랐고, 역대우

승경력은 없으나, 서울체고의 가장 큰 라이벌인 동성고등학교가 핀급에 권태호, 플라이급에 조영남, 밴텀급에 조준원, 웰터급에 조광천, 미들급에 송병철 선수 등 5명이 4강에 진출하였다. 동성고의 국가대표인 권태호, 강창모, 윤정욱 선수 중에서 권태호 선수만이 4강에 오르고 국가 대표선발전 플라이급 1위, 중급연맹전 밴텀급 1위등을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강창모 선수는 이번 대회에 페더급에 출전, 3체급 석권의 꿈을 키웠으나 3차에선전에서 무명의 김병곤(대전체고)선수에게 어이없이 패하고 탈락했으며 윤정욱선수도 라이트급 4차전에서 장혁(서울체고)선수를 맞아 쉬임없는 공격을 주고 받는 가운데 판정패 당하고 탈락했다.

그밖에 신탄진고의 권혁선 선수가 플라이급에서 경상공고의 진 식 선수를 맞아 다양한 공격과 멋진 플레이를 펼치며 판정승을 거두고 강력한 우승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신탄진고에서는 윤희준선수가 핀급, 오희근 선수가 밴텀급 4강에 올라 서울의 강팀들을 위협했다.

한편 대학부와 일반부에서는 체급별 1,2차 예선은 치루었다.

● 6월 16일

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펼쳐진 부산구덕체육관은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안고 출전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전으로 인해 한층 활기를 띠는 가운데 각부 체급별 준결승전 및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고등부의 핀급 준결승전에서는 국가대표 권태호(동성고)선수와 윤희준(신탄진고)선수가 서로 빠른 몸놀림으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펼쳤는데 3회전에 앞돌려차기로 기습공격을 성공해 득점을 얻은 윤희준선수가 대회종료전에 권태호선수의 역습 공격을 당해 패하는 등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좋은 공격을 보여 주었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는 오병철(부산체고)선수가 공격해 들어오는 김한진(경상공고)선수를 받아차기 성공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 최중국(리타공고)선수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는 신예 강철규(배영고교)선수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기대를 모은 장혁(서울체고)선수를 누르는 이변을 낚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웰터급 준결승전에서는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장주동(성동산업)선수가 김태형(오현고)선수를 눌렀고, 조광천(동성고)선수가 진정우(부산체고)선수의 밀착방어를 무산시키며 선방을 날려 각각 결승전에 올랐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다양하게 퍼부은 김용귀(신탄진고)선수가 박희석(성동고)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 최정근(인덕공고)선수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대학부 준결승전에서는 플라이급에 출전한 국가대표 임성욱(계명대)선수가 인해진(한국체대)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경기가 진행되는 사이 계명대 정길수 총장으로부터 이완옥코치 앞으로 끝까지 선전분투하여 필승하길 기원한다는 격려의 전보를 받기도 했다. 계명대에서는 이번 대회에 전체급에 8명의 선수가 출전, 모든 선수가 8강에 진출해 메달권 진입을 위해 선전분투 했는데 플라이급의 임성욱 선수를 비롯해 핀급의 오대환, 밴텀급의 화종민 선수 등이 4강에 진출했다.

한편 미들급 준결승전에 출전한 이화상(동아대)선수와 윤순철(경희대)선수의 경기는 전 경기를 통하여 가장 공격력이 좋은 화이팅 넘친 경기를 펼쳐 보였는데 현재 웰터급 국가대표 선수인 윤순철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일반부 경기는 각 체급별 8강전 경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웰터급경기에서 국가대표선수로 노련한 기술을 자랑하는 정국현(지하철공사)선수가 8강전에서 김정웅(경기체)선수를 3회 1분 2초만에 오른발 뒷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여 K.O 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 임기선(한성체)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했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는 계속적인 공격으로 열띤 화이팅을 펼친 허현배(상무)선수가 국가대표선수인 정승환(지하철공사)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들급 준결승전에서는 이계행(광주시협회)선수가 이용종(충남협회)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이용종선수는 이계행선수의 어깨에 미치는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빠른속도로 공격을 늦추지 않으며 도전해 왔는데 이계행선수에게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 부별 결승전 경기

● 고등부

핀급 결승전에는 서울체고의 강력한 유망주 하태경선수와 현 국가대표선수인 동성고의 권태호선수가 올라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학교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했다.

1회전에 하선수가 선제 득점을 올리는 가운데 2

회전에 권선수가 적극적인 공세로 밀어 붙이고 이를 하선수가 받아차기로 막아내는 가운데 권선수가 우세판정, 3회전에도 권선수가 계속해 공격을 펼쳤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하태경선수에게 패권이 돌아갔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동성고의 조영남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신탄진고의 권혁선 선수를 앞밀어차기 등으로 얼굴 공격을 성공시키며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밴텀급 결승전은 동성고의 조준원 선수가 서울체고의 양정서 선수를 선제공격으로 리드하며 승리를 거두었고 라이트급 결승전 경기에서는 강철규(배영고)선수와 장영태(부산체고)선수가 계속 소강상태에 머무르다 3회 초반에 점프뒷차기를 성공시킨 강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미들급 결승전에는 동성고의 송병철 선수가 1, 2회전을 우세하게 이끈 듯 했으나 3회 종료로 앞두고 득점을 올리는 유효타를 날려 승리를 장식했다.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김용규(신탄진고)선수가 최정근(인덕공고)선수를 맞아 1회중반에 뒤로 빠지며 돌려차기로 성공시켜 승리를 안았다.

이로서 고등부 경기는 플라이급에 조영남, 밴텀급에 조준원, 웰터급에 조광천 선수 등 3체급을 석권한 동성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고등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85, '86년도 두차례 우승에 이어 3연패를 바라보던 서울체고는 올해 하태경 선수만이 핀급 우승을 차지해 단체입상권에서 탈락하는 여석함을 맛보았다.

지방 태권도의 명문인 신탄진고가 헤비급에서 김용규선수가 패권을 차지하며 단체 2위를 차지했고 홈팀으로서 '86년도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부산체고는 오영철 선수가 페더급 우승을 차지하며 단체 3위를 차지했다.

●대학부

핀급 결승전에는 홈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김영주(동아대)선수가 임창섭(경기대)선수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하자 김선수를 응원 나온 동아대 동료들이 열띤 박수로 축하해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플라이급 결승전 경기는 계속 선제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은 임성욱(계명대)선수가 오상훈(동아대)선

수를 누르고 승리를 안았고, 밴텀급 결승전에서는 유명식(한체대)선수가 뒷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판정승, 페더급 결승전에서 정희석(동아대)선수는 김용석(경상대)선수와 주고 받는 공방전 끝에 3회말 얼굴공격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안았다.

라이트급 결승전에는 한국체대의 이창건 선수와 동아대와 김용수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들 두 학교는 이미 각각 금메달 1개씩을 따는 가운데 단체 우승을 가능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아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초반에 득점을 올린 이 선수가 승리를 안았다. 이어 웰터급 결승전에 진출한 박봉진 선수가 백봉진(조선대)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추가, 단체우승을 다졌다.

미들급 결승전은 정용석(한국체대)선수와 윤순철(경희대)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소극적 경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정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국가대표선수인 노신(경희대)선수가 동의대의 이성우 선수를 얼굴내러찌기 등 다양한 공격을 성공시키며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서 '85대회를 제외하고 전승을 거둔 바 있는 한체대가 이번 대회에서도 유명식, 이창건, 박봉진, 정용석 선수 등이 밴텀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등 4체급을 석권하는 가운데 대학부단체 우승을 차지, 대학 강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체대의 이창건 선수가 영윤규 본회 부회장으로부터 태권부 우수선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상무팀은 일반부 4연패의 영광을 차지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팀인 동아대는 김영주, 정희석 선수가 핀급과 페더급 패권을 차지하며 단체 2위를 차지했다.

한편 '85년도에 대학부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경희대는 노신 선수만이 헤비급패권을 차지, 단체 3위에 머물렀다.

●일반부

일반부에서는 '84, '85, '86년도의 3년 연속우승을 차지한 상무팀이 올해에도 핀급에 김민호선수, 밴텀급에 김대환선수, 페더급에 허현배선수, 라이트급에 김찬구선수등이 각각 패권을 차지하며 4연속 우승을 차지하였다.

광주지하철시협회의 이계행선수와 김양기선수가 미들급과 헤비급 패권을 탈환함으로써 단체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며 고장의명예를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한편 부산시협회 김영식 선수가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했고, 서울지하철공사팀은 창단 수개월만에 국가대표선수를 3명이나 내는 등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대회는 참가선수 8명 중 4명이 역대 국가대표 출신으로 20여년만에 실업팀이 군실업팀을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했으나 웰터급 결승전에 올라온 정국현 선수만이 광주시태권도협회의 광병호 선수에게 2회종료 기권승을 거두고 우승하여 단체 3위에 머물렀다.

■ 고 등 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 학교명
핀급	1	하태경	서울체고
	2	권태호	동성고교
	3	박재성	부산체고
	3	윤희준	신탄진고
플라이급	1	조영남	동성고교
	2	권혁선	신탄진고
	3	최신재	송도상고
	3	이대철	한성고교
밴텀급	1	조준원	동성고교
	2	양정서	서울체고
	3	최재우	성동고교
	3	오희근	신탄진고
페더급	1	오병철	부산체고
	2	최중국	리라공고
	3	홍성철	청주기공
	3	김한진	경상공고
라이트급	1	강철규	배영고교
	2	장영태	부산체고
	3	장혁	서울체고
	3	홍문주	승실고교
웰터급	1	조광천	동성고교
	2	장주동	성동상업
	3	진정우	부산체고
	3	김태형	오현고교
미들급	1	김병기	성동상업
	2	송병철	동성고교
	3	추광식	승실고교
	3	지성환	리라공고
헤비급	1	김용귀	신탄진고
	2	최정근	인덕공고
	3	윤용진	함도실고
	3	박희석	성동고교

●단체전적

- 1 위: 동성고교
- 2 위: 신탄진고
- 3 위: 부산체고
- 감투상: 서울체고
- 장려상: 대전체고
- 참려상: 송도상고
- 우수선수상: 조영남(동성고교)
- 지도상: 김인수(동성고교)

● 대학 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김영주	동아대학
	2	임창섭	경기대학
	3	김동은	조선대학
	3	오대환	계명대학
플라이급	1	임성욱	계명대학
	2	오상훈	동아대학
	3	서운서	유도학교
밴텀급	3	인해진	한국체대
	1	유명식	한국체대
	2	김영준	동아대학
밴텀급	3	화종민	계명대학
	3	임석섭	유도학교
	3	정희석	동아대학
페더급	2	김용석	경상대학
	1	정희석	동아대학
	3	고봉수	원광대학
페더급	3	고진수	청주대학
	1	이창건	한국체대
	2	김용수	동아대학
라이트급	3	허련	경희대학
	1	김상곤	경상대학
	2	박봉진	조선대학
월터급	3	공호권	청주대학
	1	박봉진	조선대학
	3	조현호	유도학교
미들급	1	정용식	한국체대
	2	윤순철	경희대학
	3	이화상	동아대학
미들급	3	박종상	경상대학
	1	노신경	희대대학
	2	이성우	동의대학
헤비급	3	김재욱	동아대학
	3	김동욱	한국체대

● 단체전적

- 1 위 : 한국체대
- 2 위 : 동아대학
- 3 위 : 경희대학
- 감독상 : 계명대학
- 장려상 : 경상대학
- 우수선수상 : 이창건 (한국체대)
- 지도상 : 이승국 (한국체대)

● 일반 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김민호	상무
	2	이해진	부산시태권도협회
	3	김관수	성동체육관
	3	송영협	실악케이불카
플라이급	1	김영식	부산시태권도협회
	2	송명철	청학체육관
	3	고정호	지하철공사
플라이급	3	이경희	광주시태권도협회
	1	김태환	상무
	2	김재천	광주시태권도협회
밴텀급	3	김덕용	지성체육관
	3	신연광	참피운체육관
	1	허현배	상무
페더급	2	박신태	영도체육관
	3	김병철	청학체육관
	3	정승환	지하철공사
페더급	1	김찬구	상무
	2	최공집	광주시태권도협회
	3	김정근	오봉체육관
라이트급	3	최병호	동아체육관
	1	정국현	지하철공사
	2	곽병호	광주시태권도협회
월터급	3	임기선	한성체육관
	3	장익수	부산시태권도협회
	1	이계행	광주시태권도협회
미들급	2	윤운택	실악케이불카
	3	이용중	충남태권도협회
	3	이승인	지성체육관
미들급	1	김양기	광주시태권도협회
	2	최종남	지하철공사
	3	이정선	상무

● 단체전적

- 1 위 : 상무
- 2 위 : 광주시태권도협회
- 3 위 : 지하철공사
- 감독상 : 부산시태권도협회
- 장려상 : 영도체육관
- 우수선수상 : 허현배 (상무)
- 지도상 : 황영갑 (상무)

도장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지역 도장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태권도 협회에서는 지난 8월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도장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회가 일선도장 사범들이 보다 나은 도장운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정보를 제공하려는 일선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장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일선도장 사범들에게 적극 권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본회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일선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도장운영의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I. 조사의 개요와 방법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86년 2월에 일선도장 육성과 지도자 양성은 물론 사범 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전국 일선도장 운영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두번째로 '87년 8월에는 서울지역 도장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회가 일선도장 사범에게 보다는 도장운영을 할수 있도록 현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변확대를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등 고도 산업사회로 진행되어가는 국내의 사회환경에 그동안 국민체위향상에 이바지해 온 일선도장이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앞으로 국내 태권도 조직의 시발점인 일선도장 사범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일선에 적극 권장하려는 생각에서 정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되어졌으면 한다.

2. 조사내용

이번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속성에 관한 질문 9개, 도장운영실태에 관한 질문 9개, 주변 환경에 관한 질문 5개, 태권도교육 내용에 관한 질문 4개, 수련동기에 관한 질문이 4개, 도장시설에 관한 질문이 4개 등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하게된 원인은 우선 도장운영의 평가기준을 수치화하는데 제일 쉬운 수련생수에 그 초점을 모아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하려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장

운영의 또다른 평가기준인 교육성과를 측정하는데는 미흡했으며 이는 앞으로 숙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3.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본회 편집분과위원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각구 대의원들이 지구별로 일선도장 사범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문항별로 응답을 받아 취합했다.

특히 조사의 시간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배포에서부터 회수까지의 최단시간이 소요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는 비교적 적으나 응답 내용은 비교적 사실적인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의 질문 중에서 도장운영현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5개항목, 즉 도장 수련생수, 사범의 정신적 경제적 만족도, 시설규모, 수련비 총수입액, 수련생의 세대당비율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질문과의 상관관계(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서 어떤 형태의 도장이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를 우선 추출하였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도장은 잘 안되는 곳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모았다.

5. 이번 조사의 제한점

가. 지역적 제한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 국한하였다.

나. 응답도장의 사범은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우세한 도장의 운영자로 판단된다. 이것은 통계학적인 샘플링 방식에는 어긋나나 조사에 동원된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다. 설문지의 설계상 제한

설문지 구성에 있어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나 결과의 정리와 연계해서 설계하는 전문성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 응답수의 대표성에 제한

서울지역 도장수의 약 10%인 87명의 응답자수가 각종 형태의 도장 실태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대도시의 지구별로 격차가 심한 주거형태별 응답자 분포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조사결과와 분석에서 나타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내용

1.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 현재 운영이 잘되는 도장들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

가. 철저한 자기(도장)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이번 조사의 분석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선사범(도장운영자를 말함)들이 각자의 도장운영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일선사범이 일정한 기준을 놓고 “도장이 잘된다, 안된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대부분 수련생수나 총수입액(월별수입총액으로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도장 운영의 평가기준이 없었다”는 단적인 표현으로 줄일 수 있겠다. 설문지 분석결과를 보면 일선사범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동년배 타지종의 직업인에 대한 수입편을 기준으로 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자기평가 방법이라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직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정년까지의 총 수입액을 비

교 한다는 전제가 가능해야만 타직업인과의 비교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각 도장의 지역적 위치가 도장 수련생수와 제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따라 평가기준 역시 달라야 하며 인구 또는 세대수와 도장의 수련생수를 연결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선사범은 이번 조사에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수련생감소추세(응답자의 46%)를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도장)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발견해서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면 각자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 것이다.

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범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수련생수 증가를 위해서 지도자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범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경기입상 상장과 메달, 사범 자격증, 단증, 경기 지도자격증, 심판자격증, 학교졸업장, 학위수여증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믿는 사범들은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자칫 낙오의 대열로 빠지기 쉽다고 본다. 앞서 열거한 각종 증명서는 사범 각자가 도장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명서는 보다 잘되는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는 제도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의 졸업장이 도장 운영 상태와 직결되지는 않았다.

앞서 열거한 증명서는 마라톤 시합에서 출발점을 조금 앞서서 뛰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장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의 시작점에

서 앞서있는 것보다는 얼마만한 스피드로 계속 달릴 수 있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능력향상은 도장개설 이후 은퇴할 때까지의 부단한 자기 개발에 그 역점을 두어야지 일시적인 새로운 자격증에의 취득의욕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에도 직장인들의 성공여부가 취직 이후의 능력개발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것처럼 사범들의 능력신장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범보수교육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해결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사범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각종 자격증 취득에 만족하는 타성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번 조사응답자의 85%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교육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에 걸맞게 교육원리에 관한 지식과 구체적 실천능력을 갖추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는 태권도 교육이 전문가로서의 지식, 기술, 그리고 사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2) 시설확충을 기하라.

이번 조사에서 볼 때 전체면적이 큰 도장일수록 수련생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범능력신장에서와 같이 생각한다면, 도장 등록증(교육구형이나 시도협회)은 도장개설에 있어 최소한의 시설기준일 뿐 지역별로 도장이 잘되게 하기 위한 만족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냉정하게 보면 각종 시설 관계 규정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고급화되고 전문화되는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일선도장의 시설규모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설확충은 앞으로 일선사범이 부딪치게 되는 직접적인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시설과 수련생 층의 연소화경향(성인수련생비율과 여성수련생 비율의 취약성)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며 시설확

충없이 성인이나 여성 수련생의 확대는 매우 곤란한 속도로 생각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설규모와 그 내부 시설은 지역별로 수련대상별로 요구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계되고 설치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투자재원의 확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선사범들이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향을 내다보고, 여기에 따르는 준비들을 사범들은 계획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작은 규모의 운영실태로 단시일에서 시설확충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기본시설의 대형화추세에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설의 확충이라는 문제에 있어 또다른 해결대책은 단순한 고정시설의 확대보다 시설은 소규모이지만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이지만 갖출 것은 다 있어야 하고 또 그 운영기술면에서 남다르고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재정면으로 볼 때 현재 수준에서 일선도장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작업들 즉, 시설의 청결성, 안정성, 변화성,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도에 머물수 밖에 없더라도 시설확충이라는 기본방향은 우리 앞에 곧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 대두될 사회체육 정책방향에서 일선 도장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개선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비현실적일지는 모르나 앞으로 도장개설시 사범 개인의 투자능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협조하에 공동투자나 투자와 운영의 분리구조 같은 새로운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3)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사범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수련생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

현재 도장의 지도방법은 사범의 방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으나 기술 체계의 통일로 인하여 수련생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번 조사에의 일선 사범의 86%가 교육중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범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었으나 우선 수련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외에 다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인 것은 태권도의 기술에 치중된 교육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련생의 욕구를 다른 교육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일선사범이 고려해야 할 점은 수련생의 수련동기는 그들이 속한 연령계층, 직업,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고 또 이에 따라 교육내용 역시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아부에 성인들의 일반적인 수련동기인 건강유지나 체력보강을 위한 유연성 강화만을 강조하면 유아부 수련생이 추구해야 할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함양 또는 신체발달과는 거리가 먼 교육내용만을 지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는 태권도의 교육영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작게는 태권도 기술 교육의 체계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어떤 제도적 장치로 해결하기 보다 사범들이 스스로 지도현장에서 창안하고 실천하면서 그 효과를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영역을 확대 해석하는 방향에서 유의할 점은 태권도 외의 기타 전문교육, 예를 들면 주산, 암산, 미술, 피아노와 같은 별개의 중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갖는 유희성(놀이), 스포츠성, 무도성을 현대적의미로 재해석해서 적절히 활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태권도교육프로그램이 유아용, 국민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고학생용, 성인용, 노인층용, 그리고 여성용으로 차별적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련동기

분석과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작업이라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4) 도장운영은 전략적으로 하라

매우 생소한 말이지만 전략적 도장운영(경영)이란 한마디로 구체적 목표(여기에서 구체적 목표란 막연히 "잘 돼야 할텐데"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는 지향점을 말한다)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설정해서 철저히 실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 결과로 바라는 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쟁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세울것.

여기서 경쟁능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주변에체능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뜻과 사회환경변화에의 대응력을 갖추는 두가지 뜻을 통털어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00 동의 000 도장은 수련생수가 000명인데 내 도장은 00명에 불과하다"는 비교만으로는 결코 뚜렷한 목표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장에서 수련생 모집대상으로 잡고 있는 세대수에 있어 "태권도는 000인데 인근 00 학원은 000으로 우리의 000명보다 많다"라는 비교가 알맞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주변 경쟁관계에 있는 교육시설의 인원수에서 우세와 열세를 판단하고 열세할 경우 왜 그런가하는 의무를 갖고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열세의 원인으로서는 시설문제, 지도의 능력, 도장의 평판 등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우선 경쟁능력을 강화시키려 노력했을 경우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수준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실천사항의 명철한 자기진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② 세대당 수련생 확보비율을 살펴볼 것

— 100세대당 4명이상을 확보하라—

앞서 경쟁력 강화에서 도장끼리 절대 인원수만을 수평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인군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기관을 두루 살피라는 생각에서 좀 더 발전한다면, 단순히 수련생수만을 고려하는데는 큰 함정이 있음을 알게된다.

즉, A 도장은 주변세대수가 5,000인데 수련생은 100명으로 100세대당 2명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B 도장은 주변세대수가 2,000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생은 80명이라면 B 도장은 100세대당 4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에 B 도장은 절대인원수를 100명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A 도장 사범이 스스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도장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세대당 수련생 확보 비율은 4%, 즉 100세대당 4명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거형태별로 생각한다면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4%의 달성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일선 사범들은 우선 자기 도장의 세대당 수련생 확보비율을 4%이상으로 삼는 것과 주변교육 기관들의 인원확보 비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목표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겠다.

③ 가망(可望) 수련생을 축소해서 생각하지 말것

—성인, 여성을 공략대상으로 할것—

이번 조사결과 현재 수련생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유치부 28%, 국민학생 50.6%, 중고등학생 12.5%, 성인은 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연령층을 통틀어 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수련생의 연소화 추세는 당연한 것으로 사회현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다. 둘째는 도장의 성인 흡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 그리고 각종 공해와 성

인병의 만연이라는 사회현상을 놓고 생각할 때는 위의 두 의견 모두 지극히 소극적이고 도장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태권도계 전체가 대응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선 사범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입장인 만큼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정하기보다는 역할을 강화,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건강한 삶의 행위"라는 사회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가깝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태권도장과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사범의 역할은 태권도 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④ 도장시설을 놀리지 말것.

—수련생들의 자율학습장으로 활용—

현재 도장운영 방식은 사범의 구령과 지시에 따라 수련생은 맘 흘리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의 일과표는 수련생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로 "00부"라고 정해지면 여기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성인이나 여성(성인)인 경우는 그 수가 적고 또 수련요청시간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00부"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헬스클럽」에서와 같은 "주 0회 어떤 운동 0회"의 운동처방식 지도방법을 활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 1회 정도만 직접 지도하고 자율적으로 편한 시간에 도장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사범이 점검해서 다음 지도과정에 반영시키고 하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로써 비워있는 도장의 수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역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제부터는 기존의 방식대로 사범이 정한 바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이의 기호나 가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생 개개인의 필요한 바에 도장과 사범의 방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⑤ 3개월에 한번씩(계절별)

도장운영의 상태를 진단할 것

이상과 같은 도장경영을 전략적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기적으로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흔히 운영목표를 세워놓고는 호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정기적으로 계획한 바와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정 그리고 그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3개월에 한번씩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해보고 잘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를 검토해본다면 목표치가 무리했는지 아니면 노력의 부족여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역시 이 정기적인 자기검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달성 여부의 중간 점검은 혼자하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렇게 전략적 운영을 시도하는 다른 도장이나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제도개선에 관한 검토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현행도장설치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시설물과 도장간 거리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설문은 아니었으나 분석결과를 놓고 볼때 새로운 방식의 도장 관리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행 시설기준은 설치당시의 고정시설물로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수련장 등으로 최저면적을 정하고 있으며 위치로는 유흥업소와의 인접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부 사용시설로는 운동용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기준일뿐 만족수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런 여러가지 시설의 계속 관리, 유지를 사범의 자율적인 역할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는 일선 사범이 짝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에만 역점을 두기 쉽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범 스스로 시설확충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장개설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수련생수나 연평균 승품단 응시자수의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시설규모를 개설시보다 확충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도장등급제도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도장관리방안을 생각해 볼지도하다.

그러나 이것은 본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각 시도협회에서 그 지역과 도시별 특성을 바탕으로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는 실행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별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의 도장설치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제한에 관한 것이다.

현행 시도협회의 규정은 도장간의 중복배치와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고 적절한 운영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도장간 최소 직선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두가지 점에서 대두되고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고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주거형태 역시 단위면적당 많은 세대가 밀집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장의 적정한 세대당 수련생 확보율이 4%선이며 이 보다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원수는 상위 그룹인 100명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은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한 근본적으로 많은 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도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도장거리의 경쟁관계보다는 그 지역 전체의 태권도 수련생수 증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현재 A시에서 직선거리 500m를 제한한다고 할 때 한 도장의 독점 면적은 3.14km²(약 100만평)이며 이안에서 단독주택 약 10,000세대, 아파트로는 약 20,000세대가 주거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지역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거리제한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계산수치는 기존 도장이 없는 곳에 최

초의 도장 개설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의 대도시에서처럼 고밀도 대단위 아파트군이 밀집되는 도시개발 경향으로 보아 인근 기존 도장이 원활한 운영상태를 보이고 있고 새로 형성된 세대를 수용할 능력이 없어도 불구하고 거리제한 때문에 태권도 수련생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태권도 전체 저변확대에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협 회별로 단순 거리 제한만으로 일률적용하는 것보다는 거리와 세대당 수련생 확보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실천방안을 생각한다면 기존 거리 제한내에 신규도장개설을 원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세대수와 기존도장의 수련생수와 확보비율을 입증하는 조사보고서 양식과 기존 도장 수련생의 흡수를 금지한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서 검토하는 것 등 얼마든지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오히려 현재의 도장간 단순거리 제한 방식만으로는 차량을 동원한 지역 침투와 같은 과당 경쟁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Ⅲ. 설문지조사 결과의 분석

1.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범의 속성

이번의 설문조사 응답자 총 87개 도장의 사범의 연령은 20대가 16%, 30대가 63%, 40대가 18%, 50대가 3%로 나타나 30대가 가장 많았다.

단 별로는 4단이 20%, 5단이 38%, 6단이 29%, 7단이 13%로 5단이 가장 많다.

최종 졸업학교는 고등학교가 41%, 전문대 졸업이 22%, 대학교이상이 37%를 차지하며 도장 운영경력에 있어서는 1년에서 5년이 30%, 6년에서 10년이 36%, 10년이상인 30%, 20년이상인 4%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 사범 평균 프로필은 30대에 5단, 전문대졸이상, 도장운영경력 6년~10년사이로 비교적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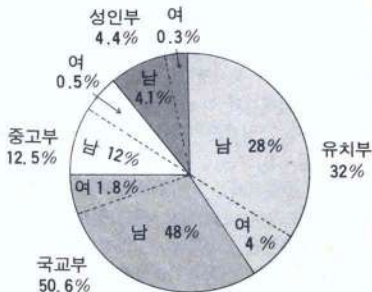
2. 도장운영실태

가. 수련생수

조사일시를 기준으로 한 87개도장 전체의 평균 수련생수는 92명이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월평균 수련생수는 75~100명이라고 응답한 곳이 40%로 제일 많았으나 74명이하도 38%였고 101명이상은 22%였다.

수련생의 연령층과 성별구성으로는 유치부가 32%, 국교부 50.6%, 중교부 12.5%, 성인부 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93.4%, 여자 6.6%로 지난 86년도 전국대상조사의 여자비율 5%보다 1.6%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부별, 성별구성비는 [표1]과 같다.



[표1] 수련생 부별 성별구성비

이번 조사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최근 3년간 수련생 증감추세에 관한 응답분포였다. [표 2]

응답자중 46%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으며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37%, 증가추세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이것은 86년도 전국대상 설문조사



[표 2] 최근 3년간 수련생 증감비율

시 19%만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보다 감소 추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결과가 서울지역에 국한된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련생수의 변동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사범의 노력여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수련생증가문제에 있어 주변 예체능학원의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대답이 45%, 영향이 심하다는 의견이 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호보완적인 도장은 12%에 불과했다. 이것은 수련생 유치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내적으로 지도자의 노력을 강화해야하며 외적으로는 주변예체능학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된다.

나. 시설현황

이번 설문조사대상자의 도장이 설치된 위치를 살펴보면 단독주택밀집지역이 69%로 제일 많았으며 아파트밀집지역이 16%, 상가밀집지역이 15%의 순이었다.

시설규모는 먼저 도장의 전체 면적으로 볼때 41평

이상이 33%, 31평에서 40평이 41%, 30평이하가 26%로 나타났다.

또한 도장내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탈의실과 샤워장이 100% 설치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시설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각종 도장설치관계구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교육용도서자료나 시청각교재(VTR등)의 보유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었다.

다. 수련동기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동기는 건강증진을 가장 높이 꼽고 있다. 이어 정신수양 및 성격개조, 호신술 연마, 여가선용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도자가 보는 수련생의 수련동기와 학부모가 태권도 수련으로 기대하는 효과로는 정신건강 및 성격개조를 우선순위로 꼽고 이어 건강증진, 호신술연마, 여가선용의 순으로 꼽고 있다.

한편 수련생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 태권도를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와 부모나 스승의 권유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수련생들은 도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위치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으며, 이어 도장시설, 사범의 지명도, 교육내용, 수련비용 등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라. 태권도 교육내용

도장운영에 있어 태권도외에 다른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도장은 43%, 실시하지 않는 도장은 57%로 나타나는데 다른 교육도 실시하는 곳에서는 주산, 웅변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태권도 수련외에 태권도 교육용시청각교재의 사용에 대해서는 67%가 사용하는데 주1, 2회가 57%, 월1, 2회가 43%에 달했다.

태권도 교육용 보조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38%, 그런대로 필요하다 48% 등 총86%에 달하는 사범들이 교육용보조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마. 사범의 만족도

태권도 사범은 76%가 보조사범과 함께 태권도 지도를 맡고 있다. 이들은 동년배, 동학력의 타직업인과 비교하여 수입면에서 비슷하거나(53%) 더났다(24%)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어 뒤진다(15%) 모르겠다(8%)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크게 우세했다.

정신적, 경제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다. 59%, 만족한다가 22%를 나타내는데 비해 그냥 생각않고 산다 13%, 불만이다 6%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정신적 만족감은 태권도장 사범의 85%가 지역사회 교육자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 세대별 인구

일선 도장에서 수련생 모집대상으로 잡고 있는 세대수는 평균 2,420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수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인식부족이거나 파악해두지 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는 응답이 상당수에 달하여 도장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3. 도장운영이 잘되는 곳과 잘안되는 곳의 비교

가. 수련생수로 본 도장운영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40%가 최근 1년간 월평균수련생수를 75~100명이라고 하였다.

101명 이상의 수련생수를 확보하고 있는 도장은 23%, 74명 이하의 도장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련생수에서 101명 이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도장은 사범의 나이 또는 학력과는 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 경우 50% 이상이 101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도장의 위치에 있어서는 단독주택밀집지역에 69%의 도장이 편중되어 있으나 지역별 수련생

수와 비율에 있어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101명 이상의 수련생수를 가진 도장이 많았다. [표 3]

[표 3] 도장위치별 수련생수 분포

(단위%)

도장위치 수련생수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01명 이상	20	15	43
75~100명	43	31	36
74명 이하	37	54	21
계	100	100	100

아파트밀집지역이 수련생수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위면적당 인구세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01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는 도장은 도장의 전체면적에 있어 74명 이하의 수련생을 확보하는 도장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면적으로 볼때, 101명 이상의 도장은 50.7평, 75~100명 도장은 40.4평, 74명 이하 도장은 35평으로 도장의 규모와 수련생수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수련생수가 많은 도장에서는 태권도 수련외에 다른 교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60:40으로 높았다.

또한 수련생을 많이 확보하는 도장일수록 수련생 모집대상으로 잡고 있는 세대수가 많았다. [표 4]

[표 4] 월평균 수련생수(도장)와 모집대상 평균세대수

월평균수련생수	모집대상평균세대수	지수
101명 이상	3500세대	100
75~100명(평균치 88)	2331세대	67
74명 이하	2157세대	62

이상에서처럼 수련생이 많은 도장일수록 고학력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파트지역의 넓은 도장에 태권도 외에 다른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사범의 정신적, 경제적 만족도의 크기로 본 도장운영의 차이

일선도장 사범의 정신적, 경제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련생수의 많고 적음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101명 이상의 수련생수를 확보하고 있는 도장의 경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범은 한 명도 없는데 비해 불만이라는 응답자의 80%가 수련생 74명이하의 도장에서 나왔다.

또한 주변예체능교육기관과의 경쟁정도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변과의 경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불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표 5] 정신적·경제적 만족도와 주변교육 기관과의 경쟁정도

경쟁정도 현재의 생활	심하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호 보편적이다	계(%)
만족한다	21	63	16	100
보통이다	46	40	13	100
그냥생각않고 산다	64	36	0	100
불만이다	80	0	20	100

특히 사범들의 정신적, 경제적 만족도는 동년배, 동학력의 타직업인 보다 우위에 있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열세에 있다고 느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다. 도장의 시설규모의 대소로 본 도장운영상의 차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3년간 수련생 증감추세에 있어 도장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변예체능교육기관과의 경쟁정도에 있어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장의 규모가 30명이하에서는 월수련비가 2

만5천원이상을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비해 도장규모가 클수록 도장수련비가 높아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라. 수련비 총수입의 크기로 본 도장운영상의 차이

각 도장의 1달 총 수련비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수련생수에 1달 수련비를 곱해 산출해 보았다. (여기에는 기타 수입은 제외했다.)

수련비 수입은 201만원이상이 25%, 101만원에서 200만원이 52%, 100만원이하가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6]

이처럼 서울지역 일선도장에서는 절반이상이 100만원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입수련비가 높은 도장은 아파트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장규모가 크고 수련생수가 많은 곳일수록 높았다. 또한 주변예체능기관과의 경쟁정도에 있어서는 우호보편적일수록 높고 경쟁관계가 심



[표 6] 서울지역 도장의 1달 총수입액.

할수록 매출액이 적었다. 한편 수련생들의 도장선택요인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도장의 위치(56%)는 매출액이 높은 도장일수록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감소되고 도장의 시설 및 사범의 지명도, 교육내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마. 세대당 비율로 본 도장운영실태

수련생수의 세대당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최근 3년간의 수련생수 증감에 있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세대당비율이 낮을수록 수련생수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표 8]



[표 7] 수련생수의 100세대당 비율

[표 8] 100세대당 수련생수와 수련생 증감추세

100세대당수련생	같은수준이다	점차증가한다	점차감소한다
7명 이상	30	11	12
5~7명 미만	18	11	30
4~5명 미만	26	11	12
2.5~4명 미만	22	22	27
1~2.5명 미만	4	45	19
계	100	100	100

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명미만일 경우 점차증가하고 있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증가의 비율이 정체를 이룬 11%에서 머물고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74%에 달했다. 이는 세대당비율이 4명까지는 높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증가시키기가 어렵고 유지하는 도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장 운영자는 100세대당 4명까지의 세대당비율은 높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87개도장의 평균수련생수인 92명을 확보하는데는 최소한 2300세대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련생수의 절대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대당비율을 높여가느냐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수련생 수의 증가만을 생각하는 사범들에게는 도장운영 방법상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Ⅳ. 앞으로 도장운영의 개선을 위해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본회가 실시한 제한적인 설문조사만으로는 일선도장의 운영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서 이번 조사의 제한점에서도 밝혔듯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가 갖는 통계의 한계와 또 단순한 분포나 확률만으로 개개 일선도장의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대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회는 지금까지 시도한바 없는 이런 문제의 도출차별과 대강의 방향을 일선사범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큰 자부심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본회는 더욱 더 일선 태권도 사범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고 또 시도협회와 일선도장을 망라해서 국내 태권도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맺으면서 앞으로 도장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장운영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둘째, 위 모델의 외양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달성해야 할 교육적 성과를 어떤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셋째, 표준의양과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 위와 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태권도계의 위상(位相)정립에 관한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에 관련된 각종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본회는 이런 과제를 준비가 되는대로 적절히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속 회원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학 태권도 교육을 진단한다

- 경희대학교, 대한유도대학,
한국체육대학을 중심으로 -

한국 고유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과학적인 체계위에서 범 세계적인 스포츠로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1977년도에 한국체육대학의 체육학과와 대한유도학교의 격기학과에 각각 태권도부 전공학생을 선발함을 시발로 1983년도에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에 태권도 학과가 개설되면서 태권도학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태권도 지도자 배출과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그 이론과 기술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태권도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의 태권도 전공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완전한 학문적인 가치 및 기술의 과학성을 체계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태권도학과 및 태권도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는 위의 3개 대학의 태권도학과 현황 및 교과과정, 태권도에 관계된 학술논문, 신입생 선발요강 및 졸업생 진로 등을 통하여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 및 태권도 기술의 과학적인 스포츠화에 대학 태권도인들이 나아갈 지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고교 태권도인들의 대학입학안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학 태권도의 존재가치가 무엇이며 대학 태권도의 양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태권도학의 의의

체육은 인간운동의 學(Science)이자 術(art)로 정의된다. 이 말은 체육에는 인간운동을 탐구하는 이론적 측면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기술적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태권도학(學)과 연관시켜 볼 때 대학에서의 태권도학과는 태권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성과 태권도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실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일반 교양체육의 바탕 위에 체육학, 생리학, 해부학, 심리학 등을 근거로 하여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등과의 밀접한 관련과 유대 속에서 태권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며 태권도 실기 기술을 연마하여 경기력을 향상, 유능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태권도학과의 설립배경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목적
-대한유도학교 태권도학과-

한국에서 최초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것은 대한유도학교에서 1982학년도부터 태권도학과를 신설해 정원 100명으로 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부터이다.

대한유도학교는 1977년도부터 80년도까지 격기학과(태권도, 합기도, 검도, 복싱, 레슬링, 씨름)에서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나 1981년도부터는 격기학과외의 태권도전공외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됨으로써 현재까지 태권도 전공자만도 총 1,298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유도학교 대형체육관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88서울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공인된 국제 대회만도 전 세계에 걸쳐 연중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은 물론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양성이 시급하다는 중주국으로서의 사명감에 의해 최초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것이다

경기도 용인의 대자연 속에 자리잡은 13만여평에 달하는 대한유도학교에는 3천 5백평에 달하는 대형체육관이 있고 이곳에 레그로 플라스틱 바닥으로 특수 처리된 292평의 태권도 전용도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뚜기메트, 맥, 트레이닝 기재 등이 설비되어 있다. 또한 부속 연구기관으로 「무도연구소」가 개설되어 인간의 신체활동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체력의 증진, 활동능력의 개발, 생상선의 극대화 등 인간의 제반 신체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도학교는 태권도학과 및 격기학과외의 태권도전공자가 타학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 왔기 때문에 한국 태권도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에 최초로 개설

-경희대 태권도학과-

정규 종합대학으로서의 최초로 1983년도에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었다.

한국 교유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과학적인 체계 위에서 법제적인 스포츠로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태권도를 학문연구 바탕위에서 우수한 선수 및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해 국제화된 태권도를 세계 속에 토착시켰겠다는 목표로 출범했기 때문에 대한유도학교와 그 개설의의는 비슷하나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학문적 이론체계의 정립에 주안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종합대학으로서의 최초로 태권도 학과가 설립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자리잡은 자연과학대학 태권도학과는 5천7백평의 초현대식 5층 건물에 현대식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체육과학관에 마련된 전용 경기장에서 태권도 실기 수련을 쌓고 있다.

■ 각 대학 태권도학과 현황

(1987년 현재)

대 학	인원(명)				계	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54	44	21	22	141	신수 19명 여자 6명
한국체육대학 체육학과 (160명정원) 경기지도학과 (40명정원) 태권도부	10	15	10	9	44	
대한유도학교 태권도학과 격기학과 (태권도전공)	130	130	130	100	490	총 770명
	67	48	85	80	280	

경기력 위주의 엘리트 선수 육성

—한국체육대학 태권도부—

유일한 체육계 4년제 국립대학으로 1976년 12월에 설립되어 1977년도에 1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한국체육대학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신수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대전제로 전문종목별로 지도교수 및 경기전문지도자에 의해 경기력 위주의 우수한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즉 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이를 과학적인 체계 하에서 기술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국위를 선양하고 장차 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며 체육학과를 설치해 그동안 7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량 배출해온 우수신수의 요체이다.

한국체대는 잠실 올림픽 타운에 캠퍼스를 갖추고 전원 국비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의사 2명, 보건소에 상해전문치료사가 있고 학생들은 상해보험에 들어 있다.

각종 운동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운동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만큼 선수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력만을 위주한 선수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는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2시 45분

까지 실시되는 일반교양 및 전공과목 시간에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정기준을 전체과목의 30% 이상으로 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3. 태권도학과의 교과과정

태권도는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인 수련을 병행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신과 신체 수련의 구체적인 관계의 교육이 바로 이론의 강외와 실기 수련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태권도의 이론 강의에서는 학문적으로 태권도의 이론적 뒷받침과 태권도 기술의 수련내용과 방법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태권도의 우도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한유도학교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 과 목	학점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2	1	2	1	2	1	2
교 과 목	국어	3(3)	3							
	영어	4(4)	2							
	한국사	3(3)	3							
	수업	2(4)	1							
	영어	4(4)	2							
	한문	2(2)		2						
	문화사	2(2)				2				
	음악	2(2)				2				
	문학개론	2(2)				2				
	경제학	2(2)					2			
사회학	2(2)					2				
자연과학개론	2(2)						2			
법학개론	2(2)	2								
건강교육	2(2)							2		
영어회화	6(2)					1	1	1	1	
제2의국어 (일, 불, 선택)	4(8)					1	1	1	1	
교 과 목	교육학개론	2(2)				2				
	교육사회학	2(2)				2				
전 필	체육원리	3(3)	3							
	체육심리	3(3)						3		
	사회체육론	3(3)							3	
	운동생리학	3(3)				3				
	체육철학	3(3)							1	2
	해부생리학	3(3)						3		
	태권도역사	4(4)	2	2						
공 수	태권도역학	4(4)						2	2	
	태권도역학	4(4)						2	2	
	태권도역학	4(4)				2	2			
	태권도역학	2(2)						2		

유 도학교의 태권도학과 전공과목으로는 체육태권도사, 태권도역학, 태권도 트레이닝론, 실기교육방법과 체육원리, 체육심리, 사회체육론, 운동생리학, 체육철학, 해부생리학 등이 개설되어 있다.

그밖의 교양 필수나 선택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으로 개설 강좌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경 회대 태권도학과와 비교과정을 볼 것 같으면 전공과목으로 태권도 실기, 태권도 지도법, 태권도 시범론, 겨루기론 체육원리, 태권도 개론, 발육발달론, 체육생리, 레크레이션, 체육사, 스포츠 맛사지, 체육 심리, 체육역학, 트레이닝법, 체육 측정평가, 격기론, 구급법, 체육 사회학 등이 개설되어 있다.

■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구분	교과목	시간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	시간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	시간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	시간	학점	
			1	2				1	2				1	2				1	2
전공교양 제2외국어 제1인문계과목 제2인문계과목 발육발달론 태권도역학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시범론	국어 I	3	3	3	공공교양	태권도역학	2	1	1	전공선택	태권도연습 II	4	2	2	전공필수	태권도실기 III	4	2	2
	국어 II	3	3	3	공공교양	태권도역학 II	2	1	1		태권도연습 III	2	1	1		태권도지도법	2	2	2
	영어 I	3	3	3	제2외국어	스포츠역학	3	3	3	태권도시범론	2	2	2	태권도시범론	2	2	2		
	영어 II	3	3	3	제1인문계과목	스포츠맛사지	2	2	2	태권도연습 III	4	2	2	태권도연습 III	4	2	2		
	사회 I	2	2	2	제2인문계과목	체육심리	3	3	3	체육역학	3	3	3	체육역학	3	3	3		
	체육 I	2	1	1	태권도역학 I	체육외사	3	3	3	트레이닝법	3	3	3	체육측정평가	3	3	3		
	교원 II	2	1	1	학 교 보 건	농 구	2	1	1	태권도역학 III	3	3	3	격기론	3	3	3		
	구급법 (여)	2	1	1	상 상	배 구	2	1	1	구 급 법	2	1	1	태권도실기 V	4	2	2		
	집체교육 I	1	1	1	태 권 도 복 수 작	리듬체조 (여)	2	1	1	체 조 (여)	2	1	1	태 권 도 실 기	4	2	2		
	제2외국어	3	3	3	태 권 도 연 습 1	유 도 (남)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제1인문계과목	3	3	3	태 권 도 연 습 2	무 용 (여)	2	1	1	자 유 겨 루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제2인문계과목	3	3	3	체 육 생 리	관 프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발육발달론	3	3	3	레 크 레 이 션	체 육 사	3	3	3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역학	2	1	1	체 육 사	태 권 도 실 기 II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시범론	2	1	1	태 권 도 실 기 III	태 권 도 실 기 III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시범론	2	1	1	태 권 도 실 기 IV	태 권 도 실 기 IV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시범론	2	1	1	태 권 도 실 기 V	태 권 도 실 기 V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시범론	2	1	1	태 권 도 실 기 VI	태 권 도 실 기 VI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권도시범론	2	1	1	태 권 도 실 기 VII	태 권 도 실 기 VII	1	2	2	태 권 도 실 기	2	1	1	태 권 도 실 기	2	1	1			

한 국체육대학에서는 전문 실기시간외에 일반 교과과정에 교양과목으로 국어, 국민윤리, 국사, 한문, 음악, 미술, 영어, 일어, 체육, 교원, 가정학개론, 자연과학개론, 문화사, 경제학개론, 철학개론, 법학동론, 사회학개론 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직과목으로 정신위생, 교육학개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심리,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사 등이 있다. 전공과목으로는 체육사, 리듬체조, 계절운동, 해부생리학, 운동심리학, 학교보건, 신체기능학, 측정평가, 체력트레이닝학, 비교체육론, 코치학, 세미나, 체육과 지도법, 체육원리, 운동생리학, 육상경기, 체육사회학, 체육관리학, 건강관리학, 레크레이션론, 체육방법론, 신체발육학, 안

전학 등이 개설되어 경희대의 교과과정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과목이 3학점일 경우 일주일 에 3시간 강의가 평균인데 비해 태 학기마다 전문실기 과목은 3학점인데 반해 시간에 있어서는 주 18시간을 차지해 매일 오후 3시간씩은 정규학과 시간에 태권도부 학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태권도부 학생들은 태권도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성적을 거두고 훌륭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타 대학보다 태권도부의 전문실기지도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체대 태권도부는 연간훈련계획 및 세부계획에

의거해 태권도를 연마하고 이를 측정평가하고 있다.

또한 훈련지도과정의 주요점을 첫째, 워밍업(스트레칭)을 충실히하여 몸을 유연하게 한다. 둘째, 경기에 임했을 때 기본 발차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셋째, 정확한 동작을 구사하는 선수의 시범을 통하여 모방하도록 하며 각 동작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한다. 넷째, 구분동작의 반복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유연성이 부족한 학생은 중점적으로 유연성 훈련을 개별 지도한다고 한다.

이렇게 훈련지도방식에 의거해 단계별 훈련을 실시해 경기에 임했을 때 정확한 동작으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태권도를 전공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 끝나면 각자 안락한 기숙사와 학생회관, 도서관등을 찾아 학문을 연구하여 독서에 심혈을 기울이며, 성숙한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도야와 취미활동을 살리는 써클활동 등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 한국체육대학 태권도부 연간훈련계획

구분	기별 월	체력단련기		준 비 및 시 합 기					단련기(전문기술 및 체력)				
		11	12	1	2	3	4	5	6	7	8	9	10
목 표	일반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상위 입상 목표 ○88 올림피케임을 대비한 우수선수 양성 ○유능한 체육지도자 배출을 위한 이론 및 실기를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훈련 ○자발적인 훈련 자세 함양 											
	훈련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강화: 체력측정을 통해서 평가 및 개인의 장단점 보완 ○경기력향상: 전문기술확립(VTR활용) 및 전문기술개발, 개인특기 기술개발 자체평가분석 ○정신력강화: 집중력, 자신감, 단력, 사명감, 협동심, 복종심함양 											
구분		체력			전술 전략		기본 기술			전문 기술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의 강도를 높이며 질적인 훈련을 하면서 기술로 연결시킨다. ○민첩성, 지구력, 유연성 등 종합체력 육성 ○전문적인 체력육성과 반복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VTR을 이용한 개인별 동작을 분석하여 교정하며 타학교선수와 교류훈련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인카드를 만들어 향상도를 체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발차기 주먹공격 및 받아차기, 기술을 정확하게(자세, 중심 이동거리, 포인트)교정해서 전문기술 훈련에 연결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에 맞는 특기 기술개발 및 반복연습 ○다양한 공격과 방어기술(받아차기)을 구사할 수 있는 반복훈련 ○개인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인훈련처방 			
훈련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된 훈련 분위기 조성으로 경기력 향상 ○개인별 체력, 기술, 정신력, 문제점을 처방 시정해 줌 ○야외훈련을 통한 분위기 조성 ○VTR을 이용해서 타선수의 장단점을 파악 시합에 대비함 ○기초체력 전문체력 육성 ○체중감량선수는 일일 기록 체크함 ○특수훈련을 통해서 정신력 배양 											
훈련비중	체력(%)	체력 단련기			준 비 기		시 합 기			단련기(전문기술 및 체력)			
	기술(%)	80 %			30 %		20 %			50 % 40 %			
측정평가	체력	3개월 1회 체력측정(3, 5, 7, 9, 11월)											
	기술	2주 1회 평가전 및 2개월 1회 종합 평가전(개인별 기록카드체크)											
기타		매일 체중 체크											

4. 태권도학과를 이끄는 교수진

태권도를 지도하는 교수들은 태권도 이론과 실기

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무도 정신을 함양해 학생들로부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본 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로 어려운 자리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는 신체를 주로 사용하는 기법지도(技
法指導)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트레이너에 의해 현
장감있는 각종 트레이닝 방법론의 연구 및 현장적용

이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문연구 및 태권도 기
술연구라는 두가지 측면을 상호보완, 발전시켜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 태권도학과 교수구성

학	교	직	책	성	명	학	력	및	경	력
경 회 대 태 권 도 학 과	학 과 장	조	교	김경지	경희대 체육학과·대학원 졸업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선수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김기복	경희대 체육학과·교육대학원 졸업	김홍식	경희대 태권도학과 졸업	“
				최영렬	“					
한 국 체 대 태 권 도 부	지 도 교 수	조	교	이승국	경희대대학원 체육학과 졸업·대한태권도협회 기획분 과위원장·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한국대표팀수석코치	하용성	한국체대 졸업·전 국가대표			
				이규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 아세아 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 한 유 도 학 교 태 권 도 학 과	학 과 장	전 임 강 사	김광성	김광성	동국대 체육학과 졸업 미국 놀워치 대학원 졸업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장	진중의	대한유도학교 졸업 건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졸업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한국대표팀코치	강성철	대한유도학교 졸업 연세대 교육대학원 체육과 졸업	대한유도학교·연세대 교육대학원 체육과 졸업
				김필순	대한유도학교·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과 재학중					
				홍중만	대한유도학교 졸업					
				고영철	대한유도학교·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과 졸업					
				박필순	대한유도학교·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과 재학중					

경 회대의 김경지교수는 이전의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학문적) 뒷받침없이 전통적
인 실기전승교육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론적 학
문체계를 형성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역설하며 특히 태권도 교육이 철학, 역사학, 생리
학, 생화학, 기능학, 사회학 등 여러가지 관점에
서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태권도 전공자의 30%가
교직을 이수해 학교체육분야에 종사할 뿐더러 사
회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
는 현실에서 정규대학에서 체육 전반에 관한 학문
과 태권도의 학문연구 바탕 위에서 태권도를 과학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양성 및 태권도 연
구자의 양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

재 절대 부족수를 느끼는 태권도 전공자들의 앞날
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각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김경지교수



* 저서 :

• 태권도 이론과 실제

- 체육학 실험 • 연습개설
- 태권도지도법
- 인체운동의 기초역학

***논문:**

- 태권도선수의 기초체력에 관한 인자분석
- 태권도 선수의 신체기능에 관한조사연구
- 체육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력에 관한 연구
- 태권도 경기 기술의 조사연구
- 체육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체육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력에 관한연구
- 태권도경기 기술의 조사연구
- 체육의 개념에 관한 연구

최영렬교수



***논문:**

- 태권도 앞돌려차기의 근전도적 연구
- 태권도 경기시 효율적인 겨루기 자세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선수들의 체격과 운동기능간의 상관성 연구
- 태권도 경기시 뒤후리기의 효율적 자세에 관한 연구
- 학교 Sports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의 태권도부원들.

한국체육대학

이승국교수



***논문:**

- 태권도 경기의 돌려차기 기술분석과 득점부위에 관한 조사 연구
- 태권도 경기기술의 기술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태권도 경기의 스템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 태권도 경기의 기술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 Research of Technique from in Tae Kwon Do Game.
- 태권도 경기의 기본 발차기에 관한 역학적 분석.

한 체대의 태권도부 지도교수인 이승국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1+ α 」를 강조한다며 똑같은 상황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지만 α 는 바로 자신의 노력여하라며 경기력향상을 위한 자신의 피땀어린 노력,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론의 탐구와 실기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

대 한 유도학교의 이규석 교수는 첫째, 극기 둘째, 노력하는 자세. 셋째, 인내심. 넷째, 겸손. 다섯째, 신의. 여섯째, 예의범절을 기본으로 한 태권도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각 학교의 태권도 지도자들의 교육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무도정신을 바탕으로한 이론과 실기가 겸비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유도학교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태권도 실기시간에 수련을 쌓고 있다.

대한유도학교

이규석교수



- 동남아 태권도에 관한 고찰.
- 태권도 선수의 체중감량에 관한 연구.
- 동양무술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에 관한 고찰.
- 태권도 선수의 부상에 관한 고찰.

김광성교수



- 피위와 체력요인의 상관관계 연구.
- 태권도 동작과 호흡관계의 연구.
- 태권도 선수와 유도선수의 유연성 및 민첩성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지도이론.
- 태권도 교본(세계로 뻗어가는 국기태권도).
- 세계연맹의 발전과 김운용 총재의 연력.

진중의교수



- 격기종목 선수의 순발력과 민첩성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비교 연구.
- 태권도 기본발차기의 역학적 분석.

김성철교수



- 태권도 선수의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기술동작과 순발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태권도 발차기 기술에 따른 근전도적 고찰.
- 태권도 발차기시 근전도의 분석.

윤상화교조

- 태권도 발차기에 따른 심박수와 심전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태권도 기술동작별 심박수와 심전도 고찰.
- 태권도 발차기 기술에 따른 근전도적 고찰.

고영철교조

-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비교 연구.

태권도학과의 교수진들은 그동안 태권도에 관한 학문적 정립을 위해 연구논문들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태권도에 관한 신체활동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이를 경기력 향상으로 접목시키는 시도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권도의 과학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있는 각종 트레이닝 방법론의 연구 및 각종 시설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빈번한 스포츠 교류 및 스포츠과학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서는 경기력과 스포츠 심리학, 역학관계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선수관리를 위한 의학계와의 협조관계로 의학부분에 따른 연구논문도 시도되어야 할 것 등으로 계속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 체대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소에는 현대적 실험기재를 보유하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하여 중목별 연구분야에 대하여 전문연구원들과 태권도 관계자가 연구팀을 이루어 효과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학문적인 연구기관의 실용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5. 태권도학과 신입생 선발

태권도학과의 신입생 선발은 대학입학 학력고사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비롯하여 태권도 실기로 전형하고 있다.

경 회대는 학력고사성적 30%, 내신성적 30% 실기고사성적 40%에 의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실기고사는 기본기능, 운동기능(체조기능, 육상기능, 구기기능), 개인특기(태권도)를 실시한다. 태권도학과는 이러한 일반전형 외에도 정원의 30%이내에서 우수선수(특기자)를 선발할 수 있는데 특기자는 주로 경기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 도학교는 태권도학과 130명, 격기학과에 태권도전공 65명 등 가장 많은 수를 선발하고 있는데 학력고사 30%, 내신성적 40%, 실기고사 20%, 체력검사 10%에 의해 전형하고 있다.

실기고사는 태권도의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을 실시하고 체력검사는 체전굴, 100미터 달리기, 배근력, 제자리 높이뛰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은

1. 운동기능 및 소질검사,
2. 신체검사,
3. 경기실적,
4. 대학입학 학력고사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
5. 면접에 의하여 각체급에 한명씩 8명과 취약체급에 1, 2명을 선발, 매년 10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은 다른 학교에 비해 경기실적을 신입생선발전형에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태권도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대부분이 우수선수(특기자)로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교 교과과정을 소홀히 하기 쉬운 운동을 하는 학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력이 낮고 상식마저 부족한 학생이 있다는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체육특기자는 대학 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운동에 타고난 재질을 가진 우수한 재목을 뽑아 재질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의해 대학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제적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운동에만 열중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에 흥미를 잃고 학력이 저하됨으로써 체육특기자라고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체육대학의 교기와 캠퍼스전경.

대학의 체육은 운동을 통한 교육의 일환인 것처럼 고교 태권도 선수들도 학생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학습에도 노력을 경주해 장차 태권도지도자가 되었을 때 운동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선수가 되려면 두뇌가 좋아야 한다고 볼 때 특기자들의 학력저하는 심각한문제라는 것을 학생도 지도자도 인식해야 한다.

6. 졸업생들의 진로방향

태권도를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매년 백여 명이 이른다.

'87년 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경희대 태권도학과와 경우 졸업생 24명 중 21명이 대학원진학, 군입대, 학교 코치, 태권도장 사범, 회사원 등으로 취업하여 87.5%('87년 8월 현재)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유도학교의 경우 1977년도에 격기학과에서 태권도전공 신입생을 선발한 이래 1981년도에 6명, 1982년도에 8명, 1983년도에 20명, 1984년도에 32명, 1985년도에 71명이 졸업했고 1986년도에 제1회 태권도학과 졸업생 24명, 격기학과(태권도)

62명, 1987년도에 태권도학과 20명, 격기학과 74명 등 총317명이 졸업했다.

이들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진학이나 군입대 외에 학교코치, 체육관련분야 종사, 경찰, 해외사범(도표참조)등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갔다.

■ 유도대졸업생 해외사범과견 현황

순번	학번	성명	국명
1	78	강종길	서독
2	"	정기수	미국
3	"	황선두	"
4	"	전양주	필리핀
5	"	김형주	"
6	79	서종찬	스페인
7	80	한규상	필리핀
8	81	진재일	스페인
9	82	김기환	요르단

한국체육대학은 87년도에 제7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1회부터 7회 졸업생까지의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참조)

태권도를 전공한 졸업생들이 대부분 학교교사이거나 코치 또는 태권도장 사범이나 해외과견 사범, 대학원 진학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권도학과와 설립배경이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자 양성은 태권도전공자들이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 학교에서 체육교사 또는 실기교사(코치)로서 유능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일선 책임자가 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문적인 성숙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실기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경희대와 대한유도학교의 경우 정원의 30%가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게 되고 한국체대의 경우 정원의 50%가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한체대는 또한 국가대표급 선수에게 자동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년 정원의

■ 한국체육대학 태권도부 졸업생 취업현황

회수	졸업	성명	직업
1회	1981.2	박오성 김명선 차상혁 유화영 이평우	미국어민 미국유학(체육행정학전공) 프랑스 태권도사범 상업 고려포인트 근무
2회	1982.2	안용규 장승화 박남진 박정덕	인덕공고 교사 영화배우 개인사업(체육용품) (주)화승대리
3회	1983.2	박천재 이상현 윤준철 최관주 하용성	미국유학(체육학전공) 사우디석유대학 태권도사범 부평기술고등학교 교사 오문중학교 코치 한국체대 조교
4회	1984.2	김동환 박재욱 김맹근 정국현 윤문희 양기모 장기호 김지천 이재봉	학사장교 군복무 " " 현국가대표선수(서울지하철공사) 회사원 인천체고 교사 스페인 태권도사범 단국중학교 교사 송곡고등학교 교사
5회	1985.2	문원재 박기성 이경배 김윤환 이중호 최광근	학사장교 군복무 " 군복무 인하대학원 재학 동국대학원 재학 송곡고 코치
6회	1986.2	장질환 이효주 박영진 이경식 이강식 이정열 손영규 노병욱 문중국 정우용 김형수 현동수 손재열	군복무(상무) 군복무 " " 군복무(상무) 군복무 군복무(학사장교) 군복무(학사장교) 포항상공회의소 주한미대사관 태권도지도 송곡고 코치 천남체고 코치 중앙대학원 재학
7회	1987.2	권기문 정승화 김윤태 박상식 이용희 나민수 권용주 김성걸 임중환 이준환	한국체대대학원 재학 현국가대표(서울지하철공사) 군복무(상무) 개인사업 군복무 동아대학원 재학 (주)화승근무 J문화센터근무(체육주임) 군복무 경상남도 코치

85%이상이 교사자격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계속 태권도 전공자가 매년 배출된다고 볼 때 진로방향에 좀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7. 대학태권도학과의 내일을 위하여

태권도의 지도자나 교육자들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학문적 연구와 적용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소양과 자질을 높이는 일은 태권도의 현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문제, 선수들의 사회적인 보장문제, 연구과제에 관한 문제, 연구결과에 관한 현장적용문제,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보조금 지급문제, 각국과의 학문적인 스포츠 교류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시정 보완되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본다.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과 태권도의 과학화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와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그의 보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연구소가 활성화되어 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발간, 체육정보수집, 국내외 학술교류 등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태권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분야, 즉 과학(생리학, 해부학, 생체역학), 인문학(역사, 철학), 사회과학(심리학, 사회학, 인류학)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학적, 철학적 원리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 확대되어야겠다.

훌륭한 선수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더욱 중요하다. 훌륭한 지도자의 양성을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 태권도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이나 제도적 집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기관의 실용화문제가 당면과제라고 본다. 대학 졸업자들이 교직과정을 이수해 체육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번천하는 학문에 대처해서 이론과 실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절정신 바탕위에 다져가는 태권도 정신

제 8회 체육부장관기 타기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최진익 / 국교연맹이사

1987년 8월 19일(수)과 20일(목) 양일간 국기원에서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이 주최하고 제 8회 체육부장관기 타기 전국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태풍을 비롯한 여러차례 풍수해의 아픔속으로 지난번 제 8회 태권왕겨루기 전국대회때보다는 적은 학교와 적은 인원수가 참가하였지만 서울에서 18개교, 지방에서 21개교가 참가하고 참가선수 또한 겨루기 266명, 품새 148명 총계 414명이 참가하여 전국대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대회였다.

19일 10시에 본대회를 알리는 개회식이 있었으며,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 문산국민학교의 우승기 반환과 이어서 본대회 대회장이신 서영준 회장의 대회사로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태권도 모범생이 한 자리에 모인것 자체가 태권도 발전의 계기가 되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며 무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체육관마다에서 땀흘려 수련해 온 것이 바로 내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격려사로는 김운용 대한 태권도협회장을

대신하여 본협회 엄은규 부회장에서 "본 대회를 참가한 선수 모두는 태권도 한국의 뿌리에서 꽃봉오리로 이나라 장래를 책임질 새싹이요 기동으로서 이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계셨다.

격려사에 이어 경기문산국교 박준철군의 선수대표선서와 서울시 태권도협회 시범단인 최재무 사범이 이끄는 신도림국교 어린이 50명의 태권도 시범으로 관람하는 모든이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3-5방축, 360°돌아차기, 연속 두발당상앞차기와 4m 정도를 뛰어 옆차기로 격파하는 등 태권도의 진수를 보였다.

첫날 대회는 겨루기 예선 178게임을 끝냈는데 모든 선수가 예선부터 필승의 신념으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 받을만 하였다.

둘째날을 9시부터 10시까지 품새대회를 학년별로 실시하였는데 본 품새 대회는 겨루기 대회가 5, 6학년만의 대회인 반면 1학년부부터 6학년까지의 기량을 한눈에 보여줄수 있어 1,2학년의 선수가 5-6학년의 수련을 쌓는다면 앞으로의 태권도의 밝은 전

망을 기대해 볼수 있었다.

폼새 대회에 이어 10시부터 겨루기 경기가 다시 이어졌다. 응원석에서 "푸레이 푸레이 000" "잘한다 000"의 응원의 함성은 그치지 않았다. 3회전이 끝나는 호각소리와 함께 관중석은 조용하다가 주심의 "칭송"의 판정과 함께 "야"하는 외침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소리이겠는가? 이러한 경기장의 열기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려서부터 단결화합하는 것을 몸에 익힐진대 우리의 앞날은 밝기만하다.

그뿐이겠는가? 아름답고 보기좋은 장면은 끊이지 않고 연출되었다. 코치에게 공손히 목례를 하고 경기장에 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태권도경기에서만 볼수 있었다.

경기장에 임하여서도 심판 체점표를 배심원석에 내면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선수간의 인사와, 1회전이 끝나도 자기 코너로가서 코치에게 인사하는 것이 3회전까지 되풀이 되고 3회전이 끝나면 불꽃튀는 접전은 아랑곳 없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부둥켜 앉기도 한다음 의연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승패를 기다리는 순간이며, 승패가 가려진 다음에도 악수하고 상대편 코치에게 달려가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들이

야 말로 태권도의 세계가 아니고서야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

그런가하면 경기에 임하기 전부터 선수들을 어루만져주며 격려하는 코치들은 어떠한가?

1회전 경기를 끝내고 나온 선수를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 선수를 앉히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인자한 모습이야말로 일선교사로서 부끄러움이 머리를 스치곤 하였다.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심판의 임무교대시 배심석을 향해 인사를 하고 서로 마주 보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주심이 매회마다 배심석에 가서 인사하고 물러나며 또 인사하는 아름다운 미덕은 태권도를 지켜보는 선수들이나 관중들은 한번쯤은 마음속에 새겨 보았으리라 믿는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시켜서 하겠는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예절정신을 바탕으로한 태권도 정신에 기인되었으리라 본다. 가히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태권도인 모두는 스포츠는 물론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있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더욱 더 지키고 빛내 화려한 꽃을 피워 이나라 이사회회의 선구자로 소명을 다해야겠다.





■ 입상자 명단

★ 겨루기 부문 단체 성적

- 1 위 : 청주 주성국민학교
 - 2 위 : 서울 한강국민학교
 - 3 위 : 서울 광희국민학교
- 감투상 : 서울 삼문국민학교
 장려상 : 청주 북대국민학교
 제주 서귀중앙국민학교
 충북 증평국민학교
 응원상 : 서울 보광국민학교

★ 품새부문 단체성적

- 1 위 : 서울 미동국민학교
 - 2 위 : 서울 불광국민학교
 - 3 위 : 서울 풍납국민학교
- 장려상 : 서울 신석국민학교

★ 겨루기 부문 개인상

- 최우수상 : 최만용 (서울 쌍문국민학교)
 ※제 8회 전국대회 품새부문 6학년부 금상수상.
- 인기상 : 이진우 (청주 주성국민학교)
 ※해비급선수로 우승교팀의 간판스타로 신장이 가장 컸음.
- 미기상 : 이상현 (서울 풍납국민학교)
 ※제 8회 태권왕 겨루기 전국대회에서 페더급 우승자였음. 본대회 품새부문 6학년부 동상
- 지도자상 : 겨루기 부문 단체성적 1, 2, 3위팀의 코치.

★ 겨루기 부문 체급별 입상자 명단

등위	1위		2위		3위	
	성명	학교명	성명	학교명	성명	학교명
핀	급 이상우	서울양문	이영환	서울광희	이상규	청주북대충북동명
플라이	급 최만용	서울양문	박규진	서울광희	박진성 남기영	제주서귀중앙청주주성
밴텀	급 이광원	제주서귀중앙	최정훈	청주주성	강봉서 이상무	서울개포충북동명
페더	급 장동훈	청주북대	전성필	서울한강	홍의익 김용일	청주주성청주주성
라이트	급 이상현	서울풍납	박정우	서울광희	연삼흠 한훈희	충북증평충북동명
웰터	급 나호동	경기용인	이환규	청주주성	강병구 홍성진	경기용인충북증평
미들	급 김동현	서울보광	이세영	원주우산	장희수 윤근희	서울태릉서울한강
헤비	급 김영호	서울한강	이진우	청주주성	박종환 고병진	서울중동성남하원

★ 품새부문 학년별 입상자 명단

학년	심별	금 상	은 상	동 상	상 상
1학년	조성범(풍납)	이충구(불광) 오승용(개포)	나현웅(중동), 정대원(불광) 철민수(개포)		
2학년	김종갑(중동)	백현원(은희) 송영훈(태릉)	김영란(한강), 이재균(중동) 신현석(풍납)		
3학년	임현우(미동)	한상목(불광) 김주홍(신석)	이종걸(미동), 박용민(풍납) 김영도(한강)		
4학년	남상범(미동)	이창식(불광) 김희중(미동)	김진(신석), 박형기(개포) 이재복(태릉)		
5학년	조경자(한강)	정홍주(미동) 김도희(불광)	강용운(미동), 박태용(풍납) 이병훈(미동)		
6학년	김정택(신석)	임현철(미동) 김용일(주성)	이상현(풍납), 최정훈(주성) 신용민(미동)		

명랑하고 밝은 경기장 풍토조성해야

제23회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쟁탈전경

제14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개인대회



이충구 / 중고연맹 경기분과 부위원장
성암여상 체육교사

지난 8월 24일 제23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 제14회 한국중·고 태권도연맹회장기 쟁탈대회가 성암여상 밴드부의 광파례에 맞추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참가인원은 남자중등부 364명, 여자중등부 69명, 남자고등부 650명, 여자고등부 161명이 117 개교에서 총 124명이 출전한 이번대회의 개회식에서 황호순 중고연맹회장으로부터 태권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고연맹대회가 수준있고 질서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하였다. 또한 황호순 중고연맹회장은 이자리에서 춘계중·고연맹전대회와 이번 대회 우승자를 선발하여 1월중에 동남아 순회친선경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연맹 황호순 회장은 본연맹 조현길이사 와 최권열이사에게 공로패를, 김운용 태권도협회장 대신 엄운규 부회장님으로부터 본연맹 이택명감사와 이현갑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 본연맹 회장은 감사의 뜻으로 안영택 심판위원장, 조호철 부위원장, 맹만호 배

심, 신범승 배심, 강희택심판, 김명환심판, 신동우심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1244명의 선수가 5일간의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200여명이라는 많은 실격 선수가 나와 체중관리의 문제점 및 참가신청을 하고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첫 날인 24일은 예선대회이니 만큼 K.O승은 없었으나 대회 이틀째인 25일부터 K.O승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먼저 104번 여자고등부 경기에서 청산여상의 이화진 선수가 배성여상의 이은미 선수를 3회 55초만에 K.O시켜 우승했으며 이어서 남자 중등부에서는 풍생중학교의 이병진 선수가 경수중학교의 이종현 선수를 2회 32초만에 오른발 얼굴 강타로 K.O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남고부의 258번 경기에서 풍생고의 유준열 선수가 문산고의 정순학 선수를 1회 35초만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의 패자를 올렸으나 준결승에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어서 26일에는 남고부 라이트급 375번 경기에서 송도상고 김영한 선수가 정명고의 이종구 선

수를 2회 1분 5초만에 일방적인 공격으로 T.K.O를 따냈으며, 중등부 라이트급 140번 경기에서도 동성 중 양 병권 선수가 구월중의 김 경안 선수를 2회 46초만에 돌려차기를 성공, 얼굴 공격으로 K.O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중등부 웰터급의 161번 경기에서도 T.K.O승이 나왔다. 구월중의 최영석 선수가 강남중의 정용욱 선수를 꺾은 것이다.

이처럼 K.O승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 국가대표선수인 강창모의 앞돌려차기 공격후 한발빼고 받아차고 또 한발빼며 뒤홀리기의 순간적인 연속 공격은 가히 일품이었고 중량급인 라이트급의 정충열선수는 지방에서 참가해 경남체고에 금메달을 안겨주어 눈길을 모았는데 정선수는 국고2년째 태권도에 입문, 중2때 선수로 출발 4년의 각고끝에 영광을 차지했다. 뒷차기와 앞발찍어차기가 특기인 그는 대학 졸업후 체육선생으로 태권도 후진육성의 기수가 되겠다고 말하며 강용규감독과 김영국코치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부산에서 대거 25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영남중학교 선수단은 1·2·3학년생들이 고루 참가하였다.

부산에서는 영남중학이 독무대(?)처럼 각종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전국규모인 서울대회에서 입상한다는게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웠다고 심원정선생은 토로한다. 그대도 중량급, 미들급, 라이트헤비급에서 우승을 한 것이 큰 수확이라며 흐뭇해 했다.



부산의 영남중학은 미들급과 라이트헤비급에서 나란히 부산해 중량급에서의 지방세를 과시했다.



지방에서 출전, 유일하게 우승한 라이트급의 정충열 선수(경남체고).

심선생은 성동상전때 대통령기 3년째의 주역으로서 동아대를 거쳐 영남중에서 4년째 태권도 지도교사로 재직 중인데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큰 대회라 그런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주눅이 들어 경기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경험이 축적되면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타진 했다.

또한 한성고의 윤창욱선생은 팀창설 14년만에 준우승이 처음이라며 팀을 맡은지 3년여의 각고 끝에 강호 동성고를 제쳤다고 말하며, 선수들이 얼마큼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번 기회를 집점으로 선수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못 기대가 크다.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이 잇따라 펼쳐졌다.

전국체전 선발전에 선발된 선수중 많은 수의 선수들이 불참한 가운데 펼쳐졌던 이번 대회는 다양한 기술과 기량, 체력을 이용한 선수들의 팽팽한 경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 수련한 막강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선수들도 많았지만, 여자부의 적극 장려가 아쉬웠다.

특히 여자중등부의 저변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감독, 코치 또는 학

부형들의 판정 불만등 심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켜 관중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앞으로는 불만이 생기지 않는 판정으로 심판이 내

리는 판정에 순응하는 깨끗한 자세로 명랑하고 밝은 경기장, 질서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 모두가 노력하여야 했다.*

■ 여 중 부

체	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학년
핀	급	1			
		2			
		3			
		3			
플라이	급	1	김진성	용곡	중 1
		2	조현주	보영	여 중 3
		3			
		3			
밴텀	급	1	조화임	철산	여 중 2
		2	조해림	부천동	중 1
		3	서창숙	철산	여 중 3
		3			
페더	급	1	원선진	수성	여 중 1
		2	김현화	부천동	여 중 2
		3	정현아	창덕	여 중 2
		3	서연화	천안동	여 중 2
라이트	급	1	박금주	철산	여 중 2
		2	방성자	부천동	여 중 3
		3	박은주	역삼	중 3
		3	박혜영	상인천	여 중 3
라이트웰터	급	1	김은숙	천안동	여 중 3
		2	이희정	봉영	여 중 3
		3	김경애	상인천	여 중 3
		3	김수현	부천동	여 중 2
웰터	급	1	박정미	창덕	여 중 2
		2	이영미	천안동	여 중 3
		3	문의희	천안동	여 중 3
		3	공지예	문산	여 중 3
라이트미들	급	1	진혜윤	문산	여 중 3
		2	박선희	송의	여 중 3
		3	조인영	역삼	중 3
		3	김미주	철산	여 중 3
미들	급	1	박경희	문산	여 중 3
		2	김성자	남해고	중 3
		3	강혜연	구의	중 3
		3	유성림	철산	여 중 1
라이트헤비	급	1			
		2			
		3			
		3			
헤비	급	1	안숙	상계	여 중 3
		2	이상희	상인천	여 중 1
		3			
		3			

체	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학년
핀	급	1	문성대	경수	중 2
		2	이승의	청주	남 중 1
		3	박정휘	풍생	중 2
		3	김철구	구월	중 2
플라이	급	1	김건일	동성	중 3
		2	강창석	동성	성 중 1
		3	국정훈	풍생	중 2
		3	박종원	덕원	중 3
밴텀	급	1	김홍식	풍생	중 2
		2	박병준	〃	2
		3	김건홍	동성	중 2
		3	조영국	청주	남 중 3
페더	급	1	정중서	경수	중 2
		2	장대진	풍생	중 3
		3	이충현	성남	서 중 3
		3	맹영식	한영	중 1
라이트	급	1	김현용	배명	중 3
		2	김준구	당곡	중 3
		3	전만중	오류	중 2
		3	서더수	경수	중 3
라이트웰터	급	1	이기영	풍생	중 3
		2	김민수	동성	성 중 2
		3	신성수	한영	중 3
		3	조진근	부천동	중 3
웰터	급	1	정광재	한영	중 3
		2	조훈	동명	중 3
		3	장철웅	전남	체 중 2
		3	방영옥	경수	중 3
라이트미들	급	1	곽삼철	〃	3
		2	김정호	동성	중 2
		3	김용범	한성	중 3
		3	이신철	부천동	중 3
미들	급	1	김송남	영남	중 3
		2	서현규	전남	체 중 3
		3	이창승	배명	중 3
		3	지광현	부천동	중 2
라이트헤비	급	1	한갑석	영남	중 3
		2	송중영	구월	중 3
		3	황희모	풍생	중 2
		3	조용대	풍릉	중 3
헤비	급	1	김형태	전남	체 중 3
		2	원의선	경수	중 3
		3	강병삼	한성	중 3
		3	모진서	풍생	중 3

■ 단 체 상

남중부

- 우 승: 경수중
- 준우승: 풍생중
- 3 위: 동성중
- 감투상: 영남중
- 장려상: 문산중
- 최우수상: 문성대(경수중)

여중부

- 우 승: 철산여중
- 준우승: 부천동여중
- 3 위: 상인천여중
- 감투상: 천안동여중
- 장려상: 창덕여중
- 최우수상: 박금주(철산여중)

남고부

- 우 승: 서울체고
- 준우승: 한성고
- 3 위: 동성고
- 감투상: 성동상고
- 장려상: 남해고현상고
- 최우수상: 안진원(서울체고)

여고부

- 우 승: 청산여상
- 준우승: 인천체고
- 3 위: 문성여상
- 감투상: 배성여상
- 장려상: 성일여상
- 최우수상: 방경애(청산여상)

■ 남 고 부

체	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학년
핀	급	1	안진원	서울체고	2
		2	강봉석	서울체고	1
		3	유준열	풍생고	3
		3	윤철	전북체고	1
플라이	급	1	조기현	성동고	3
		2	이철	풍생고	3
		3	안용식	풍생고	3
		3	성대중	강원사대부고	1
밴텀	급	1	강창모	동성고	3
		2	전대식	리라공고	3
		3	조규식	성동고	3
		3	양정석	서울체고	2
페더	급	1	조준원	동성고	3
		2	박기동	서울체고	3
		3	이현상	한성고	3
		3	이주상	전남체고	3
라이트	급	1	정충열	경남체고	3
		2	오세운	신탄진고	3
		3	한길찬	성동상고	3
		3	강철규	배성고	3
웰터	급	1	이원호	한성고	3
		2	김동복	송실고	3
		3	윤창준	서울체고	3
		3	박병관	신탄진고	3
미들	급	1	이홍수	한성고	3
		2	정주석	남해상고	3
		3	김태영	풍생고	3
		3	김병기	성동상고	3
헤비	급	1	성필용	성동상고	3
		2	박중현	서울체고	3
		3	박희석	성동고	3
		3	이성호	오성고	2

■ 여 고 부

체	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학년
핀	급	1	이화진	청산여상	1
		2	김민정	천안여고	1
		3	양은정	청산여상	1
		3	홍자	문산여상	1
플라이	급	1	신숙	청산여상	3
		2	추난를	청산여상	1
		3	박영신	문성여상	1
		3	김성숙	인천체고	2
밴텀	급	1	신보영	성일여상	3
		2	박동선	인천체고	2
		3	손미경	청산여상	2
		3	강경숙	"	3
페더	급	1	이현화	"	2
		2	정은옥	인천체고	3
		3	노경미	문산종고	2
		3	곽선미	청산여상	2
라아트	급	1	남정동	청산여상	3
		2	홍상희	인천체고	2
		3	윤희정	문성여상	1
		3	박진경	인천체고	3
웰터	급	1	방경애	청산여상	3
		2	박애란	청산여상	3
		3	이정림	"	1
		3	이미라	배성여상	2
미들	급	1	양인덕	문성여상	3
		2	장철	청산여상	1
		3	김기욱	"	1
		3	양효숙	인천체고	1
헤비	급	1	고현정	청산여상	3
		2	김지연	배성여상	3
		3	이은주	"	2
		3	이성미	문성여상	2

태권도 특수 경기종목으로 채택

제4회 All-Africa Games

8.1~12, 케냐 나이로비



최만림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1. 대회개요

제 4회 All-Africa Games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의 3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5개 종목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졌다.

태권도는 All-Africa Games에서 특수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케냐 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아프리카 태권도선수권대회(All-Africa Taekwondo Championships)가 9개국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나이로비의 Desai Memorial Hall에서 8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2. 대회 의의

아프리카 스포츠 최고회의(SCSA)는 1964년 2월 나이지리아에서 창설되어 매 4년마다 대회를 치루기로 했었는데 SCSA 창설후 각국간의 정치적 대립,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불규칙하게 열리어 오다 이번 제 4회 대회는 케냐 Moi 대통령의 결단과 각국간의 대립의 해소를 계기로 거행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케냐는 아프리카에서의 지위향상을 꾀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단결과 화합을 구원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동안 All-Africa Games은 제 1회 대회를 1965년 7월에 콩고의 Brazaville에서 개최하였고, 제 2회대회를 1973년 1월에 나이지리아의 Lagos에서, 제 3회대회를 1978년 7월에 알제리아의 Algir에서 개최된 이래 11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특히 중공이 주경기장(60,000명 수용)을 건설, 제공하였고 이스라엘은 나이로비시 외곽으로부터 주경기장까지 약 6km의 거리에 2차선 왕복 포장도로를 건설, 제공하였으며 일본은 450만실링(16실링=1달러)에 달하는 스포츠 용품을 기증하였다.

3.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공개 행사

8월 1일 오후 1시에 거행된 개최식에 앞서 30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은 식전 공개행사를 질서정연하게 기개를 드높이며 대회의 웅장함을 과시해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마치자 Moi 대통령이 주경기장에 입장해 의장대를 사열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학생 마스게임, 부족 민속무용, 600명 대합창단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3시 30분부터는 선수단 입장식이 거행되어 알제리아 선수단을 선두로 알파벳 순서로 케냐 선수단이



개회식에서 각광을 받은 태권도시범.

끝으로 38개국 선수단이 모두 입장했다.

이어 Lugonzo 대회 조직위원장, 아프리카스포츠 최고회의 Bouchama 의장, Kosgey 문화사회성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Moi 대통령에 의해 개회가 선언되었다.

장엄하게 대회가 개막되었고 성화가 입장한 뒤 선수 선서 등을 마치고 선수단 퇴장 후 15개 종목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4. 태권도경기

제 4회 All-Africa Games 과 병행해 태권도경기는 8월 3일과 4일 Desi Memorial Hall 에서 가나, 베조토, 모리셔스, 마다마스칼, 나이제리아, 솜말리아, 스와질랜드, 우간다, 케냐 등 9개국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관중들의 뜨거운 성원과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케냐 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약 300명 수용 능력의 실내 경기장이 입주의 여지없이 관중들이 물려 혼란을 빚기도 했다.

각국의 태권도 선수단의 코치는 한국인 사범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교대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개최 경험이 없어서 대진표의 수시변경, 경기시간의 지연, 심판 미숙 등 운영에는 짜임새가 없었으나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케냐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개회식 식전행사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태권도선수권대회는 케냐태권도연





대회개최 경험이 없어서 대회운영에는 짜임새가 없었으나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케냐 대통령의 요청으로 개최식 입장식 실천행사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맹이 주최하였으나 실제 대회운영 등에 있어서 현지 에 체재하는 한기육박사(K O C 상임위원)가 전적으로 대회준비를 지도, 감독하였다.

이번 대회를 위해 체육부와 K O C는 태권도복 300벌, 프로텍터 20개를 지원했는데 이는 식전 공개행사인 태권도 시범 뿐만 아니라 태권도경기 대회에도 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컸다.

아프리카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에는 최만립 K.O.C 부위원장을 비롯해 케냐 태권도연맹회장, 한기육박사, 케냐 한국참사관 및 세계복싱연맹회장(Chowdhry) 등이 참석하여 태권도를 참관하였다.

8월 2일에는 한기육박사가 각국 선수단장 환영대회를 베풀었는데 세계복싱연맹의 Chowdhry 회장이 참석해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각국의 태권도 선수단 단장으로는 스와

질랜드왕의 형, 나이지리아 수도경비사령관등 자국의 유력인사들이 참석했다.

5. 아프리카 NOC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다짐

본 대회에 참석한 KOC 일행은 기네 NOC Diallo 위원장, 우간다 NOC Nyangweso 위원장 등을 만나 우의를 다졌고 ANOCA 총회장소인 UNEPC 국제연합환경계획기구)회의장을 방문해 Mattia 회장, Ordea 부회장, 케냐 NOC Kamau 위원장을 비롯한 아프리카 NOC 인사 대부분을 만나, 한국의 정치안정과정과 올림픽 준비상황 설명과 아프리카 NOC와의 협조를 다짐했다.

ANOCA의 Mattia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KOC 부위원장 일행이 원거리 여행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체육행사에 참가한데 대해 감사하면서, 아프리카 NOC의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다짐하였다.

경기장 질서확립

관람 질서

○ 관람 분위기 쇄신

- * 경기장내 유리병(주류, 음료수등)제품 반입 및 판매금지
- * 경기장내 매점 및 이동 판매장의 유리병 제품 판매금지
- * 경기장 관리소, 경찰, 주최자 합동 단속 실시

○ 관중난동 행위억단

- * 경기장과 일정거리 유지 및 예방
- * 경기장과 일정거리 유지 및 보호망등 관중집근 금지
- * 과열 경기가 예상되는 야구, 축구, 농구 럭비, 하키, 복싱, 태권도 등에 경찰 증원배치

○ 단속

- * 경기 종료후 난동자 색출 조사
- * 증거 수집 철저
- * 폭력 행위자 구속 수사원칙
- * 학생단체 위반자는 소속장에 계통보업 중 조치
- * 조치 결과 집중 홍보로 파급효과 함양

선수경기질서

○ 경기중 선수·임원 폭력 행위 근절 예방

- * 사전 계획실시
선수 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자질 향상 제고
경기질서 심판에 대한 승복자세 확립 등
- * 인솔 책임자 지정
인솔 책임자를 학교장 또는 교감으로 상

향 조정 출전전 경기질서 준수에 대한 학교장 훈화

- * 폭력 행위자 처벌 기준 강화
폭력사태 발생시 즉시 상부단체·기관에 대한 보고체제 확립

○ 단속

- * 경기중 폭력사고 발생시 심판단 책임 하 조치
폭력 행위자 퇴장 및 경기 속행여부 사태 악화시 경찰지원 요청등
- * 경기 종료후 폭행자 색출조사 증거 수집철저

○ 처벌

- * 폭력 행위자 구속 수사원칙 기타 위반자 즉심회부
- * 자체 조사철저 및 위행자 인솔책임자 엄중 문책
- * 폭력 행위에 임원이 가세 한 경우가중 처벌
(유형) : 폭력 행위자, 사주자, 조장 및 방관자, 심판 판정에 간여 폭력 유발한 자, 응원단, 관람객의 난동을 유발한 자
- * 경기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 * 폭력 행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온적 처리

심판지질항상

- * 자체교육 강화
- * 부정행위 심판엄중 처벌
·경기 참가팀으로 부터 금품, 향응 기타 이익제 공을 받은자
- 심판 배정상 부정, 경기진행상 부정, 진행상물의 야기자

제4회 All-Africa Game에서 태권도 시범을 성공리에 마치고

제 4 회 올 아프리카 게임에
파견되어 개폐회식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성공리에 마치고
50여일만에 귀국한 박종명 사범의
기행문을 실는다.

세계의 언어와 돈은
「영어와 달러」지만 이제
태권도도 세계인의 언어가
되었다는 얘기를 실감하면서 ...

- 편집자주 -



박종명 /
국기원시범분과 부위원장

동물의 왕국 케냐

문호 헤밍웨이 가 “아프리카의 진주”라 일컬었던
킬리만자로의 나라 탄자니아와 인접한 동물의 왕국
마운틴 케냐, 세계에서 제일 큰 빅토리아 호수를 끼
고 기묘하게도 20 세기의 문명과 태고의 원시적 전통
이 이루어져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과 접하며 태평
스레 세월을 흘러보낸다.

여유가 지나쳐 게으르다 할 정도의 국민성 케냐에
서 200 여 부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0 여 부족을
짚을 수 있다.

인구는 약 1,800 만 우리 남한 넓이의 10 배정도
인구조사는 못한다고 한다. 신생아때 많이 잃고 단
명하기 때문에 결혼 관념없이 애를 무한정 낳지만 좀
처럼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다.

영국에 통치되었을 때 영국인들이 인도사람들을
중간계급층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독립하고 나서 인
도인들이 모든 경제상권을 쥐고 있어 그들은 인도인
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 거지들
이 많다.

그러나 케냐 사람들은 다름을 벌인다가나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순박한 편이다. 요사이에는 난민들이
입국하여 조금은 물이 흐려졌다.

이들의 주식은 양·염소고기를 먹는데 대부분 육
수수에 야채를 섞어만든 “우라기”라는 것을 주물러
서 손으로 먹는다.

지금도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부족들이 원
시그대로 생활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주권을 찾으려는 정경이 엿보이는 기미가
있다.



모금하는데 이골이 난 국민

이들 국민은 모금하는데는 이골이 나 있다. 아무 스타트업이 하란배(모금)를 하고 아무조건없이 의례히 하는 것이라 할 정도다.

거기에 묻혀사는 우리 한국인들도 어려움에 처한 교민이나 행사 모금에 전혀 낯설음없이 도와주고 협조해 준다.

매일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공개모금 바구니에 모금한다. 이 돈은 경제정책에 사용하고 유용하게 대통령께서 쓴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게 거의 매일 T.V에 방영된다.

처음 며칠간은 돈 걷는 대통령이라고 생각 할 정도였다. 이들은 항상 산디사나, 무주리무주리, 잠보, 하바리, 쿠아헤이리(만날때 헤어질때 인사말) 익스쿠스미, 소리가 입에 달려있고 수다스런 제스처로 이야기하지만 익숙해지니 그저 자연스럽기만 하였다.

태권도시범 지도자로 선임되고 난뒤...

6월 말경 제 4회 아프리카 게임에(8월 1일-8월 12일) 개막식 태권도 시범에 파견할 지도자로 본인이 결정되어 내심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국고를 소비하면서 아프리카의 태권도 성숙을 향한 또 외교사절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고 자문하며 설레이기도 했다.

허지만 하루이를 연필을 잡고 할수 있는 능력평가를 집행하기 시작하여 몇일이 지나니 자신감이 생기고 25년간 수련해온 나의 모든것을 집대성하여 꼭 성공 시키리라고 재삼 다짐하며 자신감을 갖고 홀홀 단신 7월 3일 출국하게 되었다.

7월 3일 단신출국

비행기편이 연결이 잘되지 않아 제다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일이 연출됐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자니 이리저리 다니며 뻗지 몇 개를 선물했다.

사우디 공항 관리들이 몰려와서 한수 배우자고 자원 간청한다. 지루한 김에 조금은 선전도 할겸 30분 정도 지도해 주었더니 아침식사와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갖다주고 애정이 융숭했다.

덕분에 케냐 나이로비에 들어 가는 것까지 별 불편없이 케냐 항공을 탑승할 수가 있었다. 새벽 2시에 도착해보니 대사관 장영사님이 공항내에 들어오셔서 반가이 맞아주며 입국검열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었다.

밤을 나오니 현지 안내자 사범님께서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려주니 마음 든든하여 가슴을 펴고 첫발을 디딜 수 있어 조금도 위축감을 느끼지 못해 잘해낼 수 있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었다.

자는데 마는데 곧바로 최동진 대사님께 입국신고하고 교민회장 한기욱 박사님을 찾아뵈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짧은 시간에 해내야 한다는 조바심에 곧바로 인원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 차출하는데 일주일을 소비하고 나니 불과 2주일 하고 3일 남았다.

시범인원 200명을 뽑는데 많은 우여곡절

그전에 몇명씩 차출이 되는데로 시범 연무동작을 가르쳤지만 시범인원 200명을 뽑는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제 인원은 230명 정도 모였는데 200명을 차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유고시 보조인원으로 활용한다 하니 보조인원으로 남는 인원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

꼭 시범인원에 끼고 싶다고 여러사람이 간청을 하고 알량한 인맥을 통해 사정조로 나온다. 하지만 백피가 100명이 넘어서니 시범을 하는데 너무나도 기본기가 돼 있지 못해 애석하게도 탈락을 시킬수 밖에 없었다.

우리태권도를 사랑하고 참여의식이 뚜렷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꼭 성사 시킬수 있다고 끝나면 칭찬들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서두르면 복 달아난다”

이름날 놀랄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복지급을 받을 욕심이 더 많은듯 하였다.

실내시범이 아니고 운동장 마스게임시범이라 자기 위치를 선정해서 매일 반복훈련을 해야되는데 매일 15명 정도가 훈련에 불참 하였다.

그래도 책임자는 아무런 조급함이나 다급함은 찾아볼수가 없이 만사형통 느긋한 자세로 시종일관이었다.

“서두르면 복 달아난다”는 케냐 속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천천히 처어인 처어어니...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요원이 사범요원이라는 자부심이나 국가를 위한 책임감 의무감이 결여되어



아프리카의 11개국이 참가한 태권도경기 입장.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시범요원이 육군, 해군, 공군, 경찰과 약간의 일반인인데 하루하루 전원이 나오는 날이 없으니 조급함은 나쁜인것 같았다.

책임자에게 인원이 매일 다 나와서 연습하지 않으면 시범이 잘모될것 같다고 추궁하면 항상 「노푸라범」으로 일관하였다.

안재기 사범은 「음식시켜놓고 재촉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사람뿐」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식으로 하면 안되는구나 싶어 그들식으로 맞추어 나가다가며 진행을 해보니 조급한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천천히 해도 일은 된다”

“천천히해도 일은 된다”는 그들의 두번째 속담과 약속을 한두번 어긴다거나 약속 시간을 1시간 늦은 것은 거리낌 없는 그들의 습성인 것을 뒤늦게나마 알고 금방 한일도 6초 넘으면 잊어버리니까 혼내줄려면 6초안에 혼내줘야지 6초를 넘어서 이야기하면 「아이논노우」란다.

그리고 두가지 일은 한꺼번에 시켜서는 안되는 그들이다. 몇일지나서 군 체육부대장이 시범을 주관하젠다.

박 참 사님과 한박 사님과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몇일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부대장하는 말씀이 잘못하면 취소한다고 했대서 우리를 격려하려 오신 박 사님과 참 사님이 붉으라푸르라 하시며 모든 것을 지원해 주



태권도 경기를 참관하는 각국 인사들.

는데 고마운줄도 모르고 그런소리 한다고 대단히 진노했다.

다행이 일차 연습시범에 부대장이 대단히 만족해 하더니 몇일뒤 군 참모총장을 대동하고 2차연습시범을 참관한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특수한 재질 때문에 그간 어린애 다루듯 차에 싣고 말리느라 애지중지 한 격파물을 무참하게 격파하고 말았다.

참모총장 역시 원더풀을 연발했다. 나는 사기충천했고 시범요원들도 무척이나 좋아했다.

8월 1일 개막식에 태권도 시범

드디어 8월 1일 개막식날 전 아프리카인과 교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우리의 태권도 시범을 보게되었다.

개막식때 I.O.C 위원장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사님께서서는 로얄박스에서 각국 대사님들과 한껏 호뜻한 자세로 태권도 소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찬사를 받으면서 긴장이 풀리고 여독이 접쳐서 인지 한꺼번에 온몸에 진풍이 왔다.

참을수 없는 고통속에서도 끝났다고 해서 실수가 없었다.

인산인해를 이룬 태권도 경기장

시범을 주목적으로 과전했는데 현지에 가서보니 아프리카 11개국이 참가하여 차기 정식 태권도 채택을 위하여 아프리카에 주둔한 한국 사범님들의 선수들과 각국 협회장을 대동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참피온쉽을 열었다.

8월 1일 2일 이틀동안 심판강습을 마치고 3일 예선과 4일 결승전을 치렀다.

정작 다른 종목 경기장에 구경갔어야 할 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소리없이 치러진 시합이었지만 가나의 체육부장관 스와질랜드... 위원과 왕자 그리고 협회장 나이제리



협회장 한기욱 박사가 시상을 하고 있다.

아의 협회장과 수도경비사령관 케냐의 회장은 물론 케냐의 올림픽 조직위원장 국제복싱연맹회장 등 수없이 많은 귀빈들이 종일토록 참관하고 열성적으로 자국을 응원했으며 관중들이 초만원을 이뤄 사고가 날 지경이었다.

진행, 심판, 배심, 시상까지 1인 4역을 했지만 우리처럼 썩 매끄럽지는 못했어도 한국 선수가 없이 아프리카인들끼리의 시합이라 아기자기한 맛도 있었다.

한기욱 박사의 지도아래 윤목사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일을 접어두고 시범을 저하고 수고하신 안재기 사범님의 공이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주도 면밀하게 각국 대표자 회의를 거쳐 환영의 밤과 임원 선수의 만찬경기를 마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루저녁을 태권도를 위해 축배까지 한 박사님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품이랄 할수 있었다.

종합 1위 레스토, 2위 나이제리아, 3위 가나, 스와질랜드.

대회가 모두 끝나고 각자 귀국할때는 대회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첩 한권씩을 돌려 보내는 데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었다.

아프리카 오지에 이러한 분이 태권도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는 데에 대해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했다.



또 특히 활만한 점은 사우스 아프리카 연맹을 조직했다.

아프리카 태권도 성숙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애 걸 들고 태권도인으로서 한박사 노력에 감개무량했다.

그분의 추진력에는 막힘이 없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티격태격 한국인들끼리의 다툼은 10년이 지난 케냐 태권도 변모에 아무런 변화를 갖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국민성인가 아니면 거기에 주둔한 체육인들의 자질이 모자라서인가? 시범도 시험도 절찬리에 끝내고 귀국준비중에 연락이 왔다.

폐회식에서도 시범연출

폐막식때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범을 하라고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왔다.

그동안 한국 올림픽 조직위 체육회 인사들께서 원정 오셔서 만족해 하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아 더더욱 힘이 솟는 듯 하였다.

홀어진 시범요원 다시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모자란 인원을 급조해서 무사히 폐막식 시범도 연출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조직적인 시범이 무척이나 잘했다고 평가해 그나마 아프리카 전역에 자

기나라의 태권도를 통해 알리고도 싶고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충정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하여 개막식, 폐막식 시범때문에 한국을 알린 태권도는 달리 인식을 하게 됐고 일본의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케냐에 가라데가 먼저 상륙했는데 왜 태권도 시범을 하느냐고 항의가 대단했다고 한다.

사범들의 자존심을 꺾고 본국에서 요원을 불러다가 시범을 한 저의를 대단한 용단 없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윤목 사범은 사범생활은 돈 벌려는 게 아니다.

단지 운동이 좋아 국기선양하러 여기에 와서 코리알을 심는 것 뿐이다. 그동안 겪어본바로 그만큼 맞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

여기에 꼭 소개할 태권도 부부가 있다.

안재기 사범과 최윤숙 사범 부부 그들은 오늘도 똑같이 도복을 입고 잡음을 휘말리지 않고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태권도인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묵묵히 진실하게 생활모습을 보고 한껏 밀어주고 정을 주고 싶은 분들이었다.

태권도는 세계의 언어

윤목사범님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닭아 논 초석을 이어받아 케냐의 태권도가 쇠신되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세계의 언어와 화폐가 영어와 달러지만 이제 태권도는 세계의 언어다. (한기욱 박사의 말)

태권기술 아닌 태권도를(이은우 사범말) 심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대사관에서의 말처럼 밀빠진 독에 물붓기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지도자들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케냐 태권도 발전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 태권도인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고 본국에서도 정보를 입수해 지도편달을 끊임 없어야 될줄로 안다. (교민회장 한기욱 박사가님에 경영하시는 사파리파크 호텔 임직원)

제가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손 흔들며 귀국비행기를 탈때까지 희생정신을 불태워 저와 함께 수고하신 안재기 사범, 진참사관과 임직원, 교민여러분, 고마운 이분들께 진면을 통해 우리 조국 태권도인들 모두가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일본원정 태권도 시범 경기를 마치고

일본 가라데 협회 초청 및
일본 도시건설 주식회사
(사장 : 스기야마)의 후원으로
태권도 시범단 8명이 9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도꾸꾸앙 체육관에서 거행된
가라데 시합장에서 태권도 겨루기
시범을 보였다. 태권도 시범단은
깨끗한 경기매너와 엄격한 경기규칙,
정확한 심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경기내용으로 가라데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태권도의 우위를
ამ껏 발휘하여 일본 가라데협회 임원
및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는 가운데 태권도와 가라데의
차이를 뚜렷이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김광성
대한유도학교 전임강사

태권도 시범단

단 장 : 엄운규 (대한 태권도 협회 부회장)
감 독 : 김광성
코 치 : 이승국
국제심판 : 김기용
선 수 : 이종선 전용환 지용석 박봉권

국기 태권도의 사절단으로 출국

1987년 9월 4일 오전 11:00 대한항공 KE 704
편 김포공항 출국. 구름속을 뚫고 올라가는 비행기
는 쾌속감과 유달리 상쾌한 감정을 느낄수 있으며 창
공을 나르는 오묘한 청봉들의 기습을 내려다보는 마
음은 신선이나 된듯한 기분과 넓고 높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 태권도 홍보요원의
책임 완수라는 마음들이었다.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마음은 우리나라
의 국기 태권도의 사절단으로서 굳은 마음을 다져 주
게 하였다.

한국시간 3시 15분 경에 (일본시간 2시 15분)
NARIDA 공항에 도착하자 영접나온 오이마 부장의
안내로 호텔에 도착했다. 이 호텔은 동경 (東京都千
代田區紀尾井町) 102에 있는 New Otani Hotel 이
었다.

이 호텔은 2개의 빌딩으로 45층과 17층 옥상에
1200석을 갖춘 휴식처 전망대가 천천히 돌고 있는
회전전망대인데 한바퀴도는데는 30분의 시간이 걸
린다고 한다. 이곳은 관광지의 명소로도 되어 있다

고 한다. 동경을 내려다보는 전망대 이기도 하지만 Blue Sky 라운지라고 하며 뒤쪽은 상지대학 푸른잔디 운동장이 있고 옆은 清水谷이라는 공원과 조그마한 강을 끼고 있으며 웅장하며 섬모양과 비슷하고 푸른동산의 자연미를 느끼는 천황이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위치였다. 바로 근접한 곳에 代田町驛이 있고 차로 5분정도의 근접거리에는 신주구(新宿區) 역이 있는 곳이다.

정원과 수영장, 테니스장도 갖춰져 있으며 많은 Shopping Center 등 모든 것이 너무 비싼 고급 호텔이었다. 다음날 임원과 선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일 시범에 대비하여 충분한 연습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日本都市建設社長の 저녁파티에 초청을 받고 한국식당 草家라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곳 역시 엄청난 금액의 식사였다.

연습을 충분히 식사도 충분히 잘하여 내일의 시범 경기에는 자신감을 갖고 휴식과 잠자리에 들었다.

태권도 시범을 통해 가라데와 태권도의 차이 증명

9월 6일 12시에 동경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고라쿠엔 체육관에 도착 2시부터 시범에 들어갔다. 가라데 경기는 링안에서 실시하였으며 태권도도 링안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연출하였다.

가라데의 중주국인 일본인들은 태권도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태권도 시범경기가 시작되었다. 깨끗한 경기매너와 엄격한 경기규칙, 심판수신호, 묘기백출의 경기는 관중들을 놀라게 하여 주었다.

이곳 가라데 협회 임원과 관중들은 가라데와 비교가 안되는 태권도경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본의 가라데인들이 생각하기엔 가라데와 똑같은 태권도가 서울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데에 대하여 의아심 또는 가라데가 먼저 채택되어야 된다는 등, 가라데와 같은 것이 태권도인데 왜 올림픽 시범 종목에 태권도가 채택되는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권도겨루기 시범을 보고나서야 정말 태권도 경기가 말로 신사적이고 경기규정에 입각한 엄격하고 짜임새있는 시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이다. 태권도 경기가 이렇게 멋진 것인지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 모든 임원과 관중들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가라데협회의 한 임원은 태권도 기술이야 말로 예술이라고 표현해 역싸이팅 가라데 경기라는 프로그램포스터가 무색해져 버렸다.

태권도야말로 무예의 예술적 가치와 역싸이팅(Exciting)하다고 계속해 외풀이하며 가라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번 태권도 겨루기 시범으로 태권도의 고차원적인 발기술이 또한 가라데와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며 가라데의 싸움식 경기에 비하여 태권도는 엄격한 경기규칙에 입각한 스포츠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태권도는 또한 훈련과 연습이 거듭되어 완전한 일격이면 K.O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태권도 끝 경기 3회전에서 (지용석, 박봉근 경기) 입증시켜 주어서 또한차레 합성과 박수를 받음으로써 우리 태권도 선수들은 흐뭇하고 이제야 사절단으로 책임을 다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자신이 있었으나 가라데로 판을 치는(가라데팬이 많은) 일본현지에서 가라데가 우월하다 생각하고 있는 많은 관중들이 서울 올림픽에 가라데도 당연히 채택되어야 한다는 생각(현재, 일본에 태권도 수련생이 많지 않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가라데보다도 못하면 야유는 물론 그곳에서 나올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번 시범은 태권도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고온 셈이며 임원들도 태권도를 화인프레이, 멋진 예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에 합성과 박수를 보낸 탓인지 한·일 협력위원회 이사이며 사무국장 小河原郎는 끝나자마자 엄표규 단장님 앞에 다가와 처음 자세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90도 각도의 인사와 악수를 청하며 태권도가 이렇게 훌륭한 경기인줄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성공적으로 태권도겨루기 시범을 마친 이날 저녁은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강사범동기후배들이 나와 수미야끼(百味亭 Sumiyaki)에서 특유의 음식으로 멋진 대접을 받았다. 日本明治大同門인 일본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올림픽 승인 종목으로의 가치성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분들 역시 가라데와는 비교가 안



일본에 태권도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돌아온 시범단과 일본 가라데협회 임원들.

사각링에서의 태권도경기 시범도 “다이나믹”한 연출이었다고……

되는 기술 높은 예술이라고 또 다시 이구동성이었다.

9월 7일 오후 6시 뉴오티나호텔 16층(Vip) 특별룸에서 중국 요리 대접을 받으며 일본 특유의 인형을 전 임원과 선수에게 선물로 주었다.

·자리를 더욱 재미있게 좌담을 하여주기 위해서인지 일본인 방송국 만담인 이사장(淸空一夜)가 일본 발음과 한국 발음의 같은 발음 비슷한 발음으로 뜻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웃겨 주기도 하였다. 또한 한일 협력 위원회로부터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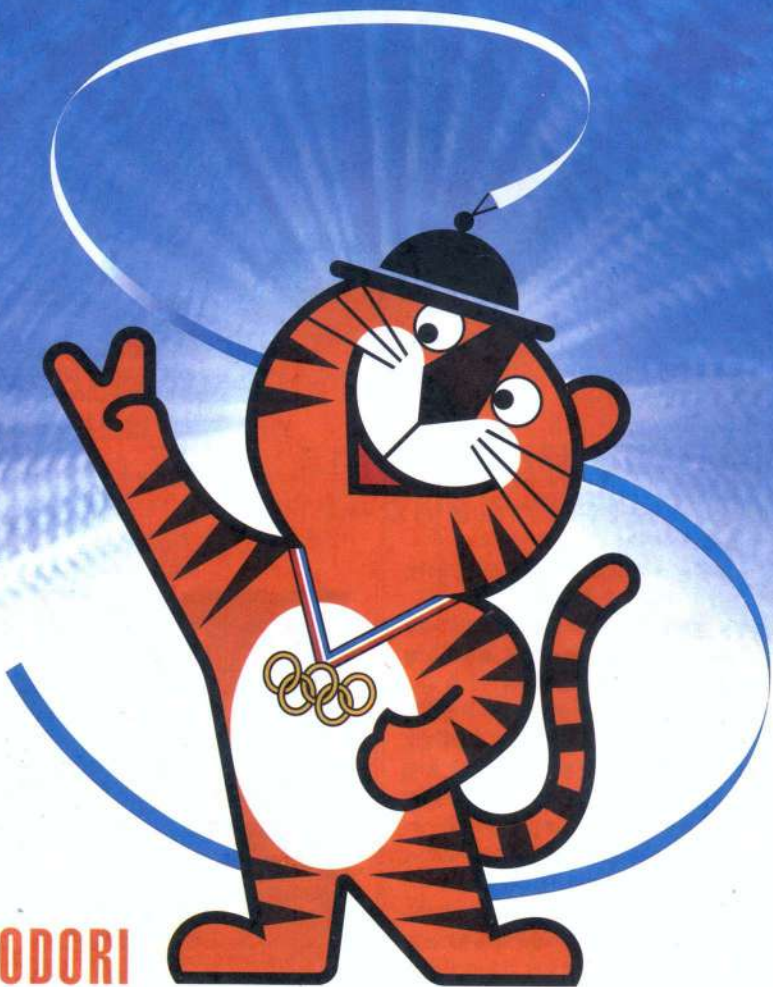
모든 분들이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하여 더욱 이번 겨루기 시범단의 파견은 국가적인 차원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홍보적 차원에서도 그 목적을 다 했다고 볼수 있으며 일본의 가라데와 태권도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심어준 것이 이번 파견단의 성과라 볼수 있겠다. *

태권도 시범겨루기에 앞서 사회자가 이들을 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화합과 전진의 제전 앞으로 1년

-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과 의의 -



HODORI

* 자료제공 :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막연한 기다림이 1년 앞으로

지난 8월 20일 하오 서울의 올림픽 공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앞서 7월 3일 같은 올림픽 공원에서 개막되었던 제1차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이 이날 50일만에 폐막된 것이다.

제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은, 서울올림픽대회 문화행사의 하나인 현대 세계 미술제의 첫 행사였다.

국내 조각가 2명을 비롯 16개국 17명의 조각가를 초청, 공원 현장에서 직접 아름다운 조각품을 제작 토론한 새로운 시도의 예술 작업이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고, 루마니아등 동구권 조각가를 비롯 모든 참여 작가들이 열정과 예술혼을 불태우며 제작에 몰두, 글자 그대로 현대 미술의 모험이라는 평가에 어울리게 다양한 작품들이 완성되어 올림픽 공원 여기저기에 정연하고 조화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역사적인 개막을 일년 남짓 남긴 시점에서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예고하는 동시에 대회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84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서울이 제24회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우리가 막연한 기다리로 기다려온 날이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사상최대규모의 잔치로 동서양진영의 이념적 화합의 장 마련

서울올림픽대회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화합과 전진"의 대회 이념 아래 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지게 된다.

경기종목은 육상,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 사격, 양궁, 수영등 기록경기와 농구, 배구, 축구, 하키, 탁구, 테니스, 핸드볼등 구기종목, 복싱, 레슬링, 유도, 펜싱, 역도등 대인(對人)경기, 그리고 승마, 체조, 근대 5종목등 모두 23개 종목에 걸쳐 237개의 세부종목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태권도와 야구가 시범종목으로, 배드민턴과 보울링이 전시종목으로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1백 67개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에서 1만 3천여명의 선수단원들과 5천여명의 대표단 등 1만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1만여명의 보도진과 2천여명의 심판진, 각종 학술회의 및 청소년 캠프행사에 참여하는 학자, 청소년 등 2천여명을 포함 3만 2천여명의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대회기간동안 24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포함한 연인원 2백 70만여명의 군중이 경기장 밖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23개의 각종 전시·공연등 문화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잔치가 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업무는 시설(Facility), 예산(Finance), 인력(Person), 행사(Program) 등 4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설의 경우 88년 5월에 준공될 수영경기장, 선수촌과 기자촌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 시설은 지난해의 아시아경기대회때 사용한 시설이 그대로 활용된다.

경기장 시설, 대회운영등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총 7천4백77억원, 조직위원회는 이 경비조달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이미 해외사업으로 4천2백5억, 국내사업으로 3천2백4억원을 확보, 개막 직전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믿어진다.

조직위의 자금 확보를 위해 그간 추진된 사업은 TV 방영권판매, 휘장사업, 주화판매, 복권발매, 입장권판매등이 사업의 대종을 이룬다.

대회운영요원 7만 2천여명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그 확보와 교육이 별다른 차

없이 진척되고 있다.

주요행사 역시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다. 대회의 개막을 실질적으로 신호하는 성화봉송은 지난 5월 아테네 현지에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와의 협약을 체결,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대회의 꽃이라고 하는 개·폐회식도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돼 출연진을 구성중에 있다.

서울올림픽의 5대목표는 최다의 참가·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최적의 안전과 봉사· 최대의 절약

모든 올림픽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업무도 한치의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대회조직위원회는 인력 및 물자관리, 시설운영, 전자, 통신등 기술지원, 등록, 안전관리, 입장권 판매등 관중편익 조정, 출입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의 의전, 수송, 의료, 그리고 방송 보도지원 등 폭넓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병행,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외형적 준비만으로는 그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

행사 개최의 뚜렷한 이념적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과연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행사의 성공여부를 분명히 전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에서 조직위원회가 설정한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대회의 의의를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올림픽의 5대 목표는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봉사" 그리고 "최대의 절약"이다.

조직위가 설정한 대회 목표의 취지는 다름아니라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하여 인류의 대륙제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올림픽 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범세계적 화합을 실현하며,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국제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제공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는 동시에 친절한 봉사로 안전과 봉사의 조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서울올림픽대회의 경제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

민족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가” “서울올림픽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라는 점에 불현듯 의문을 갖게 되는 수가 있다.

지금은 바로 이같은 의문에 대해 우리는 뚜렷한 답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서울올림픽은 동양에서는 동경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대회일 뿐 아니라, 분단 지역의 한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벌써 이제까지 선진 강대국들이 이루지 못한 동서 양진영의 이념적 화합을 구현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서울올림픽의 첫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 학술회도 개최됨에 따라 스포츠, 예술, 학술이 어울리는 최초의 “문화 올림픽”의 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이 학술회를 계기로 올림픽 정신의 연구, 개발은 물론, 동서문화의 폭넓은 상호이해가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16번째의 국가인 동시에 2차 대전후에 독립한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실로 첫번째의 올림픽 개최국이 된다. 이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가 온갖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는가를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 걸쳐 사상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치르게 됨으로써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에 대한 용기는 물론 올림픽개최의 희망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뜻깊은 서울올림픽대회가 정확한 1년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적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

서울올림픽이야말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세대에 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에서 울릉도까지 국토

태권도 1품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태권도健儿들이 8월 1일 인천 자유공원을 출발해서 서울, 양평, 횡성, 평창, 정선을 거쳐 울릉도 성인봉에 태극기를 꽂았다. 장장 17일간의 대장정, 어른도 실행하기 어려운 도보행군 유난히도 폭우가 심하였던 늦은 장마 기간에 편안한 여관잠도 아닌 텐트, 정자, 학교 교실등 불편한 침식생활 가운데서 극기심을 기르고 무엇이든지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은 과보호 속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나는 도시속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자랑스러운 일로서 이 어린이들은 태권도로 단련된 건전한 정신과 육체에기에 능히 해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모습을 이곳에 담는다.

- 편집자주 -



강 원 규
태권어린이 탐험대
대장



태권어린이 탐험대가 발견한
세계적 희귀식물 금강초롱꽃.



국토횡단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태권어린이 탐험대

횡단 성공

태권어린이 탐험대



8월 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국토횡단 대장정을 향해 출발.



55명의 발걸음은 썩씩하기만 하다.

“만세”

“국토횡단탐험 만세” “태권 어린이 탐험대 만세”

맑고 우렁찬 합성이 1987년 8월 15일 우리나라 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의 성인봉 정상에서 울려 퍼졌다.

북위 37.5도 선상을 따라 국토도보횡단에 나섰던 태권어린이탐험대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서울, 양평, 횡성, 평창, 정선, 동해간의 450여km를 행군한뒤 포항을 거쳐 울릉도 성인봉을 정복하고 태극기를 꽂았다.

국교생 33명 ·중학생 17명 참가

“탐험대 꼭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7월 31일 용감한 태권어린이탐험대원은 본 탐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거리 도보여행에 대비해 경기도 안성과 용인간을 3일간 걸으며 합숙훈련을 가졌고 매주 주말을 이용해 다섯차례의 야영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국토횡단에 성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자정을 기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앞에 진을 친 작은 태권용사들은 국토횡단의 대장정을 기다리며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설치다.

8월 1일, 드디어 동녘에 눈부신 햇살을 가리며 작은 탐험대 55명의 씩씩한 행군은 시작되었다.

“탐험대 출발”
“진진”
“앞으로 앞으로”

37년전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던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태권어린이탐험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몸 튼튼 마음 튼튼 푸른 꿈을 안고

까마득 안개길 헤쳐 헤쳐 나간다

우리는 작은 탐험대 창창한 하늘이다

발소리 들쭉히자

— 탐험대 노래 —

인천 → 서울 → 횡성 → 동해 → 울릉도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천리길

탐험가를 목청껏 소리높이며 아침안개가 뿌옇게 깔린 인천을 뒤로 하고 서울로 향했다.

국민학생 33명, 중학생 17명 등 50명의 탐험대원과 지도자 5명 등 총 55명의 사기드높은 행진은 인천상륙후 서울로 진군하는 맥아더장군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나 얼마후 서울시내를 도보 횡단해 돌아오던 탐험대원들은 매연과 소음공해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도보횡단의 어려움을 최초로 실감해야 했다.

또한 한낮을 찌르는 무더위도 발걸음을 지치게 했다. 그러나 인천자유공원에서부터 10여시간을 걸어 오후 4시경에 탐험대원들은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먼지와 땀에 뒤범벅이된 그들은 얼굴로 첫 목적지인 여의도 광장에 도착했다.

대생기업(대한생명63빌딩)에서는 태권어린이탐험대의 첫날의 패거리를 축하하며 동양최고의 올림픽 공식 관광지인 63빌딩으로 초대해 탐험대원들은 63빌딩을 견학했다.

전망대에 올라 종일토록 걸어온 인천-서울간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자 탐험대원들은 피곤했던 하루를 잊고 즐거운 합성을 질렀다.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모아 놓은 듯한 수족관은 화려한 닻 속을 탐험하며 용궁에 초대된 즐거움을 맛보게했다. 이어서 아이맥스영화관에서 관람한 「그랜드 캐년」



탐험대원들은 빗속에서도 탐험대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해 갔다.

은 콜로라도강 탐험대의 불굴의 개척정신을 담고 있어 앞으로 계속될 탐험기간의 정신력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공, 수중과 그랜드캐년까지 탐험을 한 작은 용사들은 드넓은 여의도 광장으로 나와 팔다리를 활짝펴고 꿈나라로 탐험을 떠났다.

기세등등하게 밀려오던 장마비

다음날 서울 종로를 지나 성남시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광주군 중부면에 소재한 남한산성은 1595년에 축조된 옛날 백제의 왕도(王都)이다. 병자호란 때 굴욕의 합복을 한 전장터인 역사의 현장에 탐험대원들이 용감하게 들어섰다. 성내에는 숭렬전(崇烈殿)

을 비롯하여 침과정(枕戈亭), 현절사(顯節祠)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 이튿날부터는 성벽을 넘어오는 적군인양 하늘이 검게 채색되며 화살을 쏘아대듯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선장에서 깨어난 탐험대원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 목적지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했다. 그러나 쳐부수고 쳐부셔도 쏟아지는 폭우는 좀처럼 멎을줄 몰랐다. 하루가 다 가도록 비가 멈추지 않아 잠시 다리 밑으로 피해 보기도 했지만 탐험대원 모두 물에 빠진 생쥐모양이 되었고 국토횡단에 참가한 여자 어린이가 탐험대원 2명 중 백재은양(서울신남성국교5년)은 발에 주먹만한 물집이 생겨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결국 날이 어두워지면서 더욱 기세등등하던 장마비에 밀려 작은 용사들은 강하국민

까지 15일 도보행군 성공

학교로 밀려 들어갔다.

다음날도 비는 쉬지 않고 이어졌다.

탐험대원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전진 또 전진 우리는 어(린)이 탐(험)대

쏟아지는 폭우속에 미소를 짓는다.

라이라아 차차차 라이라아 차차차

그 누가 막으랴 우리는 무적의 용사들”

탐험대원들은 빗속에서 탐험대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을 계속해 양평을 지나 선덕왕 때 대경대사가 창건한 용문사를 둘러 1000년이 훨씬 넘었다는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를 둘러보았다.

국토도보횡단을 떠난지 4일째 되는날 행군을 위한 체력과 정신은 더욱 강해졌고 익숙해진 행군은 정상계도에 올랐지만 비속에 평균 32km를 걷는 강행군은 어린 탐험대원들에게는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태권어린이탐험대원들은 이러한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극기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멀리 군산에서 참가한 서기억군(군산국교5년)은 며칠동안의 행군으로 고생은 많았지만 행군에 익숙해졌는지 오히려 기운이 넘친



다며 빨리 가자고 동료들의 손을 이끌기도 했다.

생라면과 소세지로 배를 채운 탐험대는 잠자리가 마땅치 않아 늦도록 행군을 계속하다 횡성군 운암정에 잠자리를 마련하여 개구리 울음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단잠에 빠졌을 때 못다한 일기를 정리하는 박재우군(서울고덕국교6년)의 모습은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태권어린이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확인

며칠간의 행군으로 자신이 붙은

대원들은 지도를 펼치고 방향을 잡아가며 고지를 향해 전진을 계속했다.

8월 6일 강원도 횡성에서 아침 일찍 태권도 연습을 하고 난 대원들은 자신감넘친 표정으로 대원들끼리 지리를 살피며 방향을 잡고 행군을 시작했다. 그러나 방향 감각을 잃은 대원들은 남쪽인 원주 쪽으로 행군해갔기 때문에 강릉 쪽으로 15km에 달하는 거리를 후진하기까지 했다. 허탈해진 대원들은 그동안의 거리를 안타까와 하며 서너시간을 재바퀴돌듯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장난꾸러기인 유용(서울봉은국교6년)군은 “국토횡단 탐험이 아니라 국토 왔다갔다 탐험대”라며 짜증과 익살을 부렸다.

잠시 주춤하였던 대원들은 실수를 반성하며 뒤떨어진 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주먹밥을 먹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휴식시간에는 흐르는 냇가에 옷도 벗지 않고 모두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들이 도심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과잉보호와 기대 속에 자라 이불도 개지



걸을때는
지쳐서 피곤하고,
실때는 즐겁고,
지적에는
집생각 엄마생각으로
눈물 흘리며
국토 횡단을……

못하며 부모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홀로서 일을 처리해나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본 그 아이들이 홀로서 목표된 길을 찾아나서고 먹을 것을 차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음식을 가리는 것은 없어지고 무엇이든 맛있게 먹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부모님께 보낼 편지 속에 박용모군(공능중2년)은 “무언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 주어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막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써 놓으며 스스로 잠 속으로 빠져들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어린이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을 맛보기도 했다.

오리무중같은 강원도 산길은 험난한 길이 끝없이 펼쳐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탐험대원들은 행군도중에 지난 옛이야기를 나눌정도로 여유를 찾아가 처음에는 불안하고 측은해 보이던 모습이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잘먹는 어린이들

저녁식사 시간에는 준비해간 반찬이 다 떨어지자 김승겸군(창원시 창원국교4년)이 민가에 가서 자신이 직접 먹을 반찬을 구해오자 대원들 모두 자신감을 갖고 우루루 민가로 물러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고맙게 잘 먹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엿보였으며 이들은 탐험이 끝날 때까지도 강원도 산골의 친절한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인심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

국도를 횡단하는 가운데 깊은 산중에서 날감자, 생옥수수 등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무인지경 숲속을 헤치는 가운데 다년생 풀과 키작은 관목 등 뿌리가 깊히 박혀있는 고산 식물은 타잔영화에 나오는 밀림을 방불케하고 어디선가 맑고 깨끗한 이름모를 산새의 노래소리는 탐험대를 신세제로 안내해주는 듯 했다.

숲속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다래와 산딸기를 싱기하게 뜯어다보던 홍성일군(서울연주국교6년)과 서용승군(서울삼송국교5년)은 “이것이 진짜 탐험이다”라며 즐거워했다. 이 두 어린이는 지난 겨울에 남쪽끝인 해남갈두마을에서 임진각까지 국토종단도 해낸 장한 어린이들이다.

5시간여만에 청태산 숲 속을 빠져나와 사방이 흰히 펼쳐보이는 정상에 오른 대원들은 시원하고 탁트인 자연을 만끽하였다.

「산넘어 물건너 두루 삼천리

배우며 익히며 보람차게 나아가
는

우라는 작은 탐험대 창창한 하
늘이다.

발소리 드높히자」

탐험대원들은 누가 시작하자는
말도 없었는데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다.

산수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이승현군(서울연주중1년)은 다음
에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오겠다
며 자세히 지리를 살펴두기도 했
다.

산길따라 식물곤충채집

초리, 세신, 더덕, 온갈피 등
각종 약초가 향긋하게 풍기는 강

원도 산중엔 산수를 더욱 경이롭
게 하고 곳곳에 쏟아나는 샘에 손
을 담그면 한겨울을 만난듯 으시
시해오고 목을 축이면 천년은 더
살듯한 약수도 있었다. 때때로 산
토끼, 다람쥐가 놀라서 달아나고
멀리서 노루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기도 했다.

계곡을 거의 다 내려오자 폭우
로 인해 계곡이 넘쳐흘러 길이 막
히자 통나무다리를 놓아 건넜는데
거센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
는 대원들도 많았다. 하루종일 산
을 타고 넘다보니 힘에 겨워 처졌
던 김진군(서울잠실국교4년)은
짙어진 배낭과 함께 수미터를 떠
밀려 내려가는 등 스티를 맛보며
탐험의 모험을 한층 실감케 했다.
수차에 이곳 저곳 계곡을 넘는

가운데 물이 넘쳐 다리가 유실되
어 10여미터 코앞의 건너편을 보
면서도 10여기로 미터를 우회할
때는 괜한 심술로 물살을 향해 죄
없는 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산넘고 물건너를 하는
동안 어느덧 눈앞엔 끝없는 수평
선이 펼쳐진 동해바다가보이자 대
원들은 갖은 고생스러움을 이기고
울릉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설레
임으로 만세를 불렀다.





장마비로 계곡이 넘치자 외나무다리를 놓고 건너는 스릴도 맛보며 ……



서쪽 끝에서 육지 끝인 동해까지 예정보다 하루가 빠르게 12일 만에 횡단하자 그동안 계속 쏟아지던 장마비도 탐험대의 국토횡단을 축하하는 듯 그치고 맑은 햇살을 내려주었다.

갖은 고생 끝에 탐험의 성공에

대원들은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비에 젖고 땀에 범벅이 된 복장에서 목은 냄새를 맡게 되고 새 신발은 거의 다 헐고 밑바닥은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몇백킬로미터를 걸어왔음을 실감하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만큼 보람도 느끼는 듯 했다.

이어 대원 최리호에 승선해 포항에서 뱃길 7백리의 파도를 가르며 최종 목적지인 울릉도로 향했다.

울릉도 성인봉에 태극기를 꽂고

수평선 저 멀리 석양이 깔릴 즈음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 아득



한 수평선에 갈매기가 날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울릉도가 있었다.

경상북도에 속한 화산도(火山島)인 울릉도는 원래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리워졌는데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기암괴석과 절벽지대가 해안 곳곳을 둘러싸고 있으며 연안에는 환한 불빛의 오징어잡이 고깃배들이 즐지어 떠 있었다.

드디어 태권어린이탐험대는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동단의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해발 984m)에 태극기를 꽂고 애국가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한국태권어린이 : 청소년 탐험대 지역대대모집

지역탐험대대 : 어린이·청소년 10인 이상 구성단체(체육관포함)
※ 각종행사지원

* 국토도보종단에 참가할 탐험대원모집 *

한국태권어린이·청소년 탐험대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고적탐사와 학습을 겸하여 호국정신과 태권도 정신을 기르고자 "88 국토종단탐험"에 참가할 탐험대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태권도 1품 이상으로 국교 4년이상 중학생까지
- **행사일시** : 1988. 1. 1~20
- **종단코스** : 해남(땅골)→광주→전주→부여→천안→서울→임진각
- **접수처** : 한국태권어린이·청소년 탐험대본부(232-5557)
- **접수마감** : 1987. 11. 30까지

“만세”
“국토횡단탐험 만세”
“태권어린이 탐험대만세”



탐험대 일기



안유현 / 서울 옥정국민학교
5학년 5반

8월 1일(토),
인천→서울(여의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국토 횡단길을 출발했다. 우리는 아침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두시간 정도 걸다가 오전 9시에 빵과 우유를 먹고 다시 행군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3시간 가량을 걸은후 맛있는 밥을 먹고 행군에 들어갔다. 경기도를 지나 서울에 도착했으나 여의도까지는 막막하게 남은 것 같았다.

그렇지만 열심히 걸었다. 탐험대원 50명 모두 여의도에 도착해 63빌딩(대생그룹)으로 갔다. 수족관에도 가보고 아이맥스영화관에도 가보았다. 그리고 전망대에도 올라가 웅장한 서울을 바라보면서 「참은 마음은 써도 그 열매는 달다」는 관장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8월 2일(일),
서울(여의도광장)→남한산성
(경기도 광주)

아침 6시에 일어나 걸었다. 시내는 일요일이라 한가했다. 우리는 종로 5가에서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 입구까지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한뒤 전시관에 들러 병자호

란의 기록을 읽으며 역사 공부를 했고 계속 걸어 지수당을 보았다.

지수당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1호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신성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풀숲과 연못가가 있어 개구리, 잠자리, 메뚜기, 매미를 잡아서 관찰해 보았다.

8월 3일(월), 남한산성(경기도 광주)→양평

점심식사후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다른 아이들도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나처럼 모두 부모님이 보고 싶었는지 어떤 아이는 울기까지 했다.

다시 도보행진에 들어갔는데 비가 많이 내려 아침에 준비한 비닐을 덮어쓰고 걸었다. 계속 걷다보니 양평 15km라고 쓴 팻말이 보였다. 양평까지는 23km라고 했는데 8km를 온셈이었다. 양평에 도착해 우리는 학교로 가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8월 5일(수), (양평→횡성)

청운국민학교를 출발해 우리 대원들이 걷고 있는데 한승이형이 "기운내! 강원도까지 1.5km 남았다"며 말했다. 우리는 기운차게 강원도를 돌파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점심은 빵으로 먹어서 무척 배가 고팠으나 참았다. 계속 걷다가 어느 성당에서 피곤한 우리들은 낮잠을 잤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보니 야간행군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당안에서 함께 기도를 올린뒤 다시 행군에 들어갔다. 가면서 빵을 먹었는데도 무척 배가



고팠다.

9시 30분쯤 식당에 둘러 밥을 먹으려 했으나 음식을 팔지 않아 계속 걸었다.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잘만한 곳이 없어 우리는 계속 왔다갔다 해야했다.

아이들은 "국토 도보행진단 탐험대가 아니라 국토 왔다갔다 탐험대다"라고 하여 피곤한 아이들이 한바탕 웃었다.

8월 6일(목), (횡성→횡성)

강원도 어느 정자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고 출발했다. 어제 늦게 자서 졸렸다. 강릉으로 가야하는

데 춘천쪽으로 가게되어 15km나 후진해야 했다. 우리팀은 돌아오는 길에 훈련대장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우리들은 빠른 걸음으로 계속해 걸었다. 뒤에서 "신두제자리"라고 하는 구령을 듣고 우리는 쉬는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우리는 수영도 하고 옷도 빨았다.

수영하는 곳은 급류라 떠 내려갈엔 했으나 큰돌을 붙잡아 다행히 멈출수 있었다.

수영을 마치고 멸치, 간장, 소금등으로 문친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걷다가 어느 학교에 들러 잠을 잤다.





8월 9일(일)

유포마을→대화

오늘은 행군도중 앞에서 부터 한명씩 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처음에 메아리를 부르려고 했으나 다른 아이가 먼저 불러 다람쥐를 불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보니 낮은 산이 보였다. 산은 경사가 무척 심했다.

어떤 형은 4번이나 넘어져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다. 나는 비계덩어리와 양파는 먹지 못했으나 아이들과 함께 먹으니 먹을 수가 있었다. 식사를 한후 대화국민학교로 가서 잤다. 다른 학교에 비해 학교가 크고 시설도 좋았다.

8월 11일(화)

정선→임계

우리는 생라면을 먹고 속암국민학교를 출발했다.

가는 도중 여대장님께서 잘 걷는 아이는 뒤로, 잘 못걸는 아이는 앞으로 보냈다. 나는 앞에서 있었는데 뒤로 갔다.가다가 어느 식당에서 짜장면밥을 먹었다. 나는 짜장을 못 먹었는데 이젠 먹을 수 있다. 집에 돌아가 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어머님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다.

계속 걷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대장님께서는 담력훈련을 하신다며 한명씩 걷는다고 하였다.

대장님께서 이곳엔 문동병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문동병자가 어떤 사람인줄 몰랐는데 형이 가르쳐주어 무척 무서웠다. 나는 늦게 가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빨리가는 것이 늦게 가는것보다 낫다고 해서 나는 총대장님께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나에게 마지막으로 가라고 하였다. 나는 겁이났다. 맨 나중에 남은 사람은 같이 갔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았다.

대장님은 내가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담력이 강한줄 가셨나보다.

8월 12일(수),

임계→영주역

동해시로부터 다시 약 2시간가량 걸다보니 웅준이네 어머님께서 수박과 복숭아를 나누어주어 맛있게 먹은 후 쌍용 시멘트공장 전차울을 갔다.

시멘트공장은 무지무지하게 컸다. 견학을 마치고 동해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영주까지 갔다.

8월 13일(목)

영주역→울릉도

영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포항에 도착하니 새벽 6시 전이었다.

우리들은 걸어서 선착장에 도착해 밤을 짓고 있으려니가 근형이 형 어머님께서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오셨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후 대장님께서 '대원들에게 잠을 자라고 하셨으나 나는 졸리지 않아 그 시간을 이용해 고름난 곳을 치료했다.

오후 1시 30분에 드디어 대원 웨리1호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다. 출발할 때에는 배, 공장, 해군을 볼 수 있었는데 멀리 가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2등객실로 내려가니 중국영화를 보여주었다. 더 보고싶었는데 졸음이 와 깜박 잠이 들었다.

잠을 자다 아이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울릉도가 멀리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울릉도에 내려 밤을 먹고 잤다.

8월 14일(금), 맑음

우리는 언어 온 반찬으로 맛있는 밥을 먹은 후 산에 올랐다. 그곳에는 빨간 약수가 있었다.

빨간색 약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붉은 색으로 변하여 빨간 약수라고 한다. 다른 아이들은 약수가 쓰고 녹스맛이 나 맛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몸에 좋단니까 맛이 없어도 두잔을 마셨다.

산을 내려와 저동까지 가서 잠을 잤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지지 않고 있는데 대장님께서 자다가 일어나 시며 낚시를 가신다고 해 나도 따라갔다. 물고기는 한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돌아와 우리들은 총무 2호를 타고 죽도로 가서 수영을 했는데 너무 추웠다. 다시 돌아와 고기 반찬과 밥을 맛있게 먹었다.



8월 15일(토), 맑음

아침밥 준비를 하는데 고기냄새가났다.

"오늘은 고기를 먹는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고기와 밥을 맛있게 먹고 국토횡단의 목적지인 성인봉에 올라가기를 뜻하니 무척 기뻐했다.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오르기는 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려웠다. 무척 미끄러워서 2번이나 넘어졌다.

성인봉에서 내려와 9시가 다되었다. 우리는 또 걸어서 어느 학교에 도착해 다른 때는 대대별로 잤는데 오늘은 학년별로 잤다.

8월 16일(일), 맑음

일요일 아침이라고 대장님께서 교회다니는 사람은 교회로 성당다니는 사람은 성당에 가라고 했다. 나는 교회에도 성당에도 다니지 않아 남았는데 남은 사람은 모두 8명이었다. 우리들은 대장님이 주신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했다.

오후에는 수영을 하러갔다. 바

람이 붙어 추웠기 때문에 나는 물만 몸에 묻히고 나왔다. 여러 아이들도 나처럼 물밖에 나와 있었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과자잔치를 벌였다. 행군기간중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날이었다.

8월 17일(월), 맑음 울릉도→포항

오늘은 국토횡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모두들 좋아서 가방을 메고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들은 항구로가서 저동까지 가는 배를 탔다. 재우형이 토했다. 나도 넘어올 뻔 했는데 무사히 도착했다. 저동에 도착해서 걸어서 도동에 가서 우리는 기념품을 샀다.

나는 어느 인절당은 아주머니가 계어서 산채나물을 샀다. 그리고 칩거무와 울릉도 호박엿과 대장님께 드릴 오징어도 샀다.

드디어 배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출발했다. 18일 동안의 국토횡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는 뱃길은 나도 모르게 감격스러웠다.

태권가족



이향원





스페인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귀국

스페인 이선재 사범

오는 10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92년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있는 유럽 태권도의 강국인 스페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 보급 및 선수육성에 주력해온 이선재 사범이 스페인의 태권도 유망주인 가브리엘 에스빠르사(14세)와 함께 귀국, 대한태권도 협회를 방문했다.

이선재 사범은 「스페인은 오는 10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각 도장마다 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복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대회 입장권을 예매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스페인에서의 태권도 열기는 대단하다」고 전해 주었다.

또한 몇년전부터 열기 시작한 태권도붐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에 한두개의 도장이 있던 것은 옛말로 십오육개의 도장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92년도 올림픽까지 스페인에서의 태권도붐은 계속 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사범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4백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스코나브라 지역에서 3개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군데 그룹지도를 맡고도 있다고 한다.

1975년도 9월에 선배인 김종성 사범의 초청으로 출국해 스페인



왼쪽부터 정복규(한성고 1년), 가브리엘 에스빠르사, 이선재 사범.

태권도협회에서 대표팀 감독과 사범으로 80년도까지 일하는 동안 제1회 월드컵, 제5회 세계선수권 대회,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 1982년도 유럽선수권대회 등에 참석하며 좋은 성적을 올리는 등 스페인을 태권도 강국으로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 해왔다.

5년전부터는 도장과 그룹지도만을 하고 있는데 그가 운영하는 도장의 수련생들에게 스페인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방학을 이용, 중주국 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스페인 학제로 국민학교 8학년 졸업반인 가브리엘 에스빠르사는 오는 9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8년 간을 수련하는 동안 각종 대회에서 매년 금메

달을 휩쓸어 온 스페인의 유망주로 올해 만14세가 되어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4번의 경기 중 2번의 K.O승을 기록하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권도 중주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 와서는 한성고등학교에 윤창욱감독의 배려로 한성고 태권도부와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가브리엘 에스빠르사는 한성고 1학년인데 재학중인 정복규 학생 집에서 민박을 하며 한국의 문물 또한 배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승품심사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가브리엘 에스빠르사는 스페인에서는 일주일에 2번, 2시간 정도 연습해 왔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매일 많은 시간동안 전문적인 수련을 쌓고 있어 매우 기량이 뛰어나다며 태권도 기술을 많이 배우고 꾸준히 연습해 한국인들과 겨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투우와 플라멩코와 같은 특이한 민속이 정열적이고 다혈질적인 국민성이 일면을 대변하는 스페인 민족성과는 달리 프랑스와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의 소수민족인 바스크족의 후예로 소박하고 착한 외유내강의 면모를 보여주는 가브리엘 에스빠르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스페인의 태권도 강적이 고 본다.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프랑스 이문호 사범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7월 4일 이문호 지도사범의 인솔하에 태권도의 종주국을 찾아와 일주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7월 13일 출국했다.

일주일간의 전지훈련은 타이프한 일정속에서 월요일은 경희대 태권도부와 기술교류를 가졌고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은 유도대 태권도부와 일정을 함께하며 태권도 체력훈련 및 기술훈련을 받았고 목요일 오후에 한국체대 태권도부와 겨루기 시합 등을 통해 유수한 대학의 강팀들과 태권도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금요일 오후에는 올해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전에서 고교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고 태권도부와 기술교류, 토요일은 일반팀인 국군 체육부대(상무)와 태권도의 각종 기술을 배우

고 돌아갔다.

이들팀은 출국에 앞서 월요일 오전에는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을 방문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서울특별시장기쟁탈 초·중·고 단체대항 및 개인 선수권대회 겸 제68회 전국체전 선발전대회를 관람하였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온 이문호 지도사범은 「전지훈련에 적극 호응해 준 각 대학팀 및 동성고, 상무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고등학교이나 대학생, 군인들 모두 최강팀들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라 모두들 기량이 뛰어나고 기술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평준화 상태라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태권도가 세계화되면서 많

은 국내선수출신들이 해외에 진출, 그들의 기술을 외국인들에게 지도하고 있고 태권도 인구가 저변확대됨은 물론 신체적인 여건이 한국선수들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권도는 세계인의 태권도를 결코 가법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의 태권도가 경기에서의 승패만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태권도의 기본은 무도정신의 실현에서 시작하여 기술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호 사범은 전지훈련기간에 같은 한국인 사범인 여승구씨와 동행했는데 프랑스에는 그의 가족으로 부인 이명희씨와 10살과 8살인 아들 남매가 있다고 한다.



국기원에서 전지훈련을 받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사회 발전의 기수

충효태권도학교 정종오 사범

미국에 진출해 태권도를 보급하는 많은 태권도 사범 가운데 특히 지역발전의 기수로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사범은 로스엔젤레스 한국타운에서 충효태권도 학교를 운영하는 정종오 관장을 꼽을 수 있다.

정종오 관장은 알바라도의 한국타운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주변 우범지역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가 하면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즉 알바라도는 남미계 저소득층과 불법입국한 트레기들이 들끓는 맥아더파크와 불과 몇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방법활동을 벌여온 자원방범대 가디언 엔젤스가 충효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기 때문에 알바라도에서는 대부분 충효태권도학교를 알고 있다고 한다. 맨손으로 순찰을 도는 이 단원들에게는 특히 강한 정신력과 호신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장은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대신 코리타운 방법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 가기 전에 광주 송일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며 비행청소년, 문제아들을 선도한 경험을 살려 늘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교포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동양무술의 정신세계



를 담은 영화 프로그램 등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버몬트·맨체스터 지역은 로스엔젤레스 제8구로 South Central지역이라 불리는데 이 지역은 한국 교포 상인들이 대개의 상권을 쥐고 있는 흑인지역이다. 역척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코리안을 흑인 주민들이 배척하는 기운이 감돌자 한국교포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자선과 티 등을 벌여 한국인과 흑인과의 유대관계에 신경을 써왔는데 정관장은 지난 85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흑인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지도를 실시하며 한·미(흑인)관계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 사실은 미국의 언론에서도 지역사회 정화 및 선도의 예로서 격찬을 아끼지 않은 본보기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관장은 「이웃과 사회

를 위해 좋은 일은 서로 나서서 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던간에 너무 비즈니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많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한다.

지난 5월5일부터 15일까지는 한인신체장애자 부모회(회장·최주원)의 패밀리 홈 건립 후원운동을 돕기 위해 충효태권도학교에서는 모금기간을 마련, 이 기간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도복 1벌을 무료로 증정하여 이 기간에 모인 등록금 전액 6백73 달러 50센트를 부모회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관장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를 돕는 일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교육을 담당하는 충효태권도학교의 교육이념과 부합된다며 어려운사함을 돕는 것도 태권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관장은 충효태권도학교 외에도 교회, 커뮤니티, 단체 등에 태권도의 보급과 시범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지난해에는 가수 침구사 자격증을 따냈으며 금년 6월에는 South Bay University 한의학대학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문헌적 고찰」로 한의학(O·M·D)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에서 계속 연구를 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연마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련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

미국 펜실베니아의 정권수 사범



해외에 진출한 사범들의 꿈은 그곳에서 성공하여 자랑스런 모습으로 고국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참외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정권수(42세, 6단) 사범은 부인 함민자(36세)씨, 딸 빛나(11세)양, 아들 바른(8세)군과 함께 고국을 떠난지 17년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약 2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150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년부 및 성인부가 약 반반씩이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반반인 관계로 한국어와 영어로 지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무도정신에 역점을 두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유단자만 2명, 브라운 벨

트가 15명이지만 내년이면 7, 8명의 유단자가 더 배출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미로 배우고 건강이나 호신술로 익히고 있기 때문에 수련생 중 태권도 선수로 뽑을 만한 사람은 2,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별히 선수를 기른다고 보다는 수련생 중에 기량이 뛰어난 수련생이 대회에 참가하곤 하는데 지난 4월 필라델피아 유년부대회에서 2명이 입상했고 5월의 펜실베니아 주대항에서도 2명이 입상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예의와 국기를 가르치고 태권도 수련사 발로 수련생을 찬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도에 있어 엄격성을 지키되 5살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도장운영에 있어 성과를 가름할만큼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가 태권도를 무도정신에서 어떻게 잘 수련시키는가하는 지도자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한다. 도장 수련생 모집은 신문 잡지에 광고를 내는 것이지만 도장 수련생들에 의한 지도자의 평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정권수 사범은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붐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태권도인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하겠지만 처음부터 해외에 나가 도장을 운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직장을 구해 1년 정도 일하면서 그곳의 지역적 특성이나 현지인들의 속성을 알고난 후 언어장벽도 깨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또한 도장을 설립했을 때 처음 반년 가량은 신념과 각오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6개월에서 1년사이 수련생들이 물리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료, 도장 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에서 일하며 도장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사범은 초창기에 인건비가 비싸 도장에 직원을 둘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나와 일을 도왔다며 지금도 직접 가족이 도장을 청소하고 부인이 사무실에서 일하며 돕고 있다고 한다.

도장운영에 있어서는 운동만을 가르키기 보다는 얼마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도장설치가 그 지역에 바람직한가라는 점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도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태권도는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사업에도 적극 참가하

여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정권수 사범은 이번엔 고국을 찾아서도 수재민 모금운동에 참가했고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실로

암교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앞보는 사람이라며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번엔 함께 온 딸 빛나와 아들 바른은 문교부에서 주최하는 재외 교포2세 모국방문단에 참석해 2주일간 한국의 명승고적지를 둘러 보았는데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며

다시 또 오고싶다고 했다.

미국에서 즐곤 살아오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은 이곳 아이들 못지 않게 우리 글을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순수한 우리말로 이쁘게 이름을 지어준 정사범의 교육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년이면 두아이 다 블랙벨트를 메게 된다고 한다.

'88 제 8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의차 귀국

네팔 신재균 사범



네팔정부로부터
영웅대접받는
자랑스런 태권도인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에 네팔대표팀 코치로 출전해 동메달 4개를 획득한 바 있는 신재균사범이 지난 8월 30일, 오는 88년 3월에 네팔에서 개최하게 될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협의차 귀국했다.

네팔무술협회주관으로 개최될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네팔 태권도 대표팀 지도사범으로 있는 신재균사범은, 지난해 네팔정부수립후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아시아인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신사범을 비롯한 4명의 메달리스트들이 네팔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은 물론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의 월급을 일시불로 내려주는 등 파격적인 대

우로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국으로서 네팔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더해가는 가운데 태권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며 기뻐했다.

신재균사범은 계속해 뛰어난 기량의 선수를 발굴해 세계대회에서의 금메달을 목표로 지도 하고 있다고 의지를 펼치는 한편 지난 85년도부터 네팔왕국과 국경을 마주 보고 있는 부탄왕국의 왕 경호원 40명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해왔는데 현재 부탄올림픽위원회 초청으로 부탄에서 전국의 군경 800여명에게도 태권도를 수련시키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이 부탄에도 태권도가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讀書不忘救國

책을 읽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잊지말자

〈중국 5·4 운동의 구호〉

이 말을 우리나라 지식인(知識人)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에게 보낸다.

1919년 5월 4일 중국의 북경대학(北京大學)의 애국학생 5천여명이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의 중국(中國)침략에 항거하는 애국시위운동(愛國示威運動)을 벌였다.

그때 그들이 내 세웠던 「슬로건」이 「독서불망조국」이었다. 이 운동을 5·4 운동이라 일컫는다.

5·4 운동은 중국 근대화의 시발점을 이루었고 중국 민족운동의 한 기념탑(紀念塔)이 되었다.

일본은 무력으로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영토를 침략하려고 했다.

그것이 소위 일본의 대화 20개조(對華20條)의 요구였다.

그것은 일본군벌의 중국침략행위였다. 이때 애국심(愛國心)과 정의감(正義感)에 불타는 북경대학생들은 항일구국(抗日救國)을 외치면서 일대 데모를 전개했다. 이 데모의 물결은 전 중국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한 젊은이는 나라의 보배요, 민족의 자본이다.

한 집안이 잘되려면 훌륭한 아들이 나와야 하며,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믿음직한 젊은이들이 나와야 한다. 5·4 운동을 중국 학생들은 “책을 읽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민족구원(民族救援)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독서와 공부 가 민족의 자력갱생(自力更生)과 부강(富強)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학문(學問)은 곧 구국(救國)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나 한사람의 입신출세(立身出世)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자는 것이다.

학문은 민족번영과 직결되어야 한다. 민족을 망각한 공부, 국가를 잃어버린 학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독서불망구국(讀書不忘救國)의 염원(念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각국에서 국기원 방문 러시

동서(東西)스포츠 강국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각국의 올림픽위원회(NOC) 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및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는 가운데 중주국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을 방문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LOOC) 부위원장인 김운용 회장과 면담하고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관람하였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기원을 방문한 각국 NOC관계자 및 국기원을 찾은 각국의 방문객들에

게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 그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태권도의 위용을 자랑했는

데 이를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국 가	참 석 자	비 고
6.4~5		GAISF 사무총장 Mr. Luc Niggli 미국태권도시범단 방문학생 시범대회	김운용 GAISF회장 미용국교·한국제대시범단
6.13	미 국	NOC 부위원장 Mr. Tamas Tilor 비서 Mr. Gyorgy Lochmayer	
6.15	헝 가리	NOC 국제관계 비서 Mr. Tamas Hamori NOC 업무협력관 Mr. Laszlo Edeo NOC 보도협력관 Mr. Laszlo Karcagi Mr. Romero	
	스 페인	NHK 서울시국촬영팀 4명 방문	미용국교·한국제대 시범단촬영 시범대회 신도원국교, 한국제대 시범단촬영 시범대회
6.16	미 국	국제부도학술연회 100명 방문	미용국교 어린이 시범단촬영 시범대회
6.22	미 국	태권도 수련생 및 가족80명 수련생 11명	신도원국교·현재대 시범단 촬영 시범대회
7.7	미국·캐나다	준교부총원 유비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신도원국교·국기원 성인시범단 시범대회 미용국교·국기원 성인시범단 촬영시범대회
7.23	유럽각국	유럽전지훈련단방문 촬영 시범대회	
7.31	소 련	NOC대표단 NOC 부위원장 소련스포츠위원회 차관(Anatoliy Kolessov) 외 NOC 사무총장, NOC 사무총장보좌관 등 6명.	

제1회 국기원 임원하계 수련회

국기원에서는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제1회 국기원 임원 하계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국기원 임원 하계 수련회는 태권도메카의 임원으로서 그리고 고단자로서 정통태권도의 기법과 기술을 수련하여 지도적 자세를 더욱 확고히 유지하고 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정신 및 기술상의 이론을 다지고 연구함은 물론 더위를 극복하는 인고의 수련을 통하여 강건한 체력을 배양하며 모든 후진들에게 수범(垂範)이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수련회를 통하여 국기원

에서는 고단자로서 정신 및 기술 지도 차원의 능력을 비양케 하며 모든 지도사범들에게 승무단련(崇武鍛鍊)의 습성을 갖게하고 도

복을 입고 지도하는 무도스포츠로 전개하여 태권도계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및 국기원 임직원 오찬

- 김운용 회장 초청 -

대한태권도협회의 김운용 회장은 지난 8월 20일 협회 및 국기원 임직원들에게 영동 뉴월드호텔에서 오찬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김운용회장은 '88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있는 87년도가 태권도계에서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세계선수권대회 뿐만 아니라 월드컵대회, 팬암게임, 아프리카 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됨으로써 태권도의 경기력향상과 역량을 세계대회를 곳곳에서 치루어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암게임에 참석해 보니 국제심판강습회에 120명의 국제심판이 참석해 미국 전역을 통괄한 협회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태권도경기에는 쿠바 등 2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고 전하며 세계 전역에 걸쳐 태권도 발전의 면모를 여실히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기원을 찾은 각국의 NOC 위원들이 '88 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이며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거의 정식종목 가능성이 높은 태권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고는 열광했다고 각국 NOC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설명했는데 '88 서울올림픽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동서 및 공산

권에서의 참가로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될 것이라며 국기원을 찾은 소련 및 헝가리 NOC 일행도 태권도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가지고 가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는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며, 미국 NBC TV의 생중계 등 각국 TV를 통해 전세계에 방영되어 태권도의 지위향상은 물론, 태권도의 전 세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87, '88 년도의 중요한 시점에서 전 태권도인이 합심해 대사를 치루길 당부했다.

또한 IOC 총회시에 사마란치 위원장은 '86 아시안게임 때 식후 공개행사의 하나인 태권도 시범에 감명을 받았으며 '88 서울올림픽 때도 태권도 시범을 행사에 꼭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와 개최식 공개행사에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날 기술심의회 안영택 심판분과위원장은 심판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심판강습회를 실시하여 줄 것을 김운용회장에게 건의했는데 이에 김회장이 쾌히 승낙, 이를 적극 추진해 실시하도록 했다.



제55기 지도자 교육 (3급)

-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동안 제55기 태권도 3급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3급 태권도 지도자교육에는 총 138명이 수강했는데 이중 132명이 합격해 3급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다.

수료식에서는 지도자 교육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장호, 최현수, 서영애씨등 3명이 영예의 우등상을 받았고 자치활동에 공이 크고 타의 모범이 된 김부규, 고장호, 백복인, 백성기씨등 4명이 모범상을 받았다.

3급 지도자교육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 옥, 정인찬, 안재모, 김희수
 박상희, 최현수, 유영찬, 차주빈
 이상재, 박용철, 김형주, 강경선
 김진도, 김복현, 박지홍, 서 탁
 서동민, 오안섭, 홍석영, 전중열
 박대근, 김현준, 이준경, 송상현
 김덕조, 김이곤, 윤구탁, 염재호
 김은희, 김교석, 김재업, 권 익
 서영애, 백국현, 김낙현, 윤승본
 김기몽, 조윤휘, 조재현, 이동일
 김정고, 김삼갑, 문영길, 박재우
 정중훈, 정덕균, 백복인, 이용표
 박기봉, 박동윤, 반부근, 표중호
 이복룡, 홍수중, 한승범, 김동열
 이주영, 김삼수, 한찬욱, 이세도
 문중국, 장정열, 김부규, 한홍선
 배현식, 정철만, 김진승, 김은영

백성기, 박은규, 김원환, 이호영
 이창호, 이강일, 김창호, 김대현
 박상용, 김시태, 장상문, 엄기봉
 송중국, 이우인, 정성모, 안진식
 김순옥, 조성철, 최홍기, 김정숙
 황선봉, 이문용, 장환민, 엄상용
 박주만, 오정훈, 김옥배, 김중철
 김복규, 정강필, 조복현, 최종찬
 김종길, 김도식, 박성현, 심재성
 최관현, 김영상, 이상만, 안창식
 장윤정, 이상수, 정현철, 최한규
 지남영, 신승창, 권준순, 김찬욱
 김홍용, 김광목, 송홍창, 허경희
 김영호, 김동훈, 우중암, 이영상
 김경진, 서경원, 이경하, 고장호
 한정호, 최규영, 윤정현, 박정수



제42회 광복절 경축행사 태권도 연무시범대회

—재일본 대한태권도협회—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대관부 지방본부 주최 제42회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가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대관본부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부 경축식전행사, 2부 서울올림픽대회 준비보고회(박세직 SLOOC위원장), 3부 태권도연무시범대회(국기원 시범단12명), 4부 가무단공연(동화춘 국악예술가무단)으로 열린 제42회 광복절 경축행사에는 많은 재일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뜻깊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복절 경축행사의 하나로 거행된 태권도 연무시범대회에는 국기원 연무시범단 12명이 초청되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연무시범을 보였다.

연무시범대회에 참가한 국기원 시범단 12명은 제42회 광복절 경축행사에 1회의 태권도 연무시



범을 보일 예정이었으나 모처럼의 초청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재일본 대한태권도협회 홍성민 회장의 열성으로 일본 주요신문 및 TV방송사 등 일본 보도기관을 위한 태권도 특별시범을 펼쳐 녹화 및 인터뷰를 하여 8월 14일과 8월 15일 아침 TV스포츠 뉴스 시간을 통하여 방영되었고 8월 15일자 조간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찌신문에는 태권도가 서울올림픽대회 시범종목으로서 전세계 3,000만의 경기인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일본인들에게 태권도의 소개 및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2차 시범도 8월 15일 제42회 광

복절 기념 경축행사에 재일민단 대관본부 회관대강당에서 재일동포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연무시범대회는 재일본 대한태권도협회 결성 25주년 기념 연무대회가 재일본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렸는데 태권도연무시범대회가 열린 대관본부빌딩 대강당이 있는 대관 나까사키기는 42년 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데 이어 8월9일 2번째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준 일본으로서는 치욕의 장소로 일본은 8월15일 국치일을 위로하기 위해 어분제(御盆祭)를 지내는데 공적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이날을 전후해 휴가를 간다고 한다.

태권도연무시범대회에서 국기원 시범단은 기본동작, 고추결파, 옆차고 뒤차기 격파, 일면격파, 3방 앞차기격파, 장애물 옆차기격파, 폼새, 3방 옆차기격파, 회추격파, 4방회추격파, 3방 3방 격파, 양발고추격파, 4방 손 격파, 호신술, 회정 돌려차기 격파, 8방회추격파, 권총호신술, 시범겨루기 등 태권도의 기상으로 제42회 광복절 기념행사를 한층 뜻깊게 장식했으며 교민들의 시기양양에 일익을 하였다.

*연무시범단

단 장: 강원식
감독: 이창묵
단 원: 김영자, 박덕규, 이종관, 구정희, 최봉호, 윤준철, 최광근, 장 권, 장명삼, 조성철

演武 演武 演武 演武

韓國武術テコンドーの模範演技を披露する選手たち

最強のテコンドー披

北區の魂 ソウル五輪 D

船の回帰、北區のソウル五輪(北區)の模範演技を披露する選手たち

北區の魂 ソウル五輪 D

태권도 시범중 수십차례의 박수와 환호보내 재외교포대학생 국기원 방문

재외교포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조국을 찾아 조국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담았다.

미국, 캐나다, 페루 등에서 164명의 대학생들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회가 주관하는 여름 하계학교에 참석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어, 국사, 한국의 민족문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민속 등 각종 한국의 문화와 문물을 접하고 통일전망대 및 3.8선을 견학하여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았다.

지난 7월 8일에는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국기원을 견학, 신도립 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과 한국체대태권도부 학생들의 겨루기 시범을 보는 동안 수십



차례의 박수와 환호로 1시간 동안 진행된 태권도 관람은 국기원을 열광의 도가니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 교포 학생 중 태권도 유단자인 김진형씨와 심광원씨는 특히 국기 태권도의 진수를 맛보는 동안 감탄사를 연발하며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기에 바빴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김진형씨는 시카고 도장에서 정구진, 한차교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으며 「이번에 하계학교에 참석하게 된 것은 놀람도록 발전한 조국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느낀다는 의미도 있지만 태권도를 국기원에서 수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하계학교의 공식일정을 마치며 8월말까지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의학을 전공해 앞으로 의사가 되겠지만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것도 꿈이라며 태권도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닐스태권도(Niles Taekwondo)에서 심운식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워 블랙벨트를 멘다는 심광원씨는 현재 초급대학과 정인 주니어칼리지(Junior College)에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니 태권도의 기술이 매우 다양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너무 멋져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태권도 시범 견학 외에도 다른 문화 유적지를 둘러 볼 예정이라며 특히 휴전선 방문이 기대된다며 분단된 현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 있을 서울올림픽개최등 세계적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며 국기원을 떠났다.



『태권남자』 제2호 발간

여성 태권도인들의 모인인 태권남자회에서는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는 크고 강하다'는 표어 아래 지난 3월에 『태권남자』 창간호를 낸데 이어 지난 6월 30일에 제 2호를 냈다.

태권남자회에서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통하여 국기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여성 태권도 발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며 계간으로 1년에 4차례 발간하는 『태권남자』에는 여성태권도인들의 모임과 회원 동향, 회원



제55기 지도자교육에 참가한 태권남자들.

주소록 등을 싣고 있는데 그동안 창간호는 서춘희 회장이 기증했고 제 2호는 서춘희, 박정옥, 양인옥 등 세사람이 심판활동비로 기증되었는데 『태권남자』의 편집부장으로 있는 양인옥(4단)씨는 여

성태권도 발전에 관심을 갖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여성 태권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며 여성태권도인들의 참여를 희망하며 『태권남자』에 각종 글을 보내 줄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협회

제3회 KBS배어린이태권왕대회 및 제7회 교육감기 대회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KBS창원방송총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교부 191명, 중등부 220명, 고등부 248명 등 총 659명이 출전했다.

■ 교육감기대회 단체성적

중등부 1위 : 울산대현중

2위 : 통영중

3위 : 밀성중

고등부 1위 : 경남체고

2위 : 남해상고

3위 : 진해중고

■ 어린이 태권왕대회 우승자명단

체급	성명	소속	체급	성명	소속
핀	김병대	김해합성국교	라이트급	황기호	진해중앙국교
플라이급	윤상호	마산산호국교	웰터급	조세용	통영산양국교
밴텀급	하덕실	남해국교	미들급	최진권	진주상미국교
페더급	김신영	마산구암국교	헤비급	서재호	마산상남국교

■ 교육감기대회 부별우승자명단

부별	소속	성명	체급	성명	소속	부별
중등부	한양중	양대성	핀	김정홍	경남체고	고등부
	구암중	이동현	플라이	장종원	''	
중등부	동진중	강용훈	밴텀	천일구	''	중등부
	마산서중	장현술	페더	조필규	''	
중등부	김해중	배정호	라이트	정충현	''	중등부
	통영중	조상용	L, 웰터			
고등부	대현중	박기채	웰터	남경일	경남체고	고등부
	''	손효봉	L, 미들			
고등부	합천중	유수명	미들	정주석	남해상고	고등부
	대현중	김진만	L, 헤비			
고등부	밀성고	김중우	헤비	이호근	경남체고	

각 시도 지부 소식

서울특별시협회

1.대회소식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7월13일부터 16일까지 국민원에서 제6회 서울 특별시장기쟁탈 초·중·고·대학대항전 겸 제68회 전국체전 서울대표선발전을 개최하였다.

초등부 164명, 중등부 315명, 고등부 299명, 대학부 24명, 일반부 58명 등 총 860명이 참가하여 열전을 치루었다.



■ 우승자 명단

체급	국교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권투급	이국일(쌍문)	이강철(한영)	권태성(성 동)	김철호(한체대)	이재만(오류체)
플라이급	최만용(쌍문)	김건일(동성)	하태경(서울체고)	인해진(한체대)	고정호(지하철)
밴텀급	강봉서(개포)	김성현(육정)	조영남(동 성)	정홍주(성 대)	오승재(삼 무)
페더급	조성익(광희)	오정석(한영)	김병갑(성 동)	하계수(한체대)	김용성(삼 무)
라이트급	정창호(한강)	박준영(한영)	장혁(서울체)	박해영(한체대)	박호삼(삼 무)
라이트웰터급		신성수(한영)			
웰터급	진준수(광희)	김용환(동성)	조광천(동 성)	박봉권(한체대)	임종길(지하철)
라이트미들급		고창현(신덕)			
미들급	김동현(보광)	정래욱(한영)	공두환(성 동)	조창현(성 대)	노옥상(신라체)
라이트헤비급		김진(동성)			
헤비급	김영호(한강)	원의선(경수)	최정근(인 덕)	김동욱(홍 대)	최종남(지하철)
단체 1 위	광희국교	한영중	성 동 고	한국체대	
2 위	한강국교	동성중	동 성 고	성균관대	
3 위	쌍문국교	경수중	서울체고	홍익대	

2. 장학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보현시장은 본 대회 입상선수 중에서 각부별 2명씩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장학금 수혜자 명단

부 별	지급자명	소 속	비 고
국교부	진준수	광희국교	각20만원
	김영호	한강국교	
중등부	신성수	한 영 중	각25만원
	김용환	동 성 중	
고등부	김병갑	성 동 고	각30만원
	조영남	동 성 고	
대학부	박해영	한국체대	각40만원
	조창현	"	



4. 수재의연금 기탁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엄운규회장의 임직원들은 수재의연금 1백 20만원을 모아 일간스포츠에 기탁했다.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5일 오후 5시 국기원에서 서울의 청산여자상업학교와 대만의 대북현립복영국민중학교와 여자친선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5. 한-중여자친선경기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초청한 대만복영국민중학교 여자태권도선수단 16명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두나라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통하여 여자태권도경기기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우정을 쌓았으며 친선경기를 마치고 엄운규회장이 마련한 만찬에 참가하여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으며 서울, 제주, 부산, 경주 등 관광명소를 두루 여행하고 8월 9일 홍콩을 거쳐 귀국했다.

3.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현황

회	수	실시일	응심인원	결격인원	합격인원
제 271 회승품	87.6.7	621	32	589	
제 272 회승품	6.21	1,682	99	1,583	
제 273 회승품	7.5	951	25	926	
제 274 회승품	7.19	1,179	83	1,096	
제 275 회승품	8.11	266	12	254	
제 137 회승단	6.14	694	87	607	

부산직할시험회

지난 6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부산구덕실내체육관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여 제22회 대통령하사기 쟁탈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가 성대

히 개최되었다.

국기원 1단(품) 이상자로서 각 부 참가팀 체급별로 1명씩 구성하여 출전해 대한태권도협회 경기 및 심판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전으로 토나멘트식 단체전 복합경기방식으로 진행되어 고등부가 59개 팀에 376명, 대학부가 15개팀 109명 일반부가 21개팀 122명이 참

가하여 4일간 열전을 벌인 결과 고등부에 동성고가 1위, 신탄진고가 2위, 부산체고가 3위, 서울체고는 감투, 송도상고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대학부에서는 한국체대 1위, 광주시험회 2위, 지하철광사 3위, 부산시험회 감투, 영도체육관이 장려상을 받아서 대회의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협회



전남협회의 임형언 회장이 입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1. 제9회 교육감기 쟁탈 초·중 학교 대항 및 제1회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광주 직할시와 분리후 약화된 선수층 보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등부를 신설, 87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의 시합을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광주직할시와 분리된 후 처음 가진 시합이라 참가 학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외로 초등부 17개팀, 중등부 27개팀, 고등부 27개팀이 참가 성대한 행사를 치루었다. 대회 결과 단체 입상은 다음과 같다.

2.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등 위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1 위	목포산정국민학교	여수중 학교	함평학다리고등학교
2 위	여수진남국민학교	별교삼광중학교	보성조성고등학교
3 위	여수봉산국민학교	해남화원중학교	고흥녹동고등학교
감 부 상	목포연동국민학교	목포청호중학교	나주 고 등 학 교
장 려 상	완도약산국민학교	무안해제중학교	장성농업고등학교 승주주암고등학교

심사일시	장 소	응시인원	합격자	불합격자
1월 26일	광주실내체육관	551	541	10
3월 22일	여수세관연무관	294	266	28
3월 30일	광주실내체육관	680	622	58
5월 31일	광주실내체육관	544	526	18
6월 28일	순천 고등학교	479	460	19
7월 28일	광주실내체육관	423	410	13
합	계	2971	2825	146

충청남도협회

1. 승품·단 심사대회

충남지구승품단 심사대회가 6

월 29일 1,2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 각종대회소식

일 시	대 회 명	장 소	참 가 인 원
6.19~21	제10회 회장기쟁탈태권도대회	충 무 체 육 관	923명
7.19~20	제68회 전국체전2차및최종선발전	"	129명
8.10~11	제17회 소년체육대회1차평가전	유성농업고등학교 체육관	117명

유고의 Je Kwon do

유고의 태권도 인들은 종주국인 한국을 찾기를 큰 소망으로 하고 있다. 한국을 다녀간 몇몇 사람들은 한국을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말하더라도 보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한국에 가보는 것을 기독교인이 성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고대하고 있다.



권패현 / 연합통신기자

국내에서 보다는 국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태권도가 공산권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에서는 팬암게임, 아 프리칸게임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갈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86 서울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월드컵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의 위치는 이제 우리고유의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의 스포츠로 성장했다.

그러나 동구공산권만은 최흥희씨가 주도하고있는 북한의 영향때문에 7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인 대공산권 스포츠교류를 펼치기 시작한 80년대초반부터 동구공산권에도 한국태권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국제적으로 최흥희씨가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압도하면서, 가장 먼저 동구공산권에 한국태권도가 심어진곳은 중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유고였다.

동구 공산권중 유일하게 LA 올림픽에 출전했던 유고가 한국의 대공산권 스포츠교류의 교두보역할을 맡았고, 그중 선두주자 역할을 한것이 태권도다.

지금은 유고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한국태권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있다.

1970년초 이태리의 박선재 사범이 뿌리를 내려 1975년 제 2회 세계 태권도선수권에 참가 등 활기를 피우다가 침체되었고, 이후 한국태권도가 유고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지난 8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권도보급을 하고있던 이광배씨(43세 공인 7단)가 오스트리아에서 태권도를 배운 유고인 제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습회를 시작함으로써 부티었다.

국내에서 후진들을 키우다가 지난 75년 오스트리아를 건너가 비인에 태권도장을 연 이광배씨는 인접국인 유고인들에게 한국태권도를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비인에 와 있는 유고인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지자 이씨는 유고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지역인 유고 크로더아 공화국에서 몇몇 여유있는 사람들을 비인으로 초청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들은 국내에 돌아가 보급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힘만으로는 태권도를 널리 퍼트리기가 힘들었던지 제자들은 이씨를 유고에 초청, 강습회를 갖기를 제안했다.

이씨는 한국과 유고가 국교가 없는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오스트리아로 귀화를 하고 유고에 들어가 보급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고에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 보급활동이 쉬운것 만은 아니었다.

이때까지만해도 아무 장애없이 태권도를 가르쳐오던 ITF 측이 기득권을 주장,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고 행동으로 이씨의 강습회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씨가 강습회를 하는 곳마다 나타나 간접적인 방해공작을 하는가 하면 베오그라드에서는 이씨가 타고가는 승용차를 부수는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하나 어려운것은 유고인들의 재정능력이었다. 당시까지만해도 개인소득이 그다지 높지않은 유고인들은 많지않은 수강료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 일반 근로자로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가



유고의 태권도 협회장 두 아들이 손님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우측이 이광배 사범)

하지 못했다.

강습회를 주최하는 것도 문제였다.

75년 비인으로 갈때 무일푼이었던 이광배씨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먹고 살만한 능력은 갖추었다고 하나 강습회를 유고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열만한 입장은 못됐고 대부분 교수, 의사, 예술가 등인 제자들도 돈을 모아 계속되는 강습회를 뒷바침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유고인들의 배우고자하는 열의는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태권도인의 수가 늘어가기 시작했고 각급학교 단체등에서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갔다.

■ 유고태권도의 현황

오늘날 유고에서는 태권도 경기를 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서점에는 웬만큼 큰곳이면 태권도에 관한 책이 있고 각급 학교에도 태권도부가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유고의 태권도 인구는 줄잡아 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6개 공화국중 수도 베오그라드가 있는 세르비아 공화국과 제2 도시인 자그레브가 속해있는 크로티아공화국에 많이 퍼져있다.

이밖에 북부 해안에 있는 슬로베니아 남부의 마케도니아 등에도 태권도 인구는 점차 늘어가고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크로티아공화국에는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유고전체 태권도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4천명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유고에는 연중 각종대회도 활발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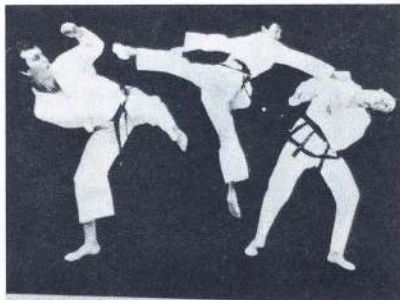
학생대회 일반대회등은 각지역 또는 학교별로 예선을 거쳐 공화국대회 전국대회등을 자주 치르고 있다.

여성태권도인구도 1~2천명에 이르러 여성대회도 자주열리고 있다.

그러나 유고태권도가 더 큰 활기를 찾는데 장애요소도 없지 않다.

큰장애요인은 유고 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각종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대회를 회원들의 성금 또는 회



유고에서 발간된 태권도 교본.

비로 충당하고 있다.

유고의 모든 규정은 과반수로 되어있다.

따라서 태권도가 유고올림픽위원회의 정식종목으로 가입하려면 6개공화국중 3개공화국이상의 지부가 결성돼야만 한다.

각공화국은 또 각공화국의 시도숫자 절반에 해당하는 지회를 가져야만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현재 유고에는 세르비아와 크로티아공화국에만 지부가 결성돼 있으나 나머지 1개공화국의 지부를 결성치못해 올림픽위원회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인들은 1천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슬로베니아를 대상으로 활발한 지부결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일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 ITF와의 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WTF와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최홍희가 주도하는 ITF간의 알력이 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심했었던 곳이 유고와 60년대말부터



필자와 유명석(한국경제신문) 기자, 이광배 사범 유고태권도 협회장, 라그레브 협회장과 유단자.

정치적인 입장을 이용, 이곳에 진출했던 ITF 측은 70년대까지만해도 큰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80년대 초반 WTF가 진출하자 자기네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WTF의 보급을 막는 방해공작을 펴는등 양면 작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점차 WTF의 세력이 커지면서 ITF는 수 세로 물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WTF 소속 선수와 ITF 소속 선수의 비율이 6대 4로 WTF 측이 우세해졌다.

이렇게되자 ITF 측은 WTF와 제휴를 주장, 지난 85년에 양단체가 통합된 유고태권도협회를 구성했다.

WTF는 크로치아공화국 회장을 맡고있던 크라판 씨를 회장으로 추천,유고통합회장직에 당선됨으로서 유고태권도는 WTF가 완전히 장악하게됐다.

또 크라판씨는 니콜라스페츠코씨에게 크로티아공화국 회장직을 물려주어 가장 태권도가 융성한 크로티아 공화국까지도 WTF가 주도하게됐다.

이들은 지난 7월의 자그레브 유니버시아드에도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넣기위해 노력했으나 유고올림픽위원회 가입종목이 아니어서 실패로 돌아갔고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태권도 시범경기를 하기로 주최측과 합의했으나 한국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재정적부담을 감수하기가 어려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태권도에 대한 교본을 발간하고 잡지를 만들어 한국태권도의 뿌리를 굳히는데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있다.

■ 자신을 한국인 2세로 지칭

유고의 태권도인들을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외국에서 동포를 만난듯 반가와하고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84년 사리에보 동계올림픽때 이광배씨와 함께 한국선수단의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은 이번 유니버시아드 때도 물론 심지직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운동장 회의석상에서 한국인을 만날때마다

자신은 태권도를 하는 한국인 2세라고 부를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고, 한국선수단을 방문 도울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다.

그들은 시내에 자동차와 간단한 한국 음식을 마련해놓고 한국선수나 인원들을 초청 한국식당이 없는 이곳에서 밥 고추장 등 한국식사를 대접했다.

또 이들은 한국팀의 경기가 있을때면 직장일을 접어두고 단채로 운동장에 나와 태극기를 걸어놓고 열성적인 응원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유고와 한국의 축구경기때도 나와 한국을 응원, 내용을 잘 모르는 한국선수단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생활 주거생활도 한국식으로 하기를 좋아한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들의 집에는 항상 약간의 쌀과 고추장 김치마늘 등이 있어 이들은 입맛이 없거나 한국생각이 날때면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이들의 집에는 옛신라시대 태권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집집마다 걸려있고 태극기와 민속음악을 담은 테이프 등도 마련해놓고 있었다.

지난 85년 한국에서 열린 제 7회 세계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은 항상 당시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한국음악을 듣는다고 한다.

유고회장인 크라판씨는 한국의 민요를 듣고 있으면 옛날 몽고, 터키, 독일 등으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은 유고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비슷해 현재국임을 느끼게 되고 유고의 민요도 느릿하더라도 애잔

제 8 회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협의차 귀국한 이광배 사범

이광배 사범은 지난 8월 18일 제 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참가 및 88 서울올림픽 참가협의차 귀국해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3일 출국했다.

유고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온 이광배사범은 유고에는 현재 6천여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있고 이중 4천여명이 이광배사범이 운영하는 체인(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이광배씨는 유고태권도 보급에 앞서 오스트리아에서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는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약 200만 인구의 도시로 이중 1000여

만 가락이 한국민요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유고인들

유고의 태권도인들은 중주국인 한국을 찾기를 큰 소망으로 하고있다.

한국을 나년간 몇몇 사람들은 말할 것도없고 한국을 지도에서만 보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한국에 가보는 것을 기독교인이 성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고대하고 있다.

이들은 막연히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한국인들은 친절한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자신들은 언젠가는 그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교가 없는 한국과 유고가 하루빨리 국교가 이루어져 서로 부담없이 왕래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그런점에서 태권도를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양국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스포츠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태권도가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있다.

유고의 태권도인들은 지난 유니버시아드 기간중에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김운용씨가 유고를 방문할 것으로 알고 접대준비를 했다가 막상 오지못한다는 말을 듣자 서운했다. 내년 서울올림픽에는 꼭 참가할수 있기를 고대했다.

그들은 서울올림픽 시범경기에 참가할 수만 있다면 무슨방법을 써서라도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했다.

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10 여개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 한인태권도 사범회 회장겸 재오스트리아 한인 골프회 회장이기도한 이광배사범은 오는 10월 17일 저녁 8시에 전 유럽에 동시에 중계되는 라이프쇼에 출연, 30분간 태권도 시범을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는 오스트리아, 유고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광배 사범은 이번 귀국을 통해 해외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한국인 사범들이 외국인 수련생들을 데리고 중주국을 찾아 전지훈련을 왔을때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번듯한 수련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전교생 평균 95점이라는 기적 창출

수원 신풍국민학교



이치영 교장

솜대문이 웅장하게 교문을 대
신하고 있는 학교 교정에 들어서
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한 교사가
눈에 들어오고 팔달산의 신록이
학교를 두르고 있다.

1896년 2월 10일 한국학교령 제
1호에 의거해 개교한 이래 올해로
개교 91주년을 맞는 신풍국민학
교는 서울의 교동, 광주 중앙, 부
산의 부산진, 개성의 만월 국민학
교와 함께 국민학교사상 가장 오
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개교 90주년 기념탑

신풍국민학교는 깨끗한 학교,
실력있는 학생, 책임있는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는 학교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의 꿈이 아
니라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
는 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풍국민학교를 취재한 기자의 소
감이라면 너무나 속단이라고 할
까.

신풍국민학교는 학력향상, 국
민 정신교양강화, 학도애향대 활
동강화,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
체육교육의 강화, 사도상의 확립
등의 역점 사업을 통해 교육적 효
과를 높이고 있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체육교육의 강화인데
이를 위해 신풍국민학교에서는
4, 5, 6학년 전원에 태권도(국방
체육) 교육을 일주일에 두시간씩
정규시간에 배당해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태권도 교육의 목표를 우리나라
의 고유 민속무예임을 깨닫게 함
으로써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나라
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육성하고
건강하며 끈기있고 강인한 어린이
로 자라게 하는 강인한 정신력은
물론 집단 질서훈련을 통하여 협
동정신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과
목요일 6째시간인 3시10분부터 4
시10분까지 1시간동안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기말파
다 승급시험을 보아 4학년 때에는
5급에서 1품, 5학년 때는 1품에서
2품, 6학년 졸업시에는 전교생이
유품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태권도 수련시간에는 각 학급

『교사는 청빈속에 살고 고난속에 안주하다』라는 신념으로 교육계에 봉사해온 이치영 교장은 『뭔가 보여주는 교장선생님』으로 통하고 있다.

담임선생님들이 나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치영교장도 운동장을 돌며, 구령대 위에서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는 안영고 사범의 구령소리에 어린이들의 우렁찬 기합소리와 절도있고 힘찬 태권동작을 호숫하게 바라보곤 한다.

40년간 교직에 몸 담았던 이치영교장(63세)은 이 학교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뭔가 보여주는 교장선생님」으로 통하고 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자신감과 함께 한껏 날개를 펼친 격이라 고 할까.

「교사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안주하다」라는 신념으로 교육계에 봉사해 오는 동안 도내 교육장 및 연구원으로 교육행정에 이바지해 왔는데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86년도에 신중국민학교로 부임한 이래 많은 업적을 쌓아 왔다.

그 중에서도 국방체육으로 태권도를 수련시키며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며 완전학습이론을 도입해 86년도 1학기부터 계속해 평균 95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로 경기도 교육감 학교고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교육계에 경이로운 기록을 창출해 내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2천여명에 이르는 데 이들이 전체 평균 95점에 이른다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이치영 교장은 직접 도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온 시험결과표를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학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신중국민학교의 교육방침은 학년별 기초학력을 정착시키며 전체가 높은 학력을 상향적으로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년별 실태 분석을 통한 학력향상을 계획하고 교과별 특징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적용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성취목표를 부여하며 학습의욕을 유발시키는 능력별 과제학습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아래 기초 학력평가, 월말 총괄평가, 실기 기능평가, 형성 평가, 평준화 학력평가 등, 교과별 교수학습과정에 의거해 전 학생이 평균적으로 학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단원 학습 종료시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숙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낸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율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협동학습시간을 통해 배운 것을 모르는 어린이가 없도록 모르는 것은 꼭 물어보도록 한다.

다. 이를 다시 단원별로 기초학력을 평가해 학습 부진아에 한해서는 보충학습반을 조직해 가르침으로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매주마다 학습일지에 학습목표 도달도를 측정해 가며 총괄평가를 월별로 실시함으로써 월말고사 때는 각 학년 학급별로 학업성취도를 90% 이상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월말고사는 1년에 10번을 받게 되는데 이중 평균 95점 이상을 5번이상 해야만 연말에 우등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제약이 따른다. 즉 월말고사에서 평균 95점을 받은 달이라도 그 중 한과목이라도 90점이하가 있으면 그달은 우등상 후보에서 제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과목에 걸쳐 평균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은 연말에 우등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다. 즉 신중국민학교에서는 4, 5, 6학년 전교생이 수련하는 태권도 교육의에도 특별활동으로 태권도부, 밴드부, 가야금부, 합창부, 영어회화부등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에 들어가 특별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공부만한다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전인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태권도부에는 현재 156명의 우등생 후보자들이 매일 1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태권도부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과 배려는 학교강당의 도장화라는 것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올 여름에는 태권도



**체육교육의 강화로 4,5,6학년 전원에게 태권도
(국방체육) 교육을 일주일에 두시간씩 실시해 건강한
어린이, 심신을 가다듬는 어린이를 키우는 신평국민학교.**

부원들의 안전한 수련을 위해 마루를 깎다고 한다.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면 주먹은 함부로 쓰지 않고, 주먹만 쓸 줄 알면 불량배가 된다」는 이치영 교장은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의 무도정신을 강조했다. 그래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안영고(수원 서부체육관 관장) 사범은 무엇보다도 무도정신을 가르치며 태권도 수련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극기심을 키우며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태권도 수련 후 아이들



안영고 지도사범

의 행동거지가 의연해 졌음은 물론 기백이 넘쳐 흘러 이 나라의 주역으로서 내놓아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노교장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있기까지는 존경받는 스승, 신뢰받는 선도자로서 교육 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교사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훌륭한 교장 밑에 교사가 뜻을 함께 하며 이를 후원해주는 학부모들의 열기는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값진 따미며 투자라고 본다. 실력 있는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심신을 가다듬는 어린이들이 더욱 더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다고 본다.

도봉산의 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란다

도봉유린원

내일의 기둥인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하여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도봉산 입구에 3천5백여평의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도봉유린원(道峰有隣園)은 불우 어린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기관으로 100(1987년 6월현재)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다.

100명의 원생 중에는 남자 73명, 여자 27명이 국민학교(45명), 중학교(25명), 고등학교(5명)에 다니고 있으며 미취학 어린이는 1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유린원을 떠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 18세 까지만 보호하기 때문) 가장 고참인 형이 경희대학 우주과학과 1년에 재학하고 있다.



이영철 원장과 지도사범.

그들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먼저 남부터 사랑 하는 마음을 키우고 홀로 살아갈 의지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봉유린원의 원훈(園訓)은 「사랑·정직·

자립」이다.

도봉유린원은 요즘 태권도 수련으로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활기찬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4월초 김명순 사범의(배상여상코치)지도로 시작되었는데 요즘은 어린이들이 간단한 품세를 익혀가고 있고 승단심사도 붙 예정으로 기대에 차있다.

도봉유린원의 이영철 원장은 「건강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증진은 물론 원생들이 고아라는 현실때문에 좌절하기 쉬운데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체력연마와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을 지도하는 김명순 사범은 원생들에게 태권도를 통하여 극기심, 인내심을 기르고 강인한 정신력 및 체력으로 사회생활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태권도는 도복 하나만 입고 꾸준히 노력하면 장차 태권도 지도자의 길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지도하고 보급하는 일꾼으로서도 한 몫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진로문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곳 어린이들은 태권도 수련 후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어린이들의 얼굴도 밝고 건강해졌으며 예의범절이 좋아져 무척 기쁘다는 것이 이영철 원장의 소감이다.

도봉산에 울창한 나무들의 싱그러움과 맑은 공기, 넓은 운동장, 주위의 따뜻한 손길들이 원생들의 마음에 닿을 때 이들은 그들이 매일 바라보는 도봉산의 나무들처럼 싱싱하게 자라갈 것이라고 본다.

운동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어린이들.



태권도의 바람직한 풍토조성에 역점

덕원 중·여자고등학교



최양식 교장



학교를 들어서면 꽃길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울창한 수명산의 푸른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앞에는 김포공항을 잇는 초록 들녘이 펼쳐진 덕원 중·여자고등학교의 첫 인상은 공부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과 종이 쪽지 하나 떨어지지 않은 깨끗함이다.

수명산 중턱에 터를 닦아 1979년에 개교한 이래 그동안 6회 졸업생을 배출한 덕원 중·여자고등학교는 「최고의 이상, 최대의 노력, 최저의 생활」이라는 덕암 김현진 이사장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성실 근검한 생활로 자주 자립하는 의지를 기르고 끈기있는 창의적 노력으로 자기발전을 이룩하여 항상 나라와 겨레에 봉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천해 오고 있다.

덕원 중·여자고등학교의 태권도부의 활동은 현재 태권도부 사범이며 체육교사인 운동섭 선생이 83년도에 부임한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취미 서클로 겨우 명맥을 이어오다 올 해부터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0명 등 50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 중 선수로 뛰는 학생은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3~4명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체력연마나 정신력 배양 등을 목표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넓은 강당에서 매일 방과 후 태권도 수련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누나 동생처럼 다정한 사이로 학교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는데도

일조를 겸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태권도부원은 대부분 전국대회의 입상경력은 없으나 서울시 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에서는 김지용선수(중3)가 월타급 1위, 박준형선수(중3)가 플라이급 3위를 차지하며 서서히 덕원의 이름을 태권도계에 내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전인 교육의 실천, 면학하는 학원분위기 조성, 사명감 있는 교사상의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는 최양식 교장은 태권도가 건강증진과 극기심 고양에 좋아 앞으로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덕원 중·여고에는 기존의 육성 종목으로 펜싱이 있는데다가 태권도를 다시 육성하려니 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태권도부원들만이 태권도 수련에 임해왔다.

심우직 중학교 교장과 이강복 여고교장도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으로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꾀하고 극기심을 길러 전인교육에 힘쓰고 싶으나 아직 현실적인 실시 방안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심우직 교장

은 요즘 학생들이 특정체육을 연마해 대회에 나가 입상함으로써 진학의 수단으로 삼는 체육 기능인으로서의 전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권도부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이 기술을 익히고 대회에 나가 전적을 보유함으로써 공부할 하지 않고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길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면 태권도의 장애나 학생들의 앞날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간교육은 무엇보다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덕원 학교장과 교감의 뜻이다. 즉 덕원 중·여고에서는 전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수련하여 지덕체를 조화시키는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공부보다 특기를 앞세우는 현재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어

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교생이 태권도를 정신수련과 체력연마의 일환으로 수련하게 되면 그 중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대회 등에 나아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겨루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강복 여고 교감도 요즘 학생들은 영양섭취 등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나 겉모습만 좋아졌지 힘이 없고 정신력 또한 약한 것이 눈에 뜨인다고 걱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덕원관 수련으로 극기심을 배양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며 매일 매일 극기심을 키워 장차 강건한 이 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극기 태권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활활동 등을 통해 태권도 수련의 폭을 넓히고 여건이 성숙되면 전교생에게 실시하겠다고 한다.

운동섭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사범은 태권도부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여 바람직한 인간교육 실천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그동안 태권도부원들과 함께 태권도의 바람직한 풍토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태권도선수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수업시작전까지 체력단련 및 품새연습을 사하고 수업을 마치고 1시간씩 태권도 수련을 한다고 한다. 물론 취미로 하는 학생들은 방과후에 선수들과 함께 체력단련 및 기본 품새를 익힌다.

운동섭선생은 7월 18, 19, 20일 3일간 덕원중·여고 전학년이 참가하는 덕원야영수련대회에서 태권도부가 시범을 보일 것이라며 전교생에게 태권도의 면모를 보여 주고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탐방울을 쏟고 있다.



덕원중·여고의 태권도부원과 운동섭 체육교사겸 지도교사.

발전의 시금석 마련

송곡고등학교



윤경준 교장

교문을 들어서면 아직도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듯 정비되지 않은 교사(校舍)이나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발전의 시금석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송곡고등학교는 1965년 이사장 왕학수씨에 의해 왕신실업전수학교에서 출발하여 1966년에 성동상업전수학교가 문을 열었고 초대 교장 왕표순 선생이 사임하고 이인해 교장이 2대교장으로 취임하면서 고등학교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을 쌓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1975년, 76년, 77년도에 대통령하사기쟁탈전에서 3연패의

학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태권도 교육이 강화되는 반면 송곡고는 옛날의 명성에 따라가지 못한 대회성적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다.

영광을 차지하며 태권도 명문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1983년도에는 성동상업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그 해에 다시 대통령기 대회에서 패권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몇차례의 변신을 거듭한 끝에 1986년도에 현재의 망우동 교사로 신축이동하면서 송곡고등학교로 승격인가되어 명실공히 고등교육의 주역으로서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

송곡고등학교의 윤경준 교장은 나라가 있고야 내가 있고 학문도 있다는 「나라사랑」, 생활의 근본은 효와 예에 있다는 「효행·예절」, 검소한 생활은 잘사는 길이



이인해 이사장



박봉헌 체육주임

라는 「근검절약」, 더 큰 힘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공동체의식」, 성공의 길은 참고 견디는데 있다는 「인내」 정신을 송곡인의 좌표로 세워 이를 교육이념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이의 실천을 우선 체육시간을 통한 태권도 수련으로 닦아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태권도는 송곡인들에게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기(國技)로써 극기심과 인내심을 고양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정신건강과 체력연마를 통해 건강한 미래의 주역을 가꾸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학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태권도교육이 강화되는 반면 송곡고는 옛날의 명성에 따라가지 못한 대회성적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다.



태권도 부원들과 이재봉, 최광근 지도교사.

태권도 부원들은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태권도
수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기대회에서는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병기선수가 미들급 우승과 장주동 선수가 웰터급 2위를 차지하는 저조한 성적으로 이인해 이사장과 윤경준 교장 등이 직접 경기장까지 와 격려해 준 보람도 없이 돌아온 것이 안타깝다고 이재봉사범(체육교사)은 털어놓으며 태권도부원 모두가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잇겠다고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 한다, 나도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태권도 수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교장은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저변확대되고 기술이 향상되어 예전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치열한 경쟁인데다가 학교발전의 과도기에서 태권도 명문고등학교들보다 선수유치가 쉽지 않아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들 자신이 필승을 각오로 꾸준한 수련을 통

한 정신력 배양이 우선된다면 반드시 멀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봉현 체육주임은 체육시간에 1시간씩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 이래 학생들 대부분이 예의범절이 바르고 질서의식이 좋아 학생지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모범적이라며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더불어 태권도대회시에 경기장에 나가 보면 「계입에 이기고 승부에 지는」 경우를 보았다며 학생들에게 불신 풍조를 심어주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안타까운 때가 있었다며 시험에서의 공정한 심판제도가 하루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곡고등학교 태권도부에는 1학년 7명, 2학년 5명, 3학년 18명 등 총 30명이 학교 선배로 대통령기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던 이재봉 사범과 최광근 사범이 함께 아침 일찍 새벽공기를 가르며 워밍업으로부터 스트레칭, 씨어킷트, 허들, 트래핑기, 피칭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방과 후에는 전문 실기 수련 등을 통한 기술개발로 태권도 정상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송곡고등학교는 1970년도에 태권도부를 창단한 이래 정진영, 남상덕으로 이어지는 지도 교사에 의해 154명의 태권도 선수를 배출했고 국가대표 선수만도 8명을 배출했으며 현 국가대표로는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유명식 선수가 밴텀급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많은 선배들이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며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태권도는 국적있는 교육의 실현에 가장 큰 역할

연대한국어학당 재외교포 여름학교

연대 한국어학당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재외교포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5주 및 10주 프로그램별로 각국의 교포들을 위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쳐 민족의 뿌리를 찾는 과정을 실시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학교에 참가한 각국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특별활동으로 개설된 장고, 단소, 서예, 수영, 테니스, 도자기 공예, 민속춤·가면극, YMCA Camp(한국대학생과 함께) 및 태권도 수련에 자유로 수강을 신청해 다양하게 한국문물을 접하면서 짧은 일정을 뜻있게 보냈다.

이들은 또한 경복궁, 국립박물관, 국회의사당, 용인민속촌, 문예회관, 올림픽스타디움, 비무장지대, 미술전시회를 관람하고 경주와 부여, 해인사, 경주의 각종 역사유물·유적지, 부산의 용두산공원, 수산시장, 태종대, 해운대 등을 관광하며 조국의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체험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자랑스러움과 긍지로 희망찬 조국의 미래상을 가슴에 그리며 떠났다.

한편 여름학교 수강생 중 특별활동에 개설된 태권도 수련에는 22명이 수강을 신청해 평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실기와 이론을 배웠다.

태권도는 수련 일정표에 따라 띠매기, 수련자 태도, 신체이완

운동, 도복 개는 법 등 기초에서부터 주춤서기, 주먹치르기를 배우고 이어 기본동작수련으로 들어가 밟기, 발차기, 뺨어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짝어차기와 기본 폼새, 약속 겨루기, 목상 등을 수련해 8월 8일에는 국기원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승급심사에서 전체가 8급 심사를 받았다.

이들을 지도한 김영선 사범(연대 대학원 체육학과·본회편집분과위원회 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로서 태권도를 인식하고 있어 수강생들 모두가 한국을 알고자하는 열의로써 태권도를 배우기 때문에 더욱더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배우고 있다」며 또한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수강생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태권도 수련으로 넓히는 재외교포학생들.

수강생들에게는 태권도 수련시 대부분 우리말로 지도했으나 매주 토요일 태권도 이론강의를 통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된 교재를 통하여 태권도의 역사, 태권도의 개념 및 철학, 경기규칙 등을 지도했다고 한다.

조지타운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임스 김은 국제정치 중에서도 아시아 정치,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정치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대화할 수 있는 전공서적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학교에 나와 한국말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정치학도답게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는 견해도 날카로왔는데 국가의 발전은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민주적으로 발달해야 된다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았으며 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친구들이 대부분 현대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발전상이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몇년동안 계속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왔다는 제임스 김은 워싱턴에서 국제금융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 「지금 그 이야기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왔다는 길미라(24세)양은 6살 때 한국인 부모가 이민을 간 이래 처음으로 조국을 찾았으며 감회에 젖었다.

캐나다에서는 태권도 하면 한국을 연상할 정도로 태권도가 유명하다며 외국인들은 한국은 몰라도 태권도는 알았다고 전해 주었다. 최근엔 '88서울올림픽이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만큼 태권도가 외국인들에게는 유명했다고 한다. 태권도에 한국을 떠올리는 것으로는 올림픽, 김치, 현대자동차, 데모 등이라고 한다.



제임스 김-조지타운대학 국제정치학 전공.

대학에서 풋볼, 럭비, 수영,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는 길미라양은 태권도의 그 「유명함」 때문에 중주국인 조국에서 배우고 싶었다고 말하며 태권도 수련이 그렇게 신날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비오던 날 연대캠퍼스를 달리며 태권도 수련에 임하던 날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했다.

캐나다의 토론토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길미라양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부친 길창세씨 등 가족과 한국교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말을 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여름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태권도 수련생 모두는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재외교포2세들로 그들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의



황조란-인디애나대학 바이올린 전공.

와 기대로 조국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태권도는 국적있는 교육의 실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한 국기원을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고 서울 근교의 산사(山寺)에서 태권도를 수련함은 물론 설악산에서의 야외수련은 호연지기를 길러주는데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한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황조란(19세)양은 현재 인디애나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이 3번째로 여름학교에 나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가라데 유단자라는 황양은 청순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태권도 수련도중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상기된 모습에 땀까지 흘러내려 심신한 젊은 나타내 보였는데 심신단련에 좋아 태권도를 시작했다며 태권도는 힘들지만 배우수록 흥미있다고 활짝 웃었다.

이번 태권도 수련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참가했다고 사버범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제임스 김(JAMES KIM)은 운동경극기 훈련과 이해하기 위해 태권도를 하게 되었다고 수련동기를 밝히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태권도를 하겠다고 했다.

“사범의 투철한 교육적 사명감 중요” 월곡체육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초대된 체육계 인사들과 송봉섭 관장(우측 2 번째).

태권도 수련이 전국의 어느 도장이든지 체계적인 프로그램하에서 특색을 살려 효과적인 태권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



장승원 사범

월곡체육관은 1967년 6월 30일에 개관한 이래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난 6월 30일 엄운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태권도 관계자 및 학부모, 수련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20여년 동안 배출된 유단자만 도 오천여명에 이르며 만여명이

넘게 월곡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며 거쳐 나갔다. 초창기에 태권도를 배운 제자들은 이미 일선 도장에서 지도자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7,8명은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되어 세월의 유수함을 알려주기도 한다.

무실(務實), 신성(信誠), 정의(正義)를 관훈으로 월곡체육관의 송봉섭 관장(8단)은 첫째, 정의로서 대도(大道)를 수호하자. 둘째, 수도(修道)로서 인격을 도야(陶冶)하자. 셋째, 예의와 신의로서 단결하자는 지도방침으로 태권도의 정신수련과 체력연마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월곡체육관에는 150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이중 성인부에 20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어 성인 태권도 보급에도 적극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송관장은 예년과 비슷한 인원이 매달 수련하고 있으나 요즘에는 각종 예체능 교육에 대한 붐으로 인해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년간에 걸친 태권도 수련으로 정신력을 기르고 신체수련을 하던 것에 비해 보통 1품이나 2품 정도만 따면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3품이상 수련자가 극히 적은 것이 종전과 다른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월곡체육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유치부 어린이 교육에는 태권도 수련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유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태권도를 통한 정신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서발달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길러 주고 있다.



태권도를 수련하러 오는 동기는 보통 체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태권도 수련을 통한 성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한다.

태권도 수련후 이들의 교육적 효과는 눈에 띄일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뿐만 아니라 용기, 인내력, 끈기, 극기, 바른자세, 예의와 정의감 등을 키워나간다고 한다. 특히 태권도 수련에 의해 강인한 정신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체력면보다도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관장은

우선 시설의 미비함과 사범의 부족한 교육적 사명감을 들었는데 월곡체육관에서는 50여명의 도장에 각종 헬스기구와 샤워실을 마련하고 있다. 태권도가 계속 발전되고 도장 운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권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바르게 심어주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홍보 및 다양한 행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게 되면 자연히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송관장은 앞으로는 태권도 수련이 전국의 어느 도장이든지 체계적인 프로그램하에서 특색을 살려 효과적인 태권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프로그램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곡체육관의 송봉섭관장은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제62회부터 67회까지 전국체전에서 서울시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해 6연승을 거둔 바 있으며 서울시 대표선수단 해외원정경기 감독으로 홍콩, 대만, 마카오, 태국 등을 방문 태권도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5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월드컵대회 파견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일해오는 동안 체육부장관 표창, 세계태권도연맹총재 표창 등 각종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같이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中庸을 지켜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그 중용은 하나에서 열까지의 중간인 다섯, 즉 양끝의 한 가운데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쓰여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中은 곧 正이며, 庸은 찜찜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바른일로, 中庸은 찾아내거나 만들기 어려운 가장 바른 길로서 「날이 잘 선 칼날위에 서는 것보다 어렵다」고 옛 성현들은 해석을 하였다.

또한 「適當」이라는 표현도 비슷하다. 「어떤 성질, 상태, 요구따위에 꼭 알맞음」의 「적당」이라는 말이 사회전반에서 “대강대강 얼버무리 넘어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대인관계에서 비리를 조작하거나 눈감아 주는 듯 한 것에 쓰여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中庸과 適當은 동질의 성격으로 두 말이 바르게 쓰여지는 사회가 바른 사회이리라.

우리들 태권도계는 어떠한가?

「중용」과 「적당」이란 말이 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태권도 사회는 무도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수직적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예의를 중시하며 「上命下達」이 당연시 되었고, 「下意上達」을 꾀하는 경우는 다소 어려운 경직된 상태가 당연한 듯 되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규인 / 본회 홍보실장

생각해 봅시다.

대화가 없이 下達이 성행하며, 토론이나 타협보다는 한쪽은 언제나 이겨야 하고, 한쪽은 언제나 져야 하는,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등의 획일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下意가 수용되지 못하는 경직성이 생활에 배여있지 않은지—

선배를 존경하고 그에 대응하는 예우를 하고 예의를 지키는 무도인의 사회가 아니라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더불어 공적적인 일에 있어 「公과私」를 분명히 하며, 대화로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포용적인 마음가지가 바른 발전을 기약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겸양의 정도가 지나쳐서 무조건 맹종하는 경우는 없는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용한게 좋으며,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축출될 작오가 있어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긴박감 속에서, 자기주장이 곧 항명(抗命)으로 착각하며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는 않는지—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지」하고 자위하는 경우는 의견상으로는 의젓한(?) 자세로 양보하는 듯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은 권리포기요, 양보 아닌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변명이라 볼 수 있다.

「양보」란 강자가 약자에게 배푸는 것이며 감른올 박 따질 자신이 없어서 마지못해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며, 양보라는 이름의 미화된 패배이다.

바른사회에서 민주화된 집단으로 성장하려면, 여러가지 의견들이 토론을 거쳐서 잘된된 소재는 바로잡

고, 분명히 하여야 바른집단 바른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다는 자기를 반대하는 쪽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윌터프리먼(미국 타임즈 창시자)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지자는 권력을 가진사람을 충동질해서 무모한 일을 하도록 하지만, 반대자는 자기앞에 어떤 애로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반대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역설하였다.

이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각종 의견이 분출되는 자유분방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너무 성급한 생각으로 경거망동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자세를 가다듬고 각자 스스로의 위치에서 받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며, 주위를 냉철히 살펴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체육관에서는 관장과 사범의 관계, 사범과 수련생의 관계, 경기장에서 심판과 코치의 관계, 코치와 선수의 관계, 코치와 학부모, 심판과의 관계등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와 토론으로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모두 생각해 봅시다.

수직적인 「上命下達」의 일사불란함보다는 「下意上達」로 모두가 하나가 됨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태권도 연구논문 요약소개

- 최근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을 위해 각 대학에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에 발표된 5 편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여 태권도 관계 지도자 및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성화를 고취하며 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리라 기대한다.

이곳에 소개된 논문은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를 고찰함으로써 태권도의 스포츠화에 대한 학문적 이론 바탕과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김영선(연대 대학원 체육학과)씨의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적 성격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격과 체력에 관한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태권도선수의 체력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처방의 자료를 삼는데 그 연구목적을 둔 고영철(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씨의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비교연구』, 태권도 경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짧은 순간에 선제공격 및 역습공격에 득점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뒷차기를 분석한 윤동섭(성대 대학원 체육학과)씨의 『태권도 뒷차기의 운동학적 분석』,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급격한 변화과정과 경기 태권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한 양진방(서울대 대학원 체육교육과)씨의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가 경기 태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있다. 또한 태권도에서 기술동작의 운동부하후 선수에게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있는지를 단위 기술동작별 체급별로 비교 분석하여 태권도 훈련방법의 과학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강희택(연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의 『운동부하후 심박수, 혈압, 피부온도 및 피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이다.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영선/연대 대학원 체육학과

본 논문은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를 고찰하여 태권도의 스포츠화에 대한 학문적 이론 바탕과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태권도 경기를 의미하는 스포츠적 전개가 1960년대 초반에 출발한 이래 오늘날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 각지역, 대륙별 경기등, 세계규모대회가 빈번히 개최되어 마침내 '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시범 경기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고 있는 시점으로 태권도 경기는 '태권도의 세계 스포츠화'라는 이념 아래 세계 스포츠 사회에서 점점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의미는 간과되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성이 야기하는 문제점만이 분분히 거론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이유중의 하나를 태권도의 스포츠성을 규명한 학문적 연구의 부재로 들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적 성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구하는 절차로서 스포츠와 태권도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한 다음, 태권도의 스포츠적 성격의 핵심을 모색하고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스포츠적 유형, 요소,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적 요소는 태권도 제반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스포츠적인 점들을 통해 이들로 부터 수련자, 구성면, 정신면, 기술면, 행정조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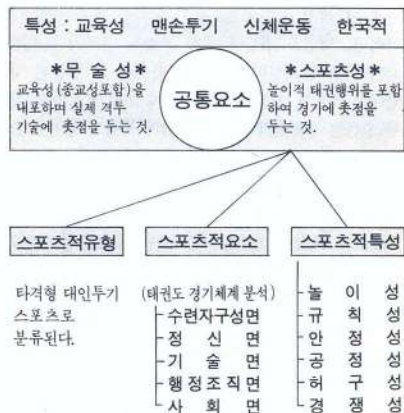
사회면에서 무술과 대비되는 스포츠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태권도 영역에서 대비되는 무술성은 교육성(종교성 포함)을 내포하며 실제 격투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스포츠성의 핵심은 놀이적 태권행위를 포함하여 경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스포츠성의 핵심 개념을 근거로 하여 태권도는 특정한 무기(용구)를 갖지 않고 손과 발 등의 맨몸으로 겨루는 형식을 지닌 맨손 투기 스포츠로 분류되며 기술형식에 따라 세분하면, 주먹이나 발로 상대의 특정부위를 치고, 차고, 지르는 방식으로 승패를 가름하는 형태로서 권투, 가라데와 더불어 타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 성격을 형성케하는 특성으로서 놀이성, 규칙성, 안전성, 공정성, 허구성, 경쟁성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은 태권도가 지닌 무술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심각성, 비규칙성, 위험성, 비공정성, 실체성, 투쟁성과 각각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모형으로 간추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태 권 도 개 념



태권도 스포츠적 성격 분석 모형.

태권도 뒷차기의 운동학적 분석

운동섭/성대 대학원 체육학과

태권도에 있어서 정확한 공격이란 발과 주먹으로 인체에 주어진 공격부위에 태권도의 기본에 준한 바른 자세로 공격하여 상대가 충격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태권도는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운동으로서 주먹보다는 발차기를 주요 공격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발차기는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적절한 타이밍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더 발전되고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지켜 나가려면, 태권도 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지에서 이 논문은 시합에서 태권도 기술 중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 짧은 순간에 선제공격 및 역습공격에 특점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뒷차기로 몸통공격하는 기술을 운동학적인 요인 중 시간과 거리 및 속도를 분석하여 각 선수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선수경력이 10년 이상인 국가대표 체급별 1, 2 위 4명(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의 뒷차기를 고속촬영(200 frame/sec)하였는데 그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회반응 시간(機會反應時間)은 0.1515~0.1818 sec로 나타났으므로 기회반응에 대한 훈련을 하여 반응시간을 단축한다면 뒷차기 공격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② 뒷차기 전체시간은 0.5556~0.7323 sec로 낮

으나 가장 높은 「L.N.R」이 빠르게 나타난 선수보다 약 0.2 sec 뒤진 것은 180도 회전 중 차기발이 지기(支技)발무릎에서 크게 이탈하여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이므로 뒷차기시 지기발 무릎을 스쳐 회전반경을 적게하는 것이 뒷차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③ 준비자세시 보폭의 크기는 약 42~73 cm로 안정되게 나타났다.

④ 지기발의 이동거리는 1.357~24.927 cm로 나타났다으며 「L.J.S」의 이동거리는 1.357 cm로 거의 이동이 없이 제자리 발아차기 상태이고, 「C.Y.D」는 목표물을 24.927 cm 따라가서 길게 차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뒷차기시 타격순간의 속도가 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L.S」와 「H.J」이 6.6 m/sec와 8.8 m/sec로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목표물을 정확히 차려는 심적인 부담과 거리 조정력(調整力)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비교연구

— 국가 대표팀 및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

고영철/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현대 스포츠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경기력 향상은 체력증진과 과학적훈련방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특성을 파악하여 각 요소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대학 우수선수의 체격 및 체력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알

아보고 태권도 선수의 체력육성을 위한 운동 처방의 자료를 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격과 체력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태권도에 있어서 경기력은 체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체격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기력이 우수하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체격적인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더라도 체력, 정신력, 기술이 뛰어난 경우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격이외의 면이 동등하다면 훌륭한 체격조건을 갖춘자가 보다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대학 우수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대표 각체급별 5명씩과 대학우수선수 6체급 7명씩에게 체격(신장, 체중, 좌고(坐高), 흉위, 상지장(上肢長), 하지장(下肢長)과 체력(배근력(背筋力), 각력(脚力), 넓이뛰기, 썩전트 점프, 사이드스텝, 체전굴(體前屈), 체후굴(體後屈) 측정을 하였는데 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1) 체격

① 신장에서는 미들급에서 대표선수가 우수선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체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② 체중은 대표선수가 3.7~5.6 kg 감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선수는 2.2~4.1 kg 감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선수가 더 많은 감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량급 선수보다 경량급 선수가 많은 감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상지장(上肢長)에서는 대표선수가 플라이급, 밴텀급, 웰터급, 헤비급에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증결과 유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그의 체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④ 대표선수와 우수선수간에 흉위(胸圍), 하지장(下肢長), 좌고(坐高)에서의 차이는 있었으나 검증결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체력

① 배근력(背筋力)에서는 대표선수가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에서 대학 우수선수보다 우수했으며

그의 체급에서는 별차이 없었다.

② 넓이뛰기에서는 대표선수가 밴텀급에서 대학 우수선수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의 체급에서는 별 차이 없었다.

③ 사이드스텝(Side Step)에서는 대표선수가 핀급, 웰터급, 헤비급에서 대학 우수선수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증결과 인정할 수 있었으며(5%), 그의 체급에서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④ 체전굴(體前屈)에서는 대표선수가 라이트급에서 대학 우수선수보다 우수했으며 그의 체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⑤ 각력(脚力), 썩전트 점프에서는 대표선수와 대학 우수선수와는 별 차이 없었다.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경기 태권을 중심으로—

양진방/서울대 대학원 체육교육과

해방이후의 한국 태권도는 일본의 당수의 유입, 명칭과 기술의 변경, 경기를 통한 스포츠화, 그리고 해외보급에 의한 세계화 등의 많은 변혁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을 분석, 평가하여 태권도의 현재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논문은 해방이후의 한국 태권도의 급격한 변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오늘의 태권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특히 경기 태권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난 태권도 경기화의 성립배경과 발전, 그리고 그것이 전체 태권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또 그러한 변화의 결과들이 유입된 당수를 극복하고 전통성을 회복하려는 태권도의 역사적 과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당수의 유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일어났으며 유입 담당자들은 일본에서 당수를 수련한 유학생들로 이들은 1945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당수를 보급했으며 6·25이후에 지방으로 확산시켰다.

근대 태권도의 지도자들은 유입한 당수와 전통 무술을 종합하여 근대 태권을 형성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유입한 당수로서만 보급시켰으며 그 이후로도 전통 무술이 기술적으로 통합된 적은 없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지도자들은 유입한 당수를 한국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명칭의 개정, 기술의 변경, 기술용어의 변경, 그리고 역사의 정립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태권도란 명칭이 사회에 정착되었으며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제(型體系)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으로 당수와 다른 태권도의 모습을 갖게 했을 뿐 실질적인 자기화나 기본적으로 당수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이 과정 중에는 전통 무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못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없었다. 외면적으로는 당수를 부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1963년부터 본격화된 경기화는 한국 태권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는 호구를 착용한 완전 타격방식이 선택되었다. 경기를 통한 중요한 변화는 손기술 중심에서 발 기술 중심의 기술로, 형(품새)이나 단련을 위주로 하던 독습(獨習)방식에서 겨루기 중심의 대인연습(對人演習) 방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차기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경기 태권도를 통한 변화들은 전체 태권도에 확산되면서 한국 태권도의 발전을 선도해 가게 되었다. 경기태권의 발전을 통해서 한국 태권도

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전통 무술인 태권과 기술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을 수 있었던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전통 무술과 현재의 태권도와의 접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유입된 당수를 발전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1960년대의 1차 세계화의 단계에서는 당수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수준의 근대 태권이 해외에 보급되었지만 70년대의 이차 세계화의 과정에서는 경기 태권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있는 국내에서의 약 10년간의 상당한 발전이 70년대의 경기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태권이 중심이던 1차 단계에서는 일본의 공수(空手)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음으로 해서 외국에서 가라데(Karate) 또는 코리언 가라데(Korean Karate)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 태권을 중심으로 한 이차 단계에서는 일본의 공수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수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며 스포츠로서 보다 세련된 수준의 것으로 한국 태권도를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권도의 역사 속에 있는 유입된 일본당수의 잔재의 극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라데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경기태권도와 이를 통한 참다운 태권도의 한국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운동부하후 심박수, 혈압, 피부온도 및 피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태권도 기술동작을 중심으로-

강희택/연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전공

태권도에서 기술동작의 운동부하후 선수에게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있는지를 단위 기술 동작별 체급 별로 비교, 분석 함으로써 태권도 훈련방법의 과학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은 태권도 중량급과 경량급 선수들에게 앞돌려차기, 뒤돌아엎차기, 내려찍기 및 뒤돌아 후려차기의 기술동작을 시켰을 때 심박수, 혈압, 피부온도 그리고 피로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가를 살펴 보고 있다.

이 연구는 많은 태권도 기술동작 중 경기에서 공격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기술 동작 4개만을 선정하여 운동부하의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태권도 전체 8체급 중 피검자를 체급간 운동부하 후 생리적 변화를 뚜렷이 찾아볼 수 있기 위하여 체급의 간격을 넓혀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1. 심박수의 변화

가) 안정시 양군의 심박수는 중량급이 68.6 beat/min, 경량급이 72.4 beat/min으로 중량급이 경량급 선수들보다 높았다.

나) 운동부하 후 심박수의 증가폭은 전반적으로 경량급에 비해 중량급이 크게 나타났으며, 기술동작별로는 뒤돌아 후려차기>내려찍기>뒤돌아 엎차기>앞돌려 차기의 순으로 양군이 일치하였다.

다) 운동부하 후 최고 심박수는 중량급 선수군의 뒤돌아차기 150.0 beat/min로 안정시보다 96.6 beat/min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적게 증가한 경우는 경량급 선수들의 앞돌려 차기로 안정시보다 27.8 beat/min이 증가한 96.4 beat/min을 나타내었다.

2. 혈압의 변화

가) 안정시 양군 선수들의 혈압을 비교하면 확장기, 수축기혈압 모두 중량급 선수군이 경량급 선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운동부하후 혈압의 변화는 확장기혈압보다 수

축기 혈압이 더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중량급보다 경량급에서 더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다) 확장기 혈압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술동작은 양군 모두 뒤돌아 후려차기였으며, 수축기 혈압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술동작은 중량급에서는 뒤돌아 후려차기, 경량급에서는 내려찍기로 나타났다.

라) 앞돌려 차기에서는 확장기, 수축기, 혈압 모두 양군 공히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3. 피부온도의 변화

가) 운동부하에 따른 피부온도의 변화는 경량급보다 중량급에서 다소 더 높게 상승하였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나) 운동부하 20초 경과 후 온도는 부하직후보다 낮아졌으나 안정시의 피부 온도까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 가장 적은 피부온도의 상승폭을 보인 기술동작은 양체급 공히 앞돌려 차기였으며, 가장 큰 상승폭은 중량급에서는 내려찍기, 경량급에서는 뒤돌아 후려차기에서 나타났다.

4. 피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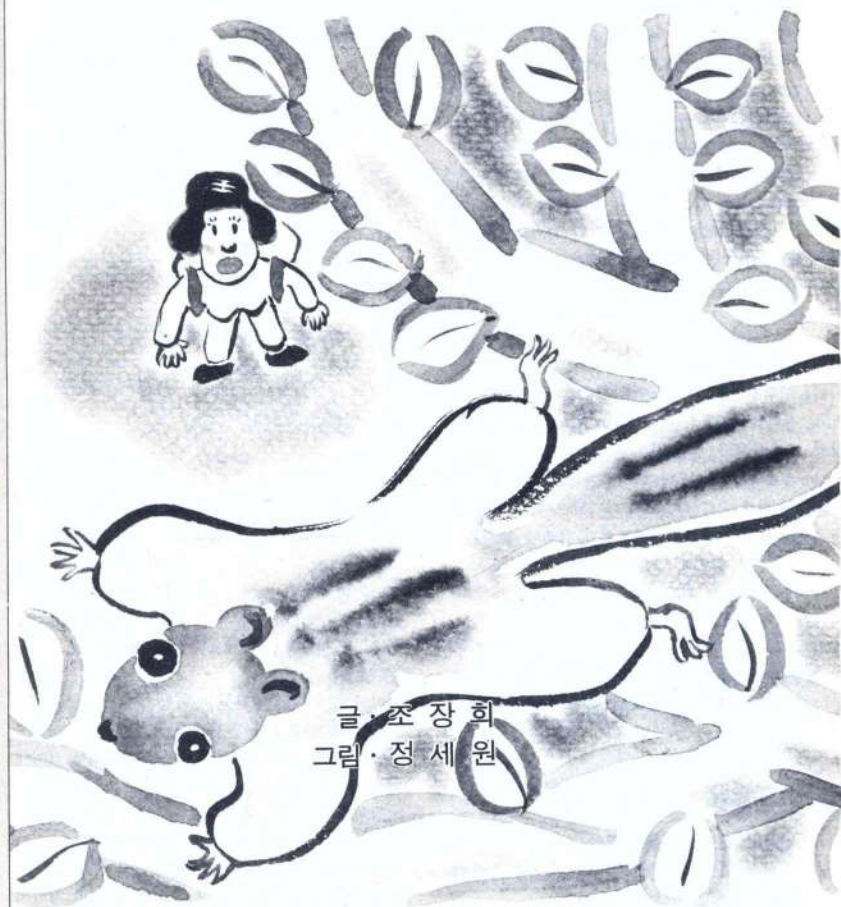
가) 피로도의 변화는 대체로 기술동작의 운동부하량에 따라 앞돌려차기<뒤돌아 엎차기<내려찍기<뒤돌아 후려차기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나) 체급별로 볼 때, 피로도의 변화는 앞돌려차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 동작에서 경량급보다 중량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뒤돌아 후려차기<내려찍기>뒤돌아 엎차기>앞돌려 차기의 순으로 운동부하량이 많으므로, 운동부하후 생리적 크기에 따라 심박수, 혈압, 피부온도 및 피로도의 4가지 측정항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4가지 기술동작에서 4가지 측정항목은 모두 경량급보다 중량급 선수군에서 더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가·족·이·함·께·읽·는·동·화

돌멩이 부자



글·조장희
그림·정세원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신나게 뛰놀던 밤나뭇골이 그리울 때마다 다람이는 쳇바퀴 안으로 뛰어 올라 닥음박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뿔이지, 다람이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마다 쳇바퀴만 웅웅 빠른 속도로 돌아갈 뿐, 다람이 앞에는 바위 등성이도 푸른 숲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유, 요놈의 다람쥐, 참 귀엽기도 하지. 선풍기보다도 더 빨리 돌아가네”

이 집 주인 마님이 칭찬을 해주지만 다람이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통안에서 뛰쳐나갈 수 있을까. 숲이 그리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지난 봄 밤나뭇골의 너럭바위 위에서 깜빡 졸다가 그물에 옮겨 이 곳까지 잡혀 온 다람이는 창살이 촘촘히 박힌 좁은 통 속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싱그러운 숲의 향기와 아름다운 꽃들이 그림고, 산토끼·오솔이·들쥐·멧돼지... 산속의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좀 미련스럽기는 하지만 순하고 덩치 큰 곰돌이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다람이가 사는 통은 이 집 거실 한쪽 벽의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 벽을 모두 차지한 여러 층의 선반 위에는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돌 틈에 다람이가 갇혀 사는 통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어른은 수석 수집가였습니다. 이 집엔 거실의 두 벽뿐만 아니라 방마다 구석구석, 현관은 물론 마당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기묘한 돌멩이가 수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돌멩이가 다람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밤나뭇골 골짜기에서 흔히 보아 왔던 돌멩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밤나뭇골이 그리워 제대로 먹지도 않던 다람이었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다람이는 열심히 쳇바퀴도 돌리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다람이는 이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멩이를 많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이 모아들여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돌맹이는 수십만원, 또 어떤 돌맹이는 수백만 원씩이나 한다는 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누는 말을 엿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람이는 수십만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며 수백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짐작컨대 아주 큰 돈이란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사람의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을 모아들이기는 주인 마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인 마님이 모아들이는 것은 주인 어른과는 달리 녹두알이나 콩알만한 아주 작은 돌이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이 작고 반짝이는 돌들을 실에 꿰어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끼우고, 또한 낱볼에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람이가 더욱 깜짝 놀란 것은 그 작고 보잘것 없는 돌들이 무려 몇십만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이나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수석이라고 모아들이는 돌맹이는 다람이가 살던 밤나뭇골 골짜기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이 보석이라고 모아들이는 작은 돌들도 밤나뭇골 위쪽에 있는 머룻골길은 골짜기에 많이 있다는 걸 다람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밤나뭇골로 되돌아간다면 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어느새 다람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란 참으로 좋은 것인가보다. 저런 돌맹이만 있으면 부자가 된다니. 그렇다면 난 이미 부자야. 아, 나도 빨리 밤나뭇골로 돌아가 부자가 되어야겠어.”

다람이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하루바삐 밤나뭇골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리한 다람이는 밤나뭇골로 돌아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이는 우선 이 작은 통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람이가 낮이 익고 길이 들었다고 해서 주인 어른이나 주인 마님이 먹이를 넣어 줄 때 예사로 문을 활짝 활짝 열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 재빨리 빠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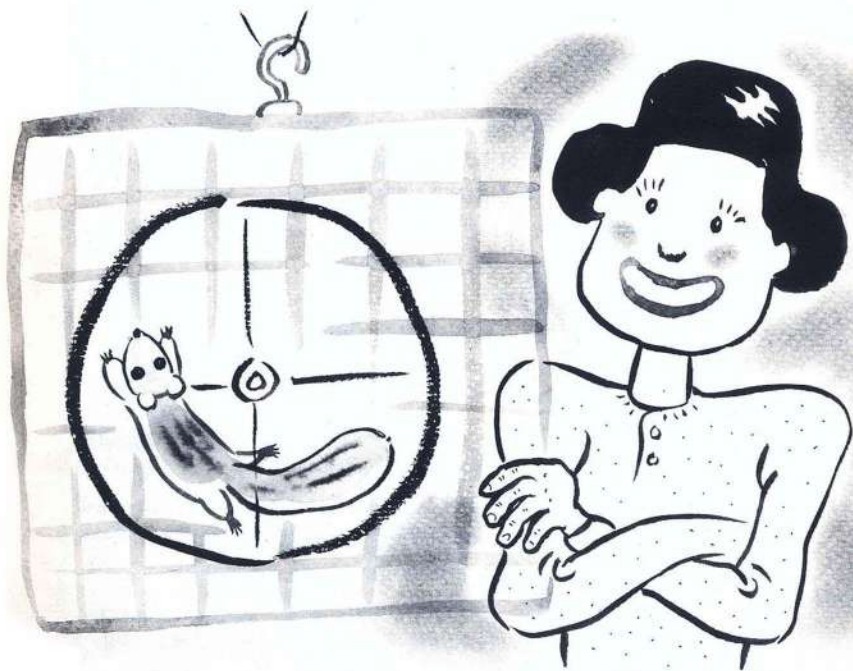
가·족·이·함·께·읽·는·동·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다람이는 다시 궁리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주인 어른이 돌을 주우러 갈 때 짊어지고 가는 배낭이었습니다. 그 배낭 속에 몰래 숨어 들기만 하면 틀림없이 밤나뭇골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람이가 밤나뭇골에서 이 곳으로 잡혀 올 때도 바로 그 배낭 속에 담겨 왔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엿보던 다람이는 어느 날 마침내 창살이 쳐진 좁은 상자를 도망쳐 나와 주인 어른의 배낭 속으로 숨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밤나뭇골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람이가 잡혀 갈 때는 연초록 새잎 속에 하이얀 밤 꽃이 흐드러지게



가·족·이·함·께·읽·는·동·화

피어나던 무르익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밤나뭇꽃은 어느덧 가을도 깊어 산 속엔 낙엽이 쌓이고 알밤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나뭇꽃에 되돌아온 다람이는 우선 곰바윗골의 곰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야아, 다람아. 너 여름 내내 어디 갔었니?”

곰돌이는 다람이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람이는 아주 뽀내듯 말했습니다.

“응, 곰돌아, 잘 있었니? 난 그 동안 사람의 마을에 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 왔지.”

“뭐라고? 부자가 뭔데?”

“아이구, 이 미련통이야. 부자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야.”

그러나 곰돌이는 다람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다람이는 곰돌이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저 병풍바위 뒤에 있는 머룻골로 가자. 거기엔 보석이 많이 있어.”

“보석이 뭔데?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니?”

“아이구, 이 미련통이. 어서 따라오기나 해. 그리고 넌 힘이 좋으니 커다란 돌맹이를 가져다 수석을 모아.”

“수석? 수석은 또 뭔데?”

“아유, 이런 멍청이. 어서 따라오기나 해.”

보석이 무슨 열매일까? 수석은 또 무엇일까? 맛있는 나무 뿌리일까? 그러나 곰돌이는 다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람이와 곰돌이는 병풍바위를 지나 자작나무가 우거진 너럭바위 밑에서 흙을 헤집었습니다.

“와, 보석이다!”

다람이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너럭바위 밑에는 무지개빛이 감도는 작은 돌맹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람이는 꿈을 꾸듯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곰돌이는 그 반짝이는 보석을 한 알 집어 냉큼 입속에 털어넣었습니다.

“아유 딱딱해. 이걸 돌맹이잖아. 에이, 뭐돼!”

곰돌이는 이빨이 아프다고 낯을 찡그리며 그 빛나는 보석을 금방 뱉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람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흥, 미련한 먹보가 귀한 보석을 알 까닭이 없지.

이건 자수정이란 보석이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다람이는 그 해 가을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먹을 양식을 거들며 보지도 않고 열심히 보석만 굴 속으로 날라 들었습니다.

얼마 뒤 겨울이 되자 온 산은 하이얀 눈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다람이는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굴 속엔 보석만 가득 차 있지 먹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람이는 친구인 곰돌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곰돌이는 이미 마련했던 양식을 모두 뺏속에 털어놓고 쿨쿨 겨울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웁지! 보석 한 알이면 밤을 열 말이라도,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야. 보석은 비싼 것이니까.

다람이는 보석을 들고 이곳저곳 친구 동물들의 집을 찾아갔으나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까짓 먹지도 못하는 돌맹이를 무엇에 쓰니!”

핀잔만 받은 다람이는 그 해 겨울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밤 한 톨도 얻고, 도토리 두 알도 얻고 해서 가까스로 살아갔습니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다람이는 그 빛나는 보석들을 몽땅 쓸어다가 깊은 웅덩이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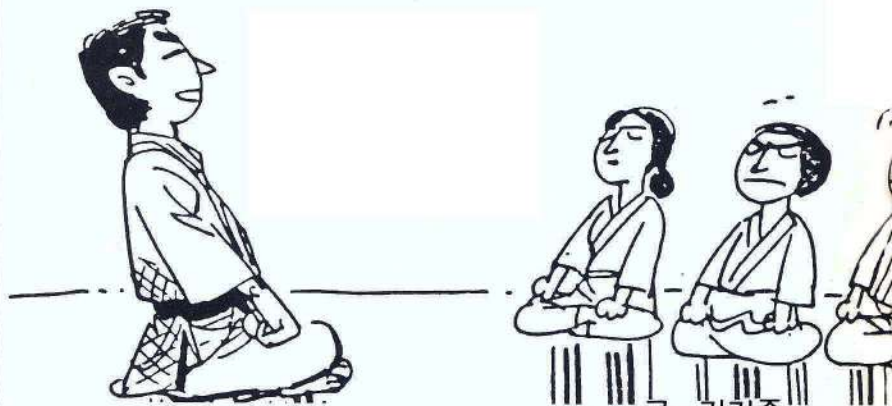


■ 조 장 희

1939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서라벌 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
동식물을 소재로 한 동시·동화 등의 문학 활동을 계속해 왔다.
'6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동시부문)에 당선되면서부터
다분히 우화적인 동화를 즐겨 쓰며 '82년 <한국일보>제정 '세종아동문학상'
'86년 '대한민국 문학상'을수상했다.
현재 <중앙일보>'여성中央' 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두칠이와 고운이

제1 회



글 · 김건중

그림 · 고우영

가을 하늘은 맑지만 했다. 드높은 창공은 온통 코발트 빛으로 물들어, 상쾌하고 신선한 아름다움으로 펼쳐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아래는 청량감을 주는 바람자락들이 알맞게 가로수를 흔들며 지나쳤다.

천하체육관 전체 관원 및 부형과 자모들은 가을소풍을 겸한 야외수련을 하기 위해 전세낸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버스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시끌벅적하던 차내의 분위기가 금세 합창하는 노래소리로 통일되었다. 일행을 실은 버스는 아스팔트 위에 그어진 하얀 구획선을 따라 꼬리를 문 채 치달렸다. 차창으로 전개되는 싱그러운 풍경과 엉거불뚝 스치는 휘릭거리는 바람들은 그들의 가슴에 설레임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일추 시간 반쯤 내달리자, 목적지인 남이섬에 도착했다. 어느새 금빛햇살은 부채살 모양으로

완전히 퍼졌다. 남이장군의 묘비를 감아돌아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전 관원들은 하얀도복으로 갈아입은 뒤 각 부별로 정렬했다.

「오늘은 가을 소풍을 겸한 야외수련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예고했던 대로 겨우기 대회도 하겠습니다. 물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친목을 위한 순수한 시험임을 덧붙입니다.」

도광육 사범의 인사말이 끝나고, 부서별로 준비에 들어갔다. 푸른 잔디위에 석회를 뿌리며 경기장을 만드는 모습과 본부석 마련과 함께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선수들은 제 각기 경기에 임할 준비로 발차기나 몸풀기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두고 봐라 병일이 네놈도 오늘로 끝장이다. 네놈 때문에 이 두칠이가 체면도 깎기고 고운이 한테도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화 뭉개 버릴 테니까.)

두철이는 어금니를 앙다물며 거센 발길질을 허공에 해 대고 있었지만 그 발길질은 허공이 아닌 병일이에 대한 앙갚음이었다.

병일이가 천하체육관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달포전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2년까지 승단한 후, 아버지의 근무처가 옮겨짐에 따라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아울러 천하체육관에 입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에 부장을 맡고 있는 두철이가 병일이를 달갑잖게 여기는데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학생부에 2년까지는 두철이 혼자였는데 병일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라이벌 의식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학생부에 홍일점인 여고생 고운이 때문이었다.

이제 막 파란피를 두른 고운이는 두철이를 상당히

따르는 편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고운이 자신의 깔끔하고 차분하다 못해 차가워 보이는 성격과는 정반대로, 두철이는 독배기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 순박하면서도 썩썩하고 사나다운 점이 비록 동급생이었으나 믿음직스러운 오빠같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고운이의 태도가 병일이가 나타나면서부터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지자, 두철이로서는 속이 부끄르르 끊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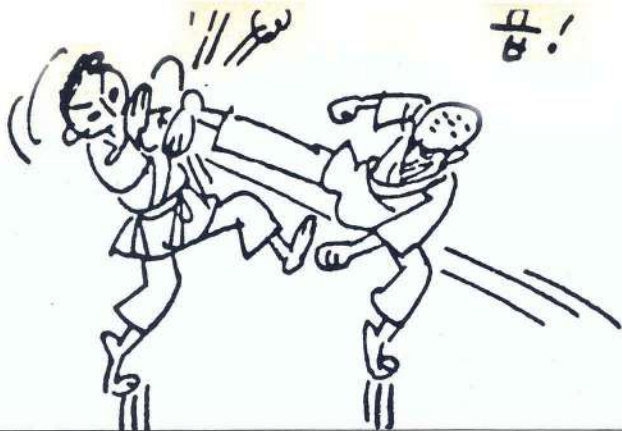
바로 한과수전.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 골목을 빠져 집으로 향하던 두철이는 시계를 놓고 왔음을 깨닫고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다. 부리나케 체육관 계단을 오르려던 두철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뒤돌아 보았다. 순간, 그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온몸이 석고상처럼 뻣뻣이 굳어짐을 느꼈다. 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와글분식집에 병일이와 고운이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두철이는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불뿔이 필듯한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듯 주시했다. 병일이는 묵묵히 있는데 고운이가 생글거리며 뭐라고 재잘대는 것 같았다. 당장 쫓아가서 그 분위기를 깨트리던가 아니면 뱀다 아구창이라도 내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생각만 그렇지,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였다. 다만 콩콩 뛰는 가슴과 입안에 고인 군침만이 꿀꺽 삼켜질뿐이었다. 얼마간 그 꼴을 지켜보며 스멀스멀 차오르는 분노를 침묵으로 다스리던 두철이는 시계 찾을 생각도 잊은 채, 땀박칠듯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철이는 마음이 편칠 못하고 늘 습기가 짙았던 녹진녹진한 골방처럼 녹죽히 젖어 있기만 했다.

—다음 게임은 홍코너 정두철 선수와 청코너 이병일 선수의 대전이 있겠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2단

으로서 본 체육관 학생부의 지도교사급입니다. — 진행부의 안내말이 끝나고 두철이와 병일이는 계임을 뛰기 위해 라인안에 마주섰다. 주심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하늘로 치솟으며 게임은 시작되었다.

이얏—

커다란 기압소리를 지르며 보폭을 넓게 잡으며 낮은 겨루기 자세를 취하는 두철이의 눈망울엔 그날 분식집을 응시할 때 일던 분노가 잔뜩 서려 있었다. 병일이는 가벼운 발놀림을 하며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다. 드디어 병일이는 앞돌려차기를 두철이의 얼굴을 향해 짹짹 날렸다. 뒤로 주춤하며 공격을 피하긴 했지만 가볍게 두철이의 안면을 스쳤다. 그 찰라 두철이는 맞은편에 서 있는 고



두철이가 빠르게 병일의 공격을 비키며 한발짝 닥아서자 병일의 뒷꿈치가 두철이의 어깨에 걸리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내 주심의 갈려 소리가 났지만 두철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진 병일의 얼굴을 앞차기로 내질렀다.

운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고운이의 표정은 아무래도 병일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뻑까지 쳐가며 까르르 웃는 모습은 두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짜시, 한번만 더 들어와 봐라. 요절을 낼테니...)

두철이는 자세를 추스리고 다시금 병일의 공격을 기다렸다. 그때 맞받아 차겠다는 심산으로 신경을 곤두 세웠다. 아나나 다를까 두철이가 짐짓 허접을 보이듯 자세를 바꾸는 순간, 바샤아하는 기압과 함께 병일의 뒤들러차기의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왔다. 두철이가 빠르게 병일의 공격을 비키며 한발짝 닥아서자 병일의 뒷꿈치가 두철이의 어깨에 걸리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내 주심의 갈려 소리가 났지만 두철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진 병일의 얼굴을 앞차기로 내질렀다.

「으악—」

병일은 비명과 함께 쓰러진 몸을 한번 더 뒤척이며 얼굴을 감싸안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경기장을 빙 둘러싼 부형과 관원들은 이 급작스런 사고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병일이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 시선들은 적막이 깃들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다.

병일은 벌렁 나동그라진 자세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한쪽 다리는 계속 덜덜 떨고 있었고 입에서는 계거품을 쬐으며 신음소리를 토하고 있었다. 두철이는 그런 병일을 겁먹은 눈망울로 바라보며 어쩔줄

모르는 태도로 병일을 부축하고 있었다.

「병일아! 병일아...」

도광옥 사범은 병일의 눈꺼풀을 들쳐본 뒤, 병일을 몇번 흔들어 보았다.

「빨리 옮겨!」

축쳐진 병일을 들쳐 업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매표소 광장에 있는 버스로 향하는, 준태, 정구 그리고 고운이 도사범은 모두가 급세라도 숨이 끊길 듯, 이어지는 병일의 가냘픈 신음소리에 더욱 가슴을 태우면서 걸음을 빨리했다.

초록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계가 정확히 정오를 가르키고 있었다. 얼마간의 응급치료를 마친 뒤, 회복실로 옮겨진 병일은 그때서야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뇌에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72시간을 넘겨봐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진료의사의 말은 모두를 무겁게 했다.

「괜찮으냐?」

험썩한 병일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사범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

병일은 말없이 염려말라는 의미의 눈짓을 보내왔다. 얼마간 백지장같은 하얀 천정을 응시하던 그는 스프르 눈을 감더니 잠 속으로 말려 들어 가는지 잠잠했다.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실내엔 닝겔 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로프를 타고 병일의 팔뚝 혈관으로 계속 흘러 가고 있었다.

『내가 볼 땐 아무래도 두철이가 심상치 않아, 그녀석이 시험도 여러 번 나간 녀석인데 갈려 소릴 못듣고 공격을 계속 했단 말야? … 준태야. 요즈막에 학생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말해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야. 그걸 알아야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냐.』

「두철이가 실수한 거야,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거야?」

도사범이 침묵을 갈랐다.

「실솔 거예요..」

준태와 정구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실수?」

「그럼요, 갈려 소릴 못듣구 그만…」

준태는 우물대듯 두철이를 변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운이는 계속 침묵만을 지킨 채, 병일이의 잠든 얼굴만 쳐다보며 가슴만 조이고 있었다.

「정구하고 고운이는 빨리 경기장으로 가봐. 부형님들과 관원들이 놀랬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가서 병일이가 회복 됐다고 알려주고 경기가 중단 됐거든 속행시켜. 그리고 두철이 녀석 이리 보내..」

두 녀석을 보내 놓고 얼마간 머리를 가우뚱 꺾은 채, 생각에 잠겨있던 도사범은 준태를 향해 나죽히 말문을 열었다.

『내가 볼 땐 아무래도 두철이가 심상치 않아. 그 녀석이 시험도 여러 번 나간 녀석인데 갈려 소릴 못듣고 공격을 계속 했단 말야? 준태야, 요즈막에 학생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말해 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야. 그걸 알아야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냐.』

「실은, 저어…」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는 했지만 선뜻 내뱉지 못하고 머뭇대는 준태의 그 태도에서 도사범은 낚새를 차리고 너그럽게 유도했다.

「어떤 말이고 괜찮으니까 숨김없이 말해봐. 나는 너희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야..」

「병일이가 체육관에 나오구 부터 두철이가 이상해진 사실이에요..」

「뭐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운동시간에도 괜히 신경질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시비예요..」

「글쎄 그게 왜그러느냐 말야?」

「…」

다그치듯 도사범이 말꼬리를 물자 준태는 우물거리며 말문을 단았다.

「괜찮아 녀석아 뭐든 말해봐..」

「… 그게 다 고운이 때문이에요..」

「뭐? 고운이가 왜?」

「차암… 사범님두 …」

준태는 뒤통수를 굽적이며 말꼬리를 감추더니 멀썩하게 웃었다.

「짜식 차암이 뭐야? 빨리 말 안해?」

「고운이랑 병일이랑 분식집에 있는 걸 두철이가 봤대요..」

「…」

「사범님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입마..」

도사범은 준태의 머리로써 가볍게 알밤을 주며 생각에 잠겼다.

두철이가 천하체육관에 입관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생선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손에 끌려 체육관에 나오기 시작한 두철이는 햇수로 삼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한번도 말썽을 피운다거나 수련을 게을리한다거나 하다못해 동료들간에 사소한 말다툼도 없던 아이였다. 가끔씩 어머니의 생선장사를 돕는다고 비릿한 냄새를 온몸에 바른 채, 체육관을 나온 적도 많은 그런 두철이었다. 어쨌거나 매사에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두철이는 고등학교 입학도 태권도 메달덕분에 특기생으로 진학한 아이였다. 도사범은 순박함을 바탕으로 늘 성실한 두철이의 태도가 믿음직스럽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 돌발적인 사고가, 그것도 이성문제로 벌어졌다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어느새 두철이가 성장하여 어른의 땅에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얼마간 침묵에 잠긴 채, 도사범은 물끄러미 시선

한둥! 한둥! 한둥!



을 창밖에 던지고 있었다.

(이 녀석들에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문제 수습으로 골몰하는 그의 가슴은 흡사 헝크리진 실뭉데기를 풀 때 풀리지는 않고 매듭만 더해가며 엉키는 그런 복잡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지고 닝겔병이 얼추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었다. 병일이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습벅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때.

입원실 문이 노크와 함께 스프르 열리며 두철이와 고운이가 들어왔다.

「죄송해요 사범님…」

땀으로 얼룩져 어뭉어뭉하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두철이가 말문을 열었다.

「사과해 임마.」

도사범은 눈짓으로 병일이를 가르키며 말했다.

「미안해 병일아.」

주눅들은 두철이의 음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병일이는 두철이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말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운이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벌레집은 표정으로 두철이를 쏘아보고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됐다. 그러나 너희들 친구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몇가지 물을 게 있다. 솔직하게 말하길 바란다.」

도사범은 두철이, 준태, 고운이, 병일이를 차례대로 주욱 훑어보며 어떤 결단을 내릴듯이 차분하게 말했다. 두철이는 약간 머리를 숙인 채, 아직도 녹진 녹진한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준태는 그저 멍하니 초점 흐린 눈으로 병일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고운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도사범의 다음말을 기다리는 눈망울로 있었고, 병일이는 천정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번 사고는 너희들 모두가, 관원은 같은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아울러 태권도 정신을 벗어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

「두철이 한테 묻겠다. 두철이 넌 학생부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지?」
도사범은 두철이 한테 시선을 쫓으며 단호하게 물었다.

「네에.」

「다음 준태, 넌 두철이가 요즈막에 달라지는 걸 알면서도 친구로서 충고한번 하질 않았지?」

「네에.」

「고운이는 오해없이 듣거라. 넌 두철이가 권해서 태권도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

「…네.」

시무룩한 표정을 약간은 풀며 고운이가 짧게 대답했다.

「병일이와 분식집에 간 적 있나?」

도사범의 눈빛은 고운이와 병일을 오가며 솔직함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다.

「네에 있어요. 그게 뭐 잘못 했어요?」

고운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두눈을 호동그레 뜨며 외려 도사범을 향해 반문하고 있었다. 순간 도사범은 말문이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짧은 혼돈에 빠졌다.

「...잘못 댔다는 게 아니고,」

도사범은 궁색하게 말꼬리를 달았다.

「네 알아요. 그럼 설명 드릴게요. 사범님도 저희 오빠가 서울서 학교 다니는 것 아시지요? 병일이가 이곳으로 전학하기 전에 저희 오빠가 다니는 호문학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빠 소식도 알겸, 만난 거예요.」

「그랬었구나.」

쑥스러운 표정으로 도사범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병일은 싱그레 미소를 지었고, 두철이는 늑진거리는 이마의 땀을 한손으로 훔쳐내며 금세 밝은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말이 나왔으니 전부 말하겠어요. 사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도 두철이가 믿음직한 친구라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두철이를 남자답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두철이한테 상당히 실망했어요. 두번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고운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입원실 문을 밀치며 뛰쳐 나갔다. 도사범과 두철이 그리고 준태와 병일이는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 되어 고운이가 뛰쳐 나간 입원실 문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짜식, 마라가 봐.」

준태가 두철이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하자,

「암야! 뭣하는 거야.」

도사범이 망설이듯 머뭇대는 두철이의 머리에 알밤을 주며 준태의 말을 거들자, 두철이는 그제서야 화들짝 웃으며 땀기듯 입원실 문을 뛰쳐 나갔다.

도사범은 허둥대듯 뛰쳐 나가는 두철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어느새 따사한 가을 햇살은 입원실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도사범의 미소위에 닿고 있었다.

신 간 안 내

태권도 지도이론

金大植 · 金光成 共著
(도서출판 나남, 1987)



지난 1985년도에 「세계로 뻗어 가는 國技: 태권도교본」을 발간한 바 있는 김대식·김광성씨가 이번에 도서출판 나남에서 공저로 「태권도 지도이론」을 펴냈다.

일반 체육 이론에서 태권도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무예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논문 등을 포함하고 있는 「태권도 지도이론」은 부록으로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및 경기규칙, 국제심판 운영관리규정, 대회조직에 관한 세칙, 대한태권도협회 규약,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운영내규, 태권도 훈장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태권도 관련 주요 참고문헌이 총 망라된 방대한 책(총584페이지)으로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 태권도 전공학생, 또는 기타 무예 교육에 관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라 사료된다.

이 책의 저자 김대식씨(8단)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립대 교수(체육학 박사)로 국제무도학회(ICMAE)상임이사를 역임하며 세계의 태권도인들을 위해 미국학술지 등에 무예 교육에 관련된 영어 논문 다수 발표하며 세계에 태권도 보급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광성씨(7단)는 연대 대학원과 미국 놀워치 대학원에서 체육학 전공(M·A)했고 현재 대한유도학교 태권도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내 발걸음의 지표가 되준 태권도

이광심 / 전남곡성체육관

1986년 5월 초록이 싱그럽게 우거진 계절이었다. 난 깊은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은 체육관을 향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다. “여자가 무슨…” 엄마의 성화를 귓전에 담고서 나는 어떻게 더 어렵게 체육관에 들어서야 했다.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풍겨오는 남학생들의 냄새, 그리고 시선, 난 열음이 달아 오름을 느껴야 했고 그런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내 고향은 작은 시골인 까닭에 소문은 터무니 없이 빠르기만 했다. 하나의 흥일점, 오직 하나라는 건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중학교때부터 배우기를 원했던 태권도. 조르고 졸라 억지승낙을 받은 난 얼마나 기뻐던지…

하지만 같이 배우자 했던 친구들이 모두 뒷전으로 물러서 버린 탓에 체육관에 들어선 나는 혼자일수 밖에 없었다.

모든게 어색하고 어떨때 쟁피하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들곤했다. 주위의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보는것. 그건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선생님 한분은 상담실로 호출까지 해서 나의 체육관 출입을 호통치며 꾸중하셨다. “여자가 운동이 뭐냐?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당장 그만둬.”

“선생님, 여자답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다면 그만둘수 없어요.”

난 울음까지 터뜨려가면서 계속 하기를 원했다. 의외로 난 내 생각만큼 잘하지 못했다. 운동신경이 둔한 탓이었을까?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비해 난 너무도 둔감하게 운동을 배워 나갔다.

백피에서 청피까지 온 나는 이제 조금씩 태권도에 대해 애착이 가기 시작했다. 그토록 시끄럽게 웅성

거리던 이상한 눈길도 흥미를 잃은 얘기마냥 점점 수그러져 갔다.

내 성격탓이었을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이 지나도 난 같은 체육관생들과는 친숙해 지질 못하고 엉거주춤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꼬마들하곤 어느정도 친했고 그래서 운동은 더 즐거워졌다. 흥떠를 허리에 매던날 체육관에 두 여자아이가 입관했다. 비록 국민학생이었지만 너무 반갑고 기쁘기만 했다. 꼭 무엇인가에 주린 내 자신이 처량해 보였던 탓일 까다.

눈발이 날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들들은 두달도 채못돼 나오지 않았고, 난 또 혼자가 됐다.

여름날 따가운 햇살도, 칙칙한 땀내음도 내 이맛살을 찡그리게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우습기만 하다.

중학교때의 은사님과 만났을 때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것 같다.

“참 용하기도 하지. 네가 운동을 하다니. 한번 한 거 이왕이면 잘하도록 해라. 글을 쓸때의 네 모습도 열심히고 이때 보이지만 운동하는 모습도 꽤나 볼만 할꺼다”

귓전에 생생하다. 꿈이 문학인인 내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 은사님의 격려는 태권인으로서의 내 생애에 대해서도 힘을 솟게 해주셨다.

지금 내 허리에 까만색의 띠가 수줍게 묶여져 있다. 부족하고 미흡한거 같지만 한편으론 흐뭇하기도 하다.

항상 정신적인 무도를 역설하시는 이종식 관장님의 말씀처럼 내 뇌리엔 태권한국의 미래가 그려지곤 한다. 체육을 지속해도 싫어하던 내가 태권도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이제 겨우 걸음마를 걷는 기분이다.

하면 할수록 의미가 깊어진다는 태권도.

영원히 아끼고 싶다. 입술을 깨물고 이맛살을 찡그렸던 지난 시간이 내 생각처럼 안돼서 짜증나고 그 만두고 싶어질때마다 떠오르곤 한다.

열심히 해서 이땅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에 쓰고 싶다. 비록 지금 현재엔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실력이라고 생각되지만…

태권도가 국내외로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조용히 체육관 문을 나신다.

무도태권도와 무술의 차이



최점현
경희대 태권도학과 4년

무술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인류도 자기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몽골이라는 동물이 인류이전에 지구를 지배했다고 인류역사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공룡과 같이 무서운 적을 지구에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무서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공룡과 수백만년을 계속하여 투쟁해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귀중한 생명을 자연이나 동물들에 의해 빼앗

기고 뺏은 나날들이 계속 반복되자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지혜가 발달되어 드디어 그 지혜로 안출된 투기형태의 무술에 의해 인류가 생존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가끔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는 원시 인류의 유적에서 표창, 돌칼, 돌도끼 등의 무기가 발견됨으로써 고대무술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무술은 지금으로부터 2천 5백년전 한문이 창조 제정됨으로써 기록으로 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어 정신세계의 완성을 추구하는 무도(武道)로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유교의 발전과 함께 태권술(수술), 유술, 유권술, 검술로 통해오던 무술을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 개칭된 것은 도의적인 정신문화 발전이 증시됨으로써 승리를 위하여 또한 사리사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술(術)이라는 개념을 정신적, 도의적인 측면에서 재고하게 되어 도(道)는 인격완성, 자아실현 등 궁극적인 목적이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함으로써 무술의 술에서 무도의 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옛 기록을 인용하여 설명하면 춘추전국시대에 관운장이 제갈공명의 연환계에 의한 화공에 참패하여 도망가는 조조를 오림이라는 산중에서 만나 한 칼에 목을 벨수 있었으나 그 신세가 가련함을 동정하고 또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여 말머리를 돌림으로써 조조를 살려준 것은 무의 도(道)라고 할 수 있고, 여포가 오갈데 없이 방랑의 무인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을 유비가 동정하여 형주성에 거처케 했으나 여포는 기회만을 노리다가 유비, 관운장이 모두 출정한 틈을 타 유비의 심복들을 죽이고 형주성을 빼앗은 것은 도(道)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술(術)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전통 무도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태권도 수련은 태권도의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수양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수양을 통하여 인간완성에도 나아가는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앞장서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전체,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무도정신을 심어 세계평화의 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선수들에 대한 수지침(手指鍼)의 활용방안



양 영 모

국기원 편찬분과 부위원장
서울시 태권도협회 감사

목 차

I. 서 론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2. 동 기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개념
2. 수지침(手指鍼)과 체침(體鍼)의 비교
 - 가. 중국체침의 개요
 - 나. 체침으로서의 건강관리의 문제점
 - 다. 수지침의 개요
 - 라. 수지침의 장점
 - 마. 태권도 선수들에게 적용범위
 - 바. 수지침의 이용기구
 - 사. 수지침 치료의 진찰방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결과 및 처리

IV. 연구결과 및 고찰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침술(針術 ACUPUNCTURE)의 효과에 대하여는 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고 있고, 1981년에는 침술이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1983년 10월부터는 전세계의 회원국들에게 전통의학(傳統醫學)을 적극 개발연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의학은 침술을 목적하는바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서도 여기에 대응하여 건강사(健康士)라는 명칭하에 매년 간호원등에게 6000명 정도 침술을 교육시켜 제1차로 보건진료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부작용 및 한계성을 의식하고 있다 할 것이나.



따라서 침술은 잘만 이용한다면 인체에 무해하고 좋은 치료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본고에선 태권도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및 쇼크의 응급시 치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침술의 활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태권도 선수들도 사람인 이상 질병이 없을 수가 없다. 즉, 각종의 병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갖고 있다.

이것은 선수들의 건강과 훈련에 영향 내지는 승패 등에 크나큰 지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선수들에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며, 평상시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려니와 질병예방이 가능함으로써 부하능력을 최대한도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상 및 쇼크 등 응급시의 처치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침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동기

1985년 제6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선수단의 임원으로 태권도선수들과 합숙생활을 하면서 훈련기간에 선수 총24명에 고려수지침(高麗手指針)으로 치료받은 선수가 총20명에 다다르고 경기중에는 총28명이 타박상 및 기타의 원인으로 치료받으면서 금메달 총1개로 종합우승을 하였다.

1986년 전국소년체육대회(마산)에서 태권도 서울특별시 대표선수단 11명중 7명의 선수가 고려수지침 치료를 받으면서 경기를 우승으로 끝냈고, 1986년 제67회 전국체육대회(수원)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선수단의 20일간의 합숙기간에 총 18명의 선수 및 임원이 고려수지침 치료를 받았고, 경기 기간중에는 선수 24명과 임원 6명 등 총30명이 고려수지침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종합우승을 이룩하게 되면서 고려수지침이 태권도 선수들의 치료에 최상의 치료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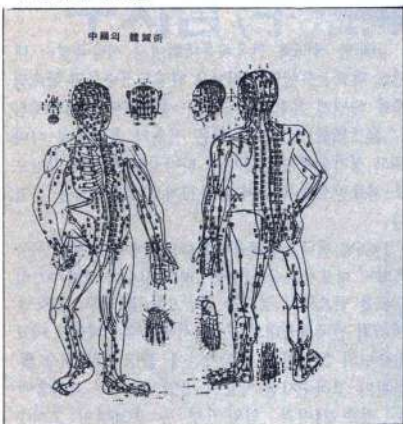
오늘날 침술(針術)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침을 자입(刺入)하는 위치를 가지고 구별한다면 많은 것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식 체침(體鍼)이고 다음에는 한국의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이 있다.

이외에 이침(耳鍼)이나 족침(足鍼) 등이 있으나 동양의학적인 체계가 없고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국의 체침과 한국의 고려수지침에 대한 비교를 한 후 고려수지침의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용어의 개념

가. 중국식 침자(鍼刺)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중국의 황제내경(皇帝內經)이라는 책에서 밝혀진 것으로 인체에 육장(六臟-肝臟, 心臟, 脾臟, 肺, 腎臟, 心包) 육부(六腑-膽, 小腸, 胃腸, 大腸, 膀胱, 三焦)에 하나씩 연결되어지는 12개의 기혈통로(氣血通路)를 말하며,

* 중국의 체침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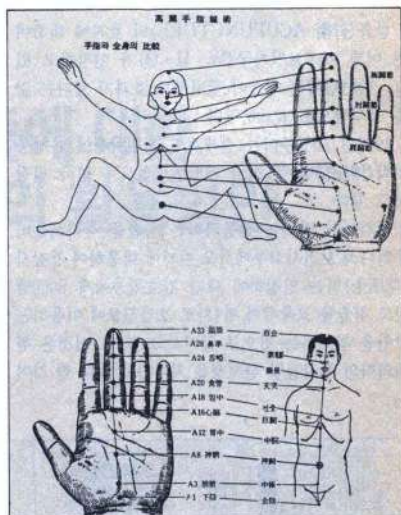


나. 인체에는

- ①정혈(正穴) 365개
- ②기경(奇經) 8맥
- ③낙맥(絡脈) 15개
- ④손락(孫絡)
- ⑤기혈(奇穴) 아시혈(阿是穴) 신혈(新穴)의 치료 부위가 있고,

다. 한국의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 침자(鍼刺)는 완관절(腕關節) 이하에서만 치료점(治療點) 345개 혈을 정하여, 침 1mm내외로 자입(刺入)하여 전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세계 각처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중공, 소련, 가봉, 토고, 캐나다, 중남미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연구하고 있다. 고려수지침 침자는 손(手)에 있는 육장(六臟-肝, 心, 脾, 肺, 腎, 心包), 육부(六腑-膽, 小, 胃, 大腸, 膀胱, 三焦)에 연

* 고려수지침



결 되어지는 14개의 기혈통로(氣血通路)를 말하며

- ①기맥(氣脈) 14개와 344개의 기정혈(氣正穴)이 있다.
- ②기경(奇經) 8맥
- ③낙맥(絡脈) 17개
- ④수많은 손낙(絡脈)과 아시혈(阿是穴)이 있다.

이상의 치료 부위에 육장(六臟) 육부(六腑)는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배정시켜 동양의학(東洋醫學)적인 생리 병리를 바탕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고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자입 치료한다.

2.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과 체침(體鍼)의 비교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이나 체침(體鍼)을 구별할 것이 이용되는 것이 좋겠으나 체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좋다는 식이 될것이나 다음의 사항들을 알고 보면 왜 비교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가. 중국체침(中國體鍼)의 개요

한국의 상고시대 단계 1세시(檀帝一世時)에 자부선생(紫府先生)의 제자이고, 동이민족(東夷民族)인 황제(黃帝)는 중국에 국가를 세우고 단계조선의 문화를 모두 흡수하여 중국민족과 문명의 비조(鼻祖)로 군림하고 있다.

또한 침술(鍼術)에도 이 동이민족인 황제에 의하여 「내경」(內經)이 완성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 중국의 침술(針術)은 전신에 놓는 것이며 강자극(強刺激)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① 모든 중요기관은 직접 침자(鍼刺)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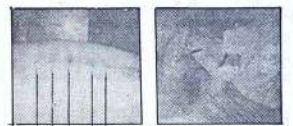
[예] 眼球, 鼓膜, 心臟, 肝臟, 橫隔膜, 胃腎臟, 脾臟, 膀, 膀胱, 膽, 有髓等

다음은 참고로 복부에 침을 놓아 부작용 인사(人死)한 사례 1건을 소개한다.

[간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간의 손상으로 인하여 내출혈을 야기(惹起)케 되어 이로써 실혈사(失血死)라는 악의 결과에 대하여 치료의(治療醫)는 그 책임을 면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에 현대의학의 발달과 동양의학적 견지에서 고찰하여 볼 때 간질성간담(間質性肝炎)이 이환(罹患)되므로 해서 간의 위치가 하수(下垂)되어 있었는지 또는 체질적으로 하수(下垂)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엄연한 이 한의학적 진단방식에 따라 감지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시술자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主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본건과 같은 사례는 그 진단의 방법 치료의 지침(指針)이 정확하였다 하더라도 간이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를 촉진(觸診)에 의하여 감지하였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감지못한데 기인한 것이라면 또한 시술에 불가항력이라는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양의(洋醫)에서도 오진(誤診)이나 과실률(過實率)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의학계에 경중이 되어 있으니 차제에 한의학계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술



左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右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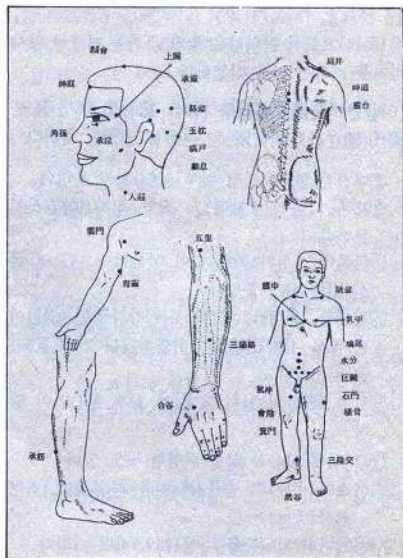
左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右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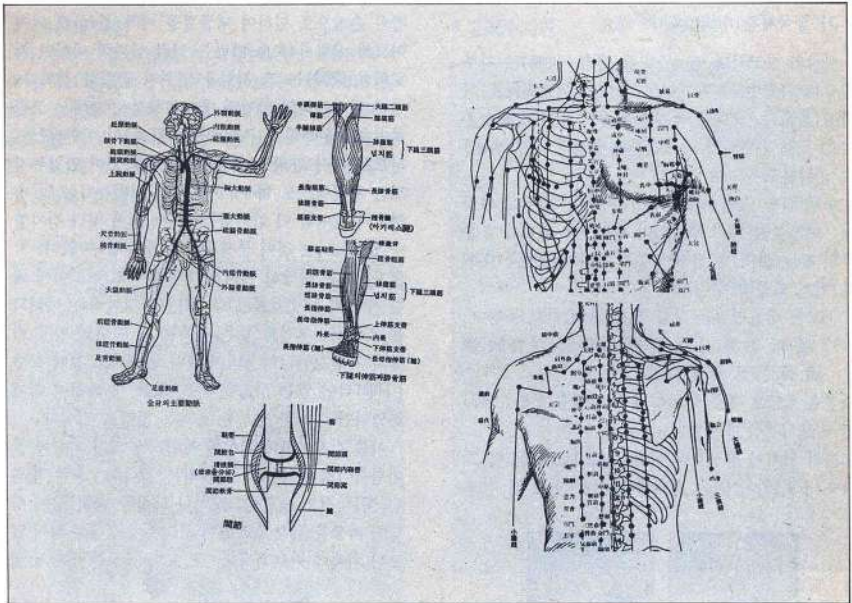


肝臟內 거주되어 있는 穴點



左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右 - 肝臟의 위치가 정상보다 이형지정도(二橫指程度)로 하수(下垂)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침(施鍼)한 결과





식(術式)으로서 이와같은 약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글은 「韓國東西醫學 100年 紀念集」에서 趙五濟氏(國立科學研究所)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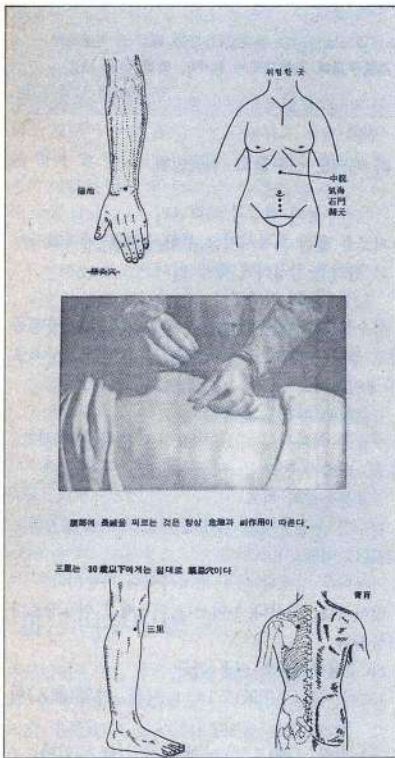
- ②대건(大健)도 직접 침자(鍼刺)하지 못한다.
- ③모든 대동맥(大動脈)도 직접 침자(鍼刺)하지 못한다.
- ④관절에는 침자(鍼刺)하여 액(液)이 나오면 굴신(屈伸)하지 못한다.
- ⑤견(肩), 흉(胸), 배(背)부에 강자극(強刺戟)이나 직접 심자(深刺)는 위험하거나 기흉(氣胸)을 일으킨다.
- ⑥금침(禁鍼)의 혈처(穴處)가 34개 혈(穴)이 있다.
- ⑦그 외에 다음과 같은 위험한 곳도 있다.
 - ㉠소아(小兒)의 총문(總門)을 자입(刺入)하면 요사(夭死)
 - ㉡앞머리 털난곳을 자입(刺入)하면 미친다.

- ㉢인후(咽喉), 기관지(氣管支), 식도(食道)는 자입(刺入)할 수 없다.
- ㉣명치끝을 자입(刺入)하면 요사(夭死)한다.
- ㉤배꼽과 배꼽위를 찔러서 액(液)이 나오면 죽는 다.
- ㉥후두부위(喉頭部位)를 깊히 자입(刺入)하면 병어리가 되고 또는 죽는다.
- ㉦머리에 강자입(強刺入)하면 현기증(眩氣症)이 생긴다.
- ㉧목, 어깨부위는 쇼크가 자주 일어 난다.
- ㉨중완(中腕)에는 금성체증에 1~2회 정도는 좋으나 그외는 악화되고 심치어는 죽는다.
- ㉩척추(脊椎)의 불록뼈를 찌르면 고평(骨)이 된다.
- ㉪사관혈(四關穴)이나 족삼이혈(足三里穴)도 위험한 곳이다.

이외에도 여러부위가 극히 주위해야 하거나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곳이 대단히 많다.

이와같이 체침(體鍼)은 위험과 부작용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금구혈 (禁灸穴)



圖에서 鍼灸를 피하는 것은 항상 危險과 副作用이 따른다.

三리는 30歲以下에게는 禁灸穴이다

나. 체침 (體鍼)으로서 건강관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체침에서의 건강에 관한 혈(穴)들은 대부분 구법(灸法) MOXIBUSTION 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에서 구법(灸法)들은 대부분 화농(火膿)을 일으키도록 구법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들에게 신체에 화농(火膿)이나 염증(炎症)을 일으키고 있다면 미열(微熱)이 있어서 쉽게 피로하여 지고 훈련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된다.

체침혈(體鍼穴)중에서는 대침(大鍼)을 자주 다침자입(多鍼刺入)하여 기계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계속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계속 치료는 불가능하다.

선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침(鍼)을 맞아서 피로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침의 기계적인 손상으로 인한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체침(體鍼)에서는 계속적으로 체부(體部)에 구(灸) 또는 침(鍼)의 자극(刺戟)이 불가능하다.

또 계속 무흔구(無痕灸)를 한다 해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혈처방(穴處方)에 의한 치료가 분명하지 못하고

둘째: 온구기(溫灸器)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넓은 면적에 구(灸)하므로 그부위의 체온이 결과적으로 하강하고 있어서 해롭다. 또한 인체에는 51개의 금구혈(禁灸穴)이 있다.

참 조

柳泰佑 鍼灸 講座(陰陽脈診出版社)

1982년 7월 20일 발행 P. 86~90

결과적으로 중국의 체침(體鍼)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체침 밖에는 없었다.

중국의 체침은 위험한 부위, 부작용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할 지언정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위험과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의 치료가 바람직 하다. 아무리 효과가 좋고 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위험과 부작용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어느때든지 실수를 일으켜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식의 체침(體鍼)은 평상시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검토하여 태권도 선수들에게 이용해야 할 줄로 생각된다.

다. 고려수지침의 개요

1971년 한국의 유태우(柳泰佑)가 창시개발(創

始開發)한 것으로 전통적인 동양의학을 연구한 바탕에서 나온 한국의 독특한 침술이다.

- ① 음양맥진론(陰陽脈診論)을 기초로 만든 이론이 정립되었고
- ② 치료기구들이 독특하게 고안개발되었고
- ③ 침구(鍼灸)뿐만 아니라 약물 MAGNET, 전자 BEAM, 레이저 BEAM 등을 이용한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라. 고려수지침의 장점

- ① 손(手)에서만 1mm내의 정도의 자입(刺入)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 ② 약자극(弱刺戟)이며 부작용이 없다.
- ③ 위험부담이 없다.
- ④ 체부(體部)의 자극(刺戟)보다 훨씬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 ⑤ 금침혈(禁鍼穴) 금구혈(禁灸穴)이 없다.
- ⑥ 수지침(手指鍼)의 치료효과가 이미 현대과학적인 측면에서 입증되었다.



표본을 잘 때도 된다.



침을 여러 개 넣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손에 넣는 7분.



7분만 넣은 모습. 1mm~2mm이다.



부담없이 넣어서도 좋은 수가 있다. 깊이는 1mm

참 조

*谷津三雄(日本大學 松戶齒學部 麻酔學 主任教授)

“高麗手指鍼 治療効果의 科學的 確認” 論文

1985년 11월 27일

마. 태권도 선수들의 적용범위

- ① 선수들의 평상시 체력관리.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고, 부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원기를 왕성하게 할수 있다.
 - ② 선수들의 질병예방.
선수들은 각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특유의 질병을 갖고 있다. 수지침술(手指鍼術)은 그병의 예방치료가 용이하다.
 - ③ 선수들의 부상치료.
수술등 외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을 제외하고, 통증, 타박상, 염좌 쇼크등을 처치할 수가 있다.
 - ④ 운동중증의 치료.
선수가 운동중에도 치료가 가능하다.(T鍼), 자기(磁氣), 약물, 10N반지)
 - ⑤ 아무 장소나 아무 위치에서나 가능하다.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어느때고 어느장소나 가능하다.
- ### 바. 고려수지침의 이용 기구
- ① 수지침(手指鍼) : 1mm 내의 자입(刺入)이다.
 - ② 정침(丁鍼) : 1mm 내의 자입(刺入)이다.
 - ③ 사침(斜鍼) : 1mm 내의 자입(刺入)이다.
 - ④ 타침(打鍼) : 점촉적 자극으로 두드린다.
 - ⑤ 삼릉침(三稜鍼) : 출혈(出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 ⑥ 약석(藥石) : 은단만한 약들을 붙인다.
 - ⑦ MAGNETIC : 소형 MAGNETIC을 붙여 치료한다.
 - ⑧ 구(灸) : 구점지(灸點紙)를 대고 뜨므로 상처가 없고 또한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위험성이 없으며 금구혈(禁灸血)이 없다.
 - ⑨ 압박요법이 있다.
 - ⑩ 전자치료 : 전자 BEAM, 레이저 BEAM, 전자 열침(電子熱鍼) 치료기가 있다.

사. 고려수지침(高麗手指鍼) 치료의 진찰법

여기서 논하는 진찰은 병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침구가(鍼灸家)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시술(施術)·적응증(適應症)인가?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질병이 어떤 것인가? 판단하고 시술(施術)해야 하며 또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아야 시술을 통하여 치료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 ①과민압통점(過敏圧痛點)을 찾는 방법
- ②진주3호기(珍珠三號器)에 의한 전자탐촉법
- ③오지(五指)의 진찰법
- ④삼일체질 분류법(三一體質分類法)
- ⑤전자 탐촉기의 진찰
- ⑥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
- ⑦방진 문진 문진 절진(望診 聞診 問診 切診) 복진 등에 의한다.

참 조

柳泰佑 陰陽脈診法과 補寫(陰陽脈診出版社)
1982년 3월 20일 발행 P.28~111 P.313~323

Ⅲ.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과민압통점(過敏圧痛點) 찾는 방법과 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의 진찰법에 의하여 수지침(手指鍼)과 MAGNETIC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명에게 만든 구법(灸法)을 추가로 시술 치료하였다.

1. 연구 대상

'85년 제6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 선수단 24명과 '86년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선수 11명과 '86년 제67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선수단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85년 전국체육대회(강릉)

증세 인원	타박상 손부위	타박상 발부위	위장 질환	대장 질환	계
	8	14	3	3	28

나. '86년 전국소년체육대회(마산)

증세 인원	타박상 손부위	타박상 발부위	계
	2	5	7

다. '86년 전국체육대회(수원)

증세 인원	타박상 손부위	타박상 발부위	위장 질환	기관지 질환	신장 질환	계
	4	17	3	4	2	30

2. 연구결과 및 처리

가. 항에서는 수부위(手部位)와 족부위(足部位)가 타박으로 인한 타박상 치료에서는 압통점(圧痛點)의 오복침과 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에 의한 직자시술(直刺施術)을 수지침(手指鍼)으로 첨가시술(添加施術)로 치료하였다.

또 위장(胃腸), 대장(大腸) 질환자의 경우는 음양맥진법(陰陽脈診法)에 의하여 수지침(手指鍼)으로 맥진상(脈診上)에 의한 오치처방(五治處方)의 정방(正方), 승방(勝方)을 직자(直刺)로 합방(合方) 시술로 치료하였다. (위장 치료에는 코우치 1명 포함)

나. 항의 상황은 어린 소년들이어서 인지 비교적 경미한 타박상이었으나 치료처방에는 압통적(圧痛點) 오복침과 기맥상(氣脈上)에 오치처방(五治處方) 승방(勝方)을 수지침으로 시술하였고 MAGNETIC을 첨가 치료하였다.

다. 항의 경우에는 수부위(手部位)와 족부위(足部位) 타박상에는 수지침에 의한 압통점(壓痛點) 오복침자(鍼刺)와 기맥상(氣脈上)에 오치처방상(五治處方上)의 승방(勝方) 위주의 시술과 MAGNETIC 요법을 첨가한 치료를 하였으며 위장(胃腸) 기관지 천식(氣管支喘息)신장질환자는 수지침에 의한 음양맥진법상(陰陽脈診法上)의 오치처방(五治處方)으로 정방(正方) 및 승방(勝方)을 합방(合方)한 시술로 치료되었으나 위장질환자의 코우치 1명은 식상(食傷)에 의한 폭세(暴吐)증상 때문에 금(金), 은(銀), 보사(補寫)의 오치처방(五治處方)을 시술하여 시간을 단축하여 치료하였으며 기관지천식을 치료 받은 선수는 만성증세로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때문에 구법(灸法) 치료와 MAGNETIC 치료를 합방하는 강력한 처방으로 무사히 경기를 끝냈음은 물론 이리니와 금메달을 차지하는 행운도 함께 하였으나 맥진상(脈診上)으로 완치가 되지않은 상태인

지라 귀가시 자가치료(自家治療) 할수 있는 처방을 해주고 보냈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고려수지침술(高麗手指鍼術)의 치료방법은 간편하고 시술이 용이하며 강력하다. 또한 치료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감이 없고 빠르게 효과를 거둘수 있고 합방처방(合方處方)을 자유자재로 처방 할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태권도선수들 뿐만이 아니고 전 운동선수들에게도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치료 받을수 있다는 이점에서도 바라는 바 목적과 성과를 거두는데 손색이 없기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 ①혈관(血管)을 자입(刺入) 했을경우 멍이 들 수가 있다. 혈관을 비키거나 1mm 내외에서는 무방하다.
- ②공복시(工腹時), 수면부족(睡眠不足), 정신불안시(精神不安時)에 있어서는 쇼크가 올수가 있다. 그러나 진정시킬수 있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 ③자기치료시(磁氣治療時) 보사(補寫)나 수지침의 금, 은침으로의 보사처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쇼크가 일어날수 있다.
- ④수지침은 극히 정밀한 방법이기 때문에 허실의 진단법이 매우 중요하고 정확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수지침과 체침의 비교

	수지침(手指鍼)	체침(體鍼)
위험	거의없다	많이 상존한다
부작용	거의없다	상존하고 있다
활용	간편하다	복잡하고 어렵다
효과	빠르다	있다
이용범위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건강유지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미흡하다
질병예방	예방방법있다	미흡하다
치료자세	편리하다	늘거나 반드시 앉아야한다
간편성	손에안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복잡하다
치료시 고통	거의없다	몹시 아프다
공포	거의 없다	공포감이 향상있다
금기	혈없다	많다

위의 비교표와 같이 일반체침은 항상 부작용이 상존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고려수지침은 위험과 부작용이 없다. 간혹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지침 처방으로써 신속하게 회복시킬수가 있고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다. 따라서 태권도선수들의 건강관리 예방치료에 침술의 이용은 고려수지침술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도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바람직 하다 하겠다.

제언

'88년 서울 올림픽에 즈음하여 국내의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태권도의 대표적인 경기대회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전국체전, 춘계종별선수권대회, 추계종별 선수권대회, 우수선수선발전, 여자개인 선수권대회, 초·중·고·대학 연맹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태권도 시·도·협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를 포함시킨다면 무척 많은 경기대회를 치르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아세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세계군인선수권대회 등 많은 경기대회를 갖게 됨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러니와 선수들의 경기중 부상및 쇼크 등을 받을 당시의 처치에 대하여 침술활용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점 그리고 수지침의 특성을 살려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태권도선수들의 보호육성을 위한 대 전제에서 이다.

참고문헌

- 柳泰佐 高麗手指鍼 講座 陰陽脈診出版社 1978
 磁氣治療의 研究 " 1979
 莊育民 針灸大成 長文彩色製版印刷
 有限公司 中華民國62
 池田政 傷寒論 素問概論 靈樞概論
 楊繼丹 鍼灸大成 解釋
 舍岩道人 鍼灸要談杏村出版社 1975
 柳泰佐 鍼灸經絡 陰陽脈診出版社 1977
 " 鍼灸基礎講座 " 1975
 " 陰陽脈診法과 補寫 " 1982
 " ION반지 療法 " 1981
 谷津三雄 高麗手指鍼術
 治療效果的 科學的 確認 論文集 1985



독자 페이지

풍 트

김성호 / 강원도 횡성군
읍하3리 1번 251-59

미래를 생각하는 몽상가가 꿈을 친구에게 말하고 있다.

A: 나는 지난밤에 멋진 꿈을 꾸었어.

내가 백만달러를 가진 꿈을 꾸었거든.

B: 자네는 그 돈을 어떻게 했나?

A: 잠이 깨기전에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

B: !!!

한 아버지와 딸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장발을 한 사람을 아버지가 보고 의아해 하며 딸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었다.

딸: 남자예요.

아버지: 왜지?

딸: 왜냐하면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아버지: 뭐? !!!

소녀

이윤영 / 강원도 춘천시
사우동 715-635

꽃잎이 망울을 터뜨리는
작은 속삭임에
마음은
어느덧 장미빛입니다.

파아란 잔디가
햇빛에 반짝일때
마음은
마말간 이슬이고 싶어합니다.

스산한 바람에 둥구는
낙엽의 흐느낌에
마음엔
이유모를 눈물이 흐릅니다.

하이얀 눈위에
외로이 난 발자욱에
살며시 외면하며,
양상한 가지위에
곱게 피어난
눈꽃을 보며
마음은
봄을 기다립니다.

가을 에세이

이정수 / 월간 엔터프라이즈 기자

때로 우리는 자신의 삶조차도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겨워할 때가 있다. 그럴때면, 의례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끔 된다.

누구나 성인이 되기까지 혼자서 삶의 의미를 수없이 곱씹어 보았을 것이며, 또한 토론도 하여 보았겠지만 한결같이 결론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단지 결론이란 삶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보았다는 것 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삶을 재차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생에 대하여 몹시 생각하던 감성이 예민한 어느 청년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모든 삶에 대한 문제가 비로써 해결된 듯한 착각에 빠져 무척 기뻐할 수도 있으나, 그순간 그의 앞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고로' 나는 말이 필연적인 당위성을 뜻하는 바이니 생각한다면 당연히 존재할 것이며, 존재한다면 당연히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할지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보다도 힘들다"는 성경의 말이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뜻을 알 수 없다."는 괴테의 짓궂거름 배 부른자가 타인의 슬픔을 알고, 나아가 인생을 음미하긴 역시 힘들 것이다.

과연 고려대금업을 하는 수전노의 컷전에 죽음의 발자욱 소리가 들릴 것인가? 로마 황제 마야거스·오우렐리우스가 철학을 할 수 있었음도 평민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친 청년은 더욱 더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고 순간순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에게 있어 삶이란 곧 생각하는 것이며, 삶을 확인할 수 없는 순간이란 곧 생각이 마비된 순간이니, 끊임이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며, 생각을 의식하고, 또 생각하여야 하니, 사고와 인식, 인식과 사고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해야 하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알 수 없는 것이 곧 인생인듯하다. 단지 평범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을 음미함이 아닌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에야, 문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것이리라.

는가?"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음미해 보는 이유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착되고야 마는가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도 어떠한 삶이 더 가치있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일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본질을 밝히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인생을 정의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는 식의 방법론도 제시할 수가 없었으니, 제왕의 삶에 비해 한 농부의 삶이 보다 가치있을 수 있음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나" 자신이 보다 가치있게 살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보다 나은 인생으로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진선미를 들수 있겠다.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야말로 개인으로서, 전체로서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선미를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란 무엇일까?

학문과 예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학자나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도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은 한개인의 가치있는 삶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인간의 삶을 전제한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 학문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보다 나은 인생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학문과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수단일 뿐이다. 학문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문은 단순한 지식일 뿐이며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전락한 것이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예술은 한갓 사치요 허영일 뿐이다. 예술가이며 학자인 루소가 학문과 예술을 통박하고 비난한 것도 당대의 학문과 예술이 보다 나은 인간,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인생을 전제로한 사명을 저버리고, 군중의 시녀로서의 학문, 부유한 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사치품으로서의 예술로 하락 하였음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문과 예술을 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인듯하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평범한 인간들은 누구나 학문과 예술을 할 수 있음직도 하다.



◀ 김운용 회장은 지난 5월 '88 서울 올림픽에 관한 협의차 일본을 방문 福田勉夫 일본의원일의원연맹 회장(전수상) (左) 과 小河原史郎 한일협력력 사무국장 (아래왼쪽) 三ツ林彌太郎 국무대신 과거처장관 (오른쪽) 에게 명예인증을 전달하며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WTF President Dr. Un Yong KIM awarded the Honorary Dan Certificate of Taekwondo to the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and Chairman of Japan-Korea Parliaments Union Hon. Mr. Takeo Fukuda (left), Executive Director of Japan-Korea Cooperation Council Mr. Shiro Ogawara and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Hon. Yataro Mitsubayashi (below) during his visit to Japan to negotiate on matters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shared friendly ties of both nations.



뉴스 초점



◀ 콜레소프 소련 NOC 부위원장이 국기원을 방문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극기와 소련기가 나란히 놓여 있음은 스포츠 외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Mr. Kolessov, Vice-President of USSR Sports Committee visited the Kukkiwon and put a signature on a guest's signbook. The flags of the two nations that have no diplomatic relations yet are put on table side by side indicate the effect of sports role in the international sports diplomacy.

▶ 소련 NOC 관계자 9명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보며 박수를 보내며 흠족해 하고 있다. - 1987. 7. 30 국기원에서 -

Members of USSR Sports officials headed by Mr. Kolessov visited the Kukkiwon and observed the Taekwondo demonstrations and applauded.





◀ 김운용 회장은 지난 5월 '88 서울 올림픽에 관한 협의차 일본을 방문 福田勉夫 일본의 한일의원연맹 회장(전수상)左)과 小河原史郎 한일협력위 사무국장 (아래왼쪽) 三ツ林彌太郎 국무대신 과거처장관(오른쪽)에게 명예단장을 전달하며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WTF President Dr. Un Yong KIM awarded the Honorary Dan Certificate of Taekwondo to the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and Chairman of Japan-Korea Parliamentsraians Union Hon. Mr. Takeo Fukuda (left), Executive Director of Japan-Korea Cooperation Council Mr. Shiro Ogawara and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gence Hon. Yataro Mitsubayashi (below) during his visit to Japan to negotiate on matters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shared friendly ties of both nations.



뉴스 초점



▶ 콜레소프 소련 NOC 부위원장이 국기원을 방문 방문록에 서명하고 있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극기와 소련기가 나란히 놓여 있음은 스포츠 외교의 역할을 다시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Mr. Kolessov, Vice-President of USSR Sports Committee visited the Kukkiwon and put a signature on a guest's signbook. The flags of the two nations that have no diplomatic relations yet are put on table side by side indicate the effect of sports role in the international sports diplomacy.

▶ 소련 NOC 관계자 9명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보며 박수를 보내며 환축해 하고 있다. - 1987. 7. 30 국기원에서 -

Members of USSR Sports officials headed by Mr. Kolessov visited the Kukkiwon and observed the Taekwondo demonstrations and applauded.





◀ 김운용 회장은 8월 20일 뉴월드 호텔에서 본회 임원, 국기원 임직원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의 현실과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며 단합과 정진을 당부했다.

President Kim gave a luncheon party to the members of the KTA and the Kukkiwon at the Hotel New-World on 20th August, and explained them the present and future plan of Taekwondo and encouraged them to do their best with cooperation and solidarity.



▲ 각국 NOC 위원 및 스포츠계 인사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

Students of Midong Primary School demonstrate Taekwondo for the visiting dignitaries.



▲ 국기원 임원 하계수련대회에서 김운용 회장, 국기원 임원들이 중주국의 고단자로서 정통 태권도의 기법과 기술을 연마하여 후진들에게 수범을 보일것을 다짐했다.

- 1987. 8. 21 국기원 -

At the summer training class of the officials of the Kukkiwon, Dr. Kim and all the trainees of high Taekwondo degree holders refreshed their body and spirit through hard trainings and made a firm resolution to set examples to subordinates of Taekwondo throughout the world.

▼ 재외교포 학생들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새겼다.
Korean students living in U.S.A. and Canada visited the Kukkiwon and saw the Taekwondo demonstrations. They gave big applause whenever they observed the exciting Taekwondo techniques. They were happy and proud to have visited Kukkiwon to have this exciting opportunity.





▲ 제16회 소년체전 기념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동상에 입상한 태권도 어린이의 그림, 「태권도 경기모습」(김명화 / 전남 순천 성남국민학교 6년)



▲ 전 일본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 스포츠 태권도의 진면목을 과시하고 돌아온 시범단



▶ 1987년 엑스포 랜드 아시아 예술제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T, V의 공동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세계인들이 모인 곳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 이들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38회의 시범으로 한국 태권어린이의 기개는 물론 한국 태권도 홍보에 앞장섰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파견될 국가대표 남·여 선수단 16명이 9월1일~26일까지 국기원에서 강화훈련에 돌입하였다.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선수단 명단

- *단 장 : 김 성 태
- *감독 : 김 용 서
- *코 치 : 남 유병호 여 김영인
- *트레이너 : 남 이계승 여 강중식

체급	구분	남자선수단	여자선수단
핀	급	임성욱	장이숙
플라이급		강창모	이영
밴텀급		유명식	배은정
페더급		정승환	김소영
라이트급		양대승	이은영
웰터급		정국현	김지숙
미들급		이계행	김현희
헤비급		고영철	장운정





▲ 대표선수 선서를 한 부산시협회 대표선수들을 격려하는 김운용 회장.

제 22 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6. 13~16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제 22 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참가 임원 환영 리셉션
1987. 6. 12. 부산구덕실



▲ 권오현 부산직할시 협회장이 환영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본 대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경기를 치루어 지방태권도의 활성화는 물론, 각급 팀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 고등부 단체입상 1위 동성고,
2위 신탄진고, 3위 부산체고동의
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한자리에
고등부 각체급별
우승자들





▲ 대학부 각체급 우승자들



▲ 일반부 각체급별 우승자들



▲ 대학부 단체입상 1위 한국체대, 2위 동아대, 3위 경희대등의 지도자들, 본대회에서는 지방세가 감세를 나타냈다.



▲ 일반부 단체입상 1위 상무, 2위 광주 직할시험회, 3위 지하철공사등의 입상자들.



▶ 본대회를 개최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임원들과 소속선수들.

제 23 회 대한 태권도 제 14 회 한국 중고연맹

8. 24 ~ 29



▲ 황호순 중고연맹 회장이 전 여고 우승팀인 청산여상 선수로부터 우승기를 반환 받고 있다.



▲ 현 국가대표, 김창모 선수를 비롯, 내일의 10대 돌풍을 일으킬 고교유망주들



◀ 내일의 태권도의 꿈나무 중등부 우승자들



◀ 순간의 포착이 승패를 좌우하며... 코치의 가슴을 태우는 순간들.



협회장기 생탈전 겸 태권도 대회

국기원



◀ 여고우승자 8명중 6명이
참산여성상으로, 고등부
여자태권도부의 저변확대가
질실히 요구되는 듯……

▲ 성암여성 고적대 퍼레이드의
식후 행사는 긴장된 선수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기에 충분했다.



◀ 여자태권도 선수의
미래의 꿈나무,
중등부 우승자들



▶ 들어 찌키와 받아
차기의 순간, 코치의
표정으로는 받아 차기가
독점이 된듯……



제 8 회
 체육부 장관기 타기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8.19~20
 국기원



▲ 거루기 부문 단체 1위 주성국교 팀에게
 우승컵을 시상하는 서영준 국교연맹 회장.



▶ 식후 행사로 거행된
 신도림국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질도있고 정확한 시범은
 관중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 거루기 부문 체급별 우승자 (左 헤비급 → 右 핀급)



▲ 품새부문 학년별 우승자 (左 6학년 → 右 1학년)